천도영험도량 · 지장도량 성거사
1만불 청동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봉안
상담문의전화 041-567-6820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0월 6일(음력8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494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잘못된 내용·비방 수두룩

인터넷 속 '쓰레기불교정보' 심각… 검증·관리 기구 필요

무속과 혼동 · 기초교리 왜곡 '치명적'

#'보통 무속과 점을 미신이라고 무시하는데, 사실 불교보다도 점과 사주가 고통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음의 S카페>

#'아라한은 최고의 무술을 뜻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불교에 갓 입문한 30대 후반의 직장인 P씨. 최근 개신교 신자인 직장 동료에게 '불교도 신(神)을 믿는다' 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다. 그간 인터넷에서 얻은 왜곡된 정보를 믿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아차!'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다시 검색.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P씨의 자책감은 원망과 불만으로 옮겨간다. '왜 불교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 단체가 없을까?'

P씨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상 불교관련 정보들의 오류 · 편향 · 왜곡 · 비방 현상이 심각하다. 게다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잘못된 불교정보들이 폭발적인 인터넷 파급력을 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다 최근 '지식검색'이란 정보교환 시스템이 네티즌을 정보 생산층으로 만들면서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본지가 불교관련 사이트 200여 곳을 파악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30곳(15%) 사이트에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오류 5곳, 편향 6곳, 비방 3곳 등이며, 왜곡 사례는 16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무속 · 점 문화를 조장하는 왜곡된 정보들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 초보불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까지 불러 일으켜 신행활동에 부작용을 빚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卍'자, '보살' 등의 불교용어 악용이다. ㅊ사이트의 경우, '卍'자를 홈페이지 상단에 개시하면서 무속행위가 불교인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 또 '보살'이란 불교의 고유단어도 아예 무속용어로 변용하면서 '불교=무속'이란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하고 있다.

불교교리를 자의적 해석한 타종교 단체의 홍보자료에서도 확인된다. 'ㅈ, ㄷ'종교의 경우, 미륵불 사상을 해석하는데, 현존하는 교조를 미륵불로 보고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교주)○○○은 절대신으로 있다가 천계의 신성불보살들이 하소연함으로써 이 세상에 내려왔다.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보내고 스스로 강림했다…(생략)"며 불교의 미륵사상을 왜곡했다.

심지어 불교에 대해 반감을 일으키는 정보들도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티불교'의 경우, 스님들의 폭력 · 성폭행 · 강간사건, 종교분쟁 조장 등을 기사나 실화형식으로 소개하는 한편, '백일기도 출산은 70%가 승려와의 불륜에서'라는 비방의 글까지 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천리안불교동호회장 박수호 씨는 "불교관련 정보 왜곡 등의 현상이 영어권 불교 사이트에까지 번역돼 재생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렇다할 대책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옥석을 가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게다가 종단 및 사찰 등의 기관들이 이를 검증할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은 기본적인 현황조사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상에서 불교관련 '오류, 편향, 비방, 왜곡' 사례를 파악한 자료집은 전무하다. '왜'는 둘째 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또 그나마 조계종에 있던 종교편향위원회도 종무행정 공식기구에서 없어졌다. 올 2월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공백까지 빚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본적인 사례접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교육을 맡고 있는 포교원 신도국도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 인터넷 공간의 속성은 네티즌의 자율성과 정보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하는 대안은 '전담 기구' 설치다. 이 기구를 통해 우선, 잘못된 불교관련 정보를 '오류 · 편향 · 왜곡' 등으로 유형별로 묶어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 범종단 차원의 '인터넷 불교정보 검증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잘못된 불교정보의 공유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단과 신도단체간 역할 분담도 요구된다. 종단은 자문, 지원 등을, 신도단체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사례 접수 등을 나눠 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인터넷 포교사로서 활동할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김철우 · 김은경 기자



"비닐천막으로 마애불을 보호하라"

경북 영주시 가흥동 마애삼존불상(보물 제221호) 주변 암반을 덮어 둔 비닐 천막과 모래자루가, 연접한 도로 · 인근의 아파트와 함께 문화재 보호의 한계를 대변해 주고 있다. 사진=임연태 기자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 암반 "보강 시급"

공주대 안전진단 결과

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상 주변의 암반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는 최근 이 지역 암반에 대한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진단결과 마애삼존불상이 조각된 바위를 포함 주변의 암반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조속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는 2003년 6월 28일 가흥동 마애삼존불상 좌측 아랫부분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발견된 마애불을 기존의 보물 제221호 마애삼존불상에 포함해 '가흥동 마애불상군'으로 명칭을 변경, 국보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주=임연태 기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광개토대왕은 전륜성왕"

'불법을 믿어 법을 구하라' 교서 조경철 씨, '영락' 연호 등 분석 주장

'광개토대왕은 인도 아쇼카왕에 버금가는 전륜성왕이다.'

최근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개토대왕은 불교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삼아 국리민복을 추구한 '전륜성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학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불교사를 전공하고 있는 조경철 연세대 강사.

조 씨는 논문 '광개토왕대 영락기년 검토와 불교'를 통해 <삼국사기>에 고국양왕이 반포한 것으로 돼 있는 '불법을 믿어 법을 구하라'는 내용의 교서가 광개토대왕이 반포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불교와의 관련성 규명을 시도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국양왕이 교서를 반포한 때는 392년. 같은 해 고국양왕이 죽고,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비에 따르면 영락(永樂 · 광개토대왕의 연호)원년이 391년이어서 학계는 <삼국사기>의 392년을 391년으로 수정해서 연대를 계산함으로써 난점을 피하고 있다.



광개토대왕 영정(국립현대미술관, 이종상 作).

이에 대해 조 씨는 5호 16국과 백제를 비롯한 광개토대왕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유년칭원법이 일반적이었음을 근거로 고구려 또한 유년칭원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즉위년은 영락원년인 391년보다 한 해 앞선 390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년칭원법은 前왕이 죽은 이듬해(새 왕이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삼는 것이다.

그 1년의 차이가 광개토대왕과 불교 관계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조 씨는 강조한다. 광개토대왕이 390년에 즉위했다면 391년에 반포된 '불법을 믿어 법을 구하라'는 교서는 광개토대왕의 것임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조 씨는 광개토대왕의 통치이념을 읽어낸다.

"광개토대왕은 인도 아쇼카왕에 버금가는 전륜성왕이었다. 그의 통치이념은 '영원한 법의 즐거움'을 뜻하는 영락이라는 연호에 응축돼 있다."

조 씨의 논문은 10월 9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리는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문기)에서 발표된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혜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남북공동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이 빈터에 가람을 다시 세우고 부처님을 모셔야 합니다!

◐ **신계사는**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와 더불어 금강산 사대명찰의 하나로서 신라 법흥왕 6년 보운화상이 창건한 1500년된 전통사찰입니다. 21동에 이르는 당우와 8개의 산내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 6.25 전쟁속에 모두 소실되고 주춧돌만 남았습니다.

◐ **남북 불교계는**

분단이후 최초로 전통사찰을 복원하여 불교성지 금강산을 되살리고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신계사 복원은 민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적인 불사입니다.

◐ **신계사 불사는**

통일부의 승인하에 올해부터 4년동안 원형 그대로 복원되며, 오는 11월 19일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을 할 예정입니다.

◐ **불사 참여방법**

•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
• 은 행 : 국민은행 023501-04-006679 농협 053-01-255568

◐ **문의 :**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연락처 : 조계종 사회부 Tel : 02-2011-1821 Fax : 02-735-0614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Tel : 02-2011-1818 Fax : 02-720-0532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스님들의 권위의식

수행자는 오만하면 안 된다. 오만하게 되면 그 순간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님이라고 하여 신도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바로 수행자의 생명은 죽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스님은 신도들에게 자신을 존경해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행자 때는 하심도 잘하던 사람이 계를 받고 스님이 되면 그날부터 태도가 달라진다. 거만하고 오만해 진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조금만 대접을 소홀히 하면 불만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 어찌 스님을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참으로 공부가 잘 된 스님은 공부가 높아지고 익어갈수록 겸손해 진다. 누가 대접을 잘 해 줄수록 몸을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다. 결코 누구에게도 대접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설사 누가 무시하고 괄시해도 화를 낸다든지 하지 않는다.

중생 잘 섬기는게 수행의 기본
권위 보다는 인격으로 감화시켜야

신도들에게 대접을 잘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강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무적인 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신도들에게 '왜? 스님을 존경하지 않느냐'고 강요하고, 마치 신도들은 스님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 같이 말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면 그 인격에 감동을 받고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스님으로서 승복을 입고 가사 장삼을 입은 바에는 신도들에게 감화를 줄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승려의 기본이다. 불자들이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중생을 잘 섬기는 것이다. 왜냐 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순중생(隨順衆生)이라고 한다. 따라서 스님들도 중생을 섬겨야 한다. 오히려 중생을 부처님 같이 섬겨야 하는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은 중생을 섬기는 수행만으로 부처님이 됐다. 동학이 구한말에 들불처럼 일어나게 된 것도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 하여 사람이 하나님임을 깨달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은 바로 불교의 사람이 부처님(人卽佛)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끝으로 스님들은 신도님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세속적인 생각이다. 물론 신도들은 존경하는 스님들의 언행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권위가 있게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스님이 추구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냥 인격적인 감화를 주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긴 것일 뿐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인 생각인줄 알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많이 잃고 조금 찾았다

문화재도난 비해 회수·검거율 저조…노웅래의원 지적

8.7% 되찾아 "종합대책절실"

도난당한 문화재의 회수율과 도굴범 검거율이 부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문화재 도난은 198건에 7,548점이었던 반면, 문화재 회수는 42건에 662점에 불과해 회수율이 고작 8.7%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문화재 도굴(미수 포함)은 36건이었으나 검거건수는 20건으로, 검거율이 55.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5대 범죄 검거율이 84.2%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검거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물 · 국보급 문화재 도난 사건이 심각하다. 1999년과 2001년에 도난당한 보물 제566호 '유근영정'과 국보 제238호 '소원화개첩'등이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도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1년에 사적 제191호 고려 공양왕릉(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이 도굴됐고, 2002년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경기도 여주군), 2003년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감선사탑(전남 화순군) 등이 도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재 도난 · 도굴 사건이 활개치는 이유로 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국내외 암시장이 점조직으로 구성 돼있기 때문에 한번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 하다"며 당국의 정확한 문화재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상의 허점도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01년 충남 부여군 무량사 주지실에서 훔친 지방유형문화재(충남도 100호)인 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3점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팔려한 김모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가 "12년 전 장물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는 주장을 펴 처벌에 어려움을 겪자 '은닉' 혐의를 적용했던 것.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계속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도난당한 불상은 되찾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문화재는 국민의 자산인 만큼 도난과 도굴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나가거나 사장(私藏)되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해인 만큼 정부는 문화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며 사법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도난 · 도굴 예방법으로 ▲정부의 문화재관리법 재정비 ▲도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도난 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제보 ▲문화재사범단속반 강화와 검 · 경찰에 문화재전담반 설치 ▲문화재 청원경찰 확충 ▲교구본사의 관리감독 기능강화와 자동 경보시설 설치 등을 꼽았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불교환경워크숍 개최
조계종 10월27~28일

불교 환경운동의 방향타 구실을 할 '불교환경의제21'을 확정하게 될 '불교환경워크숍'이 10월 27~28일 천안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해인사 정원, 월정사 현각 스님 등 교구환경위원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2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제1회 교구환경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불교환경워크숍 ▲연2회 교구환경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 주요 현안들을 확정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지원 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교계가 천성산, 북한산 등 환경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구 본사들이 서둘러 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앞으로 교구환경위원회가 없는 사찰에 대해 이 기구의 구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여성성직자 비율
불교는 5번째

문광부 국감자료서 드러나

우리나라 7대 종교 중 여성 성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종교는 천주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천도교에 이어 5번째로 조사됐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9월 25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천주교 여성 성직자는 8455명으로 전체 성직자(1만2366명)의 68.3%를 차지해 7대 종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두번째는 원불교로 전체 성직자 2455명 중 58.5%인 1429명이 여성 성직자며, 대종교(48.9%), 천도교(43.5%)가 그 뒤를 이었다.

불교는 36.9%로 5번째(4만1232명 중 1만5224명)로 조사됐으며, 6번째인 기독교는 전체 성직자 7만9023명 중 26%인 2만564명의 여성 성직자가 활동중이다.

한편 여성 성직자 비율이 8.2%(3만1833명 중 2623명)인 유교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남동우 기자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중앙승가대 운영위 "학내의사 반영돼야"

중앙승가대(총장 종범)는 제5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15일 임기가 끝나는 종범 스님의 후임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장추천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6일 개운사에서 첫회의를 갖는다. 제4대 총장 추천위원회는 교수, 직원, 동문회, 학생회를 대표하는 10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9월 13일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총장의 임면이 기본적으로 중앙승가대 이사회(이사장 법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차적으로 대학 구성원들 내부의 의사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승가대 관계자는 "현 총장의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총장을 선출하는데 학교 내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종범 스님의 연임을 권유했지만 스님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범 스님은 지난 2000년 중앙승가대가 안암동 개운사에서 김포 학사로 이전하면서 제3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4년 동안 학인들의 수행중심 면학분위기 조성과 대학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주력해 왔다.

조용수 기자

알림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 특별전
림 '대륙의 문수성지, 반도로 오다' 사진전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정념)은 현대불교신문사 후원으로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 특별전과 '대륙의 문수성지, 반도로 오다'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033)334-1817

- 일시 : 10월 8일~12월 5일
- 장소 : 특별전(월정사 성보박물관 전시실)
  사진전(월정사 용금루 상설전시장)

조계종 사미(니) 158명 배출
제 27기 행자교육원 회향

조계종의 새 사미 · 사미니 158명이 배출됐다. 9월 2일 송광사에서 시작된 제27기 행자교육원이 23일 회향했다. 이에 앞서 22일 실시된 5급 승가고시에는 총 163명이 응시해 남행자 77명, 여행자 81명이 예비승려 자격을 얻었다.

조용수 기자

社 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붓다뉴스를 통해 수필가 맹란자 선생(에세이문학 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VITATION

제 2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4년 10월 15일(금)PM 2:00 ~ 6: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Conference Hall

교통편
지하철 : 1, 2호선 시청역 3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 6번, 7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 8번 출구
버 스 : 세종문화회관 앞

행사프로그램

제1부

등록 : 13:00~14:00

개회식 14:00~14:30
개회사 : 이종욱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축 사 : 안필준 / 전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노인회 회장
인사말 : 김용택 / 청호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조강연 14:30~14:50
주 제 : 한국고령자복지정책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 및 과제
차흥봉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노년학회 회장, 사회복지학회 회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부

사 회 : 황진수 / 한성대학교 교수, 행정대학원 원장

발 표 1 : **노인요양정책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15:10~15:30
선우 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발 표 2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15:30~15:50
이재모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15:50~16:20
함철호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룡 /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휴식 16:20~16:30

발 표 3 : **호스피스활동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16:30~16:50
조성희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표 4 : **케어매니지먼트와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가 과제** 16:50~17:10
장창호 / 일본 시즈오카복지대학 교수

토 론 17:10 17:40
이은희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헌 / 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종합토론 17:40~18:00
김용택 /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김용택 합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12
재단 : Tel. 02)517-3052 / FAX. 02)542-0519
연구소 : Tel. 02)517-3045 / FAX. 02)515-3021
홈페이지 : http://www.chbuddha.com

인 터 뷰 '직지' 세계최초 고증한 在佛학자 박병선 박사

외규장각 도서반환 "국민 열망에 놀랐다"

이번 방문은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 알랭 두아일리 씨의 외규장각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사전 답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프랑스에서 인터뷰 촬영은 이미 마친 박 박사는 "두아일리 씨의 한국 내 촬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맹랑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렇게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등사 방문은 이날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왕실의 전적(典籍)을 보관하는 사고(史庫)였던 강화도 외규장각을 약탈한 프랑스군을 물리친 전투지인 정족산성과 함께 포함됐다.

정족산성 남문을 통해 전등사에 들어선 박 박사는 경내에 가득한 불교문화와 자연에 매료된 눈치였다. 보호수로 지정된 400년 됐다는 느티나무를 향해 "너는 역사를 다 알겠다"며 "역사를 말하는 느티나무"라고 말을 건넸다.

특히 대웅전 밖에 길게 늘어뜨려진 '외규장각 도서 반환 기원 만등불사' 플래카드에서 국민의 염원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박사는 "국민의 뜻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가슴이 짜르르 하다"고 말했다.

<직지>와 외규장각 도서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봤던 그로서는 조국에서의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큰 관심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모양이다.

박 박사는 "나는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자로 취급 받고, 한국 관료로부터는 괜한 문제를 야기하는 골칫덩이로 인식돼왔다"면서 "하지만 조국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가진 바 없었고, 나의 사명을 다 한 것뿐이므로 서운함은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조국은 그에게 1999년 은관훈장, 2001년 해외동포상 등을 수여함으로써 한참 뒤늦게야 고마움을 표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무릅쓰고 외규장각 도서를 12년이나 걸려 요약 · 정리해서 책으로 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까닭에 대해 그는 "<직지>든 외규장각 도서든 내가 찾은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학자들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외면했지만, 병인양요 때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에 사명감을 갖고 연구했다는 것.

박 박사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에 대해 "이제 국가간의 문제가 됐으니 반환되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희망했다. 또 프랑스 소장 어람용유일본의궤와 국내 복본(複本)을 교환하는 방식의 반환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프랑스에 가 있는 외규장각 도서만으로도 안타까운데 무엇을 또 보낸다는 말이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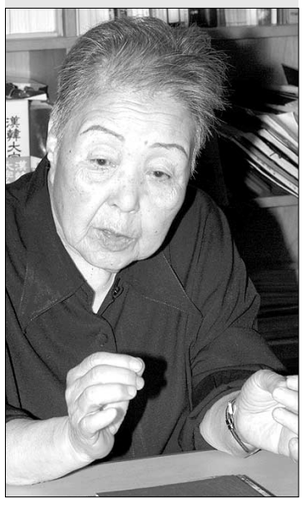
외규장각과 약탈도서 반환문제는 한국과 프랑스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시작은 지난 1978년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베르사이유 별관 파손 창고에서 처음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고서 반환 문제가 양국간 문화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반환추진은 1991년 10월 서울대학교에서 외무부에 추진을 의뢰, 이듬해 7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1년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국내로 반환하는 대신에 국내에 소장중인 비슷한 가치를 지닌 우리 문화재를 대신 프랑스에 내주는 '등가교환'에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지난 해 현 정권이 재검토를 결정 원점부터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직지>에 담긴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몽고침략기에 민생구제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직지>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에 나무껍질도 없고, 들에 풀조차도 귀하던 각박한 시기에 국민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하기 위해 <직지>를 찍어낸 것이니 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박 박사는 청주의 직지축제나 강화도의 삼랑성 축제에 대해 <직지>와 외규장각도서의 소중한 가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축제에 머물지 말고 점점 확대돼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0을 바라보는 박 박사는 아직도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현재 그는 2005년 출간을 목표로 불어판 <한국사>를 집필하고 있다. 박익순 기자

<직지>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임을 고증해내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음을 세상에 알린 재불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76 · 사진)가 9월 30일 강화도 전등사를 방문했다.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꼼꼼하게 훑은 것은 이번이 처음. 역사의 현장을 돌아본다는 기쁨 때문인지 박 박사에게서 피곤한 기색은 찾을 수 없었다.



다큐 제작 답사차 방한
한때 韓-佛 양국서
골칫덩이로 인식
"등가교환 절대 반대"



중앙신도회, 국회정각회에 죽비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구현해 달라며, 9월 23일 국회 정각법당을 찾아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회장 이용희) 의원 30여명에게 <금강경>과 죽비를 전달했다.
이용희(열린우리당), 이상배(한나라당), 박세일(한나라당), 이계진(한나라당), 권성택(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함께한 이날 전달식에서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은 "불교의 대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정각회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당파를 떠나 화합된 모습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국 불자들의 힘을 응집해 달라"고 말했다.
정각회 이용희 회장은 이에 "여러 국회의원들과 마음을 합해 상생의 정치를 펴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방송 뉴스프로 강화

11일 가을개편… '문화공감-상상' 등 신설

대립구조를 극복하고 갈등을 아우르는 방송, 사회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송을 목표로 불교방송이 10월 11일자로 가을개편을 단행한다.

매일 새벽 5시 50분 능인선원 지광 스님이 진행하는 '지광 스님의 지혜의 길'은 부처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불자들을 찾아간다. 저녁 6시 15분에는 각계각층의 해설위원을 위촉해 불교방송 만의 색깔이 담긴 뉴스를 선보일 '뉴스 파노라마'가 신설된다. 토요일에는 집중토론으로 꾸며 한주간 최고 이슈를 선상신 기술위원의 사회로 토론한다.

일요일 저녁 6시 15분 '문화공감-상상'을 신설, 이선희 아나운서의 맛깔스러운 진행으로 문화 전반의 소식을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이 시대 최고의 유행 웰빙은 일요일 오후 5시 10분 '아름다운 삶, 좋은 만남' 코너에서 진지하게 고민한다. 트로트가수 박진선 씨가 진행하는 '박진선의 트롯시대'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듣기 편한 노래들을 선곡해 매일 저녁 7시에 찾아간다. 민요전문가 김연갑 씨가 진행할 '삶의 노래'는 근현대에 일어났던 일을 그 시대의 노래로 재조명하는 코너이다.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소년을 위한 'Music N 유영석입니다'가 신설된다. 푸른하늘의 가수이자 작곡가 유영석 씨가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들을 편성해 청소년 청취자와 만난다. 강지연 기자

강의석 군 '예배선택권' 얻어

학교와 합의…46일 단식 끝내

강제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단식투쟁을 벌였던 강의석 군(서울 대광고 3년)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

학생회장을 지낸 강의석 군은 9월 25일 학교측과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데 합의, 단식을 풀었다. 교내 방송을 통해 학내 종교자유를 선언한 지 101일만이다.

46일간의 단식을 푼 강 군은 "그동안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공간인 '미션스쿨 종교자유'(cafe.daum.net/whdrytkfkd)에는 강군에 대한 축하와 건강을 비는 글이 이어졌으며, 강군을 지지해 온 시민사회 단체들도 환영 뜻을 밝혔다.

한편 대광고는 12명의 교사들로 이뤄진 '기독교 교육문제 대책협의회'를 열고 △예배 거부 학생들에 대한 대체활동 계획을 재단 · 교단 · 기독교학교연합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고 △대체계획 마련 전까지는 담임교사 · 교목실 · 학부모의 상담과 동의를 얻은 학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배가 있는 10월 13일 이전까지 대체활동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소쩍새마을 안명훈씨 장애인올림픽 금메달



입으로 종이학 접기로 유명한 소쩍새마을 안명훈(25 · 뇌성마비 1급 장애인 · 사진) 씨가 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 보치아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들만 출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공을 굴려 점수를 내는 경기. 동계스포츠인 컬링과 비슷하다.

안 선수가 보치아를 만난 것은 지난 1998년부터. 소쩍새마을에 입소해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운 보치아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한 것이다. 이 경기에 재능을 보인 안 선수는 시작한 지 1년만인 1999년 전국뇌성마비장애인 보치아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뒀다. 2002년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2004년 장애인체전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원주시는 "한국과 강원의 명예를 높인 안명훈의 쾌거를 기념하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실어주기 위한 환영행사를 10월 초순경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인성교육 동영상 CD 경기도내 중고교에 배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동영상 CD가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교장 이근우)에서 제작됐다.

청담고 창업보육센터가 기획 제작한 '날마다 한 생각'은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게 구성된 동영상과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의 글(작가 김정빈 씨의 시나리오)이 어우러진 교육용 자료. 두 장의 CD로 구성된 '날마다 한 생각'에는 운명, 벗, 실천, 긍정 등 청소년들이 사유하고 갖춰야 할 10가지 덕목들이 주제별 영상물로 담겨 있다.

청담고는 '날마다 한 생각'을 경기도내 중 고등학교에 배포 했으며 내년에 2차로 90개의 주제를 담는 영상물을 제작할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청호 불교복지문화연구소 15일 사회복지학술세미나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소장 김용택)는 10월 15일 오후 2~4시 세종문화회관 4층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흥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고령자복지정책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선우 덕 책임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요양정책', 이재모 교수(대구가톨릭대)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조성희 교수(순천향대)가 '호스피스 활동', 장창호 교수(일본 시즈오카복지대)가 '케어매니즈먼트'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02)517-3045 김철우 기자

불기 2548년

조계사 창건기념 행사안내

조계사 창건일 : 10월 16일(토, 음 9.3) 창건기념주간 : 10월 10일(일) ~ 17일(일) 8일간

제3회 회화나무음악회
도심속 문화도량 조계사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세계각국의 감미로운 선율에 젖어드는 가을밤
15일(금) 저녁7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
출연진 : 잉카엠파이어, 뉴트리앙상블, 김태곤 조계사합창단
사 회 : 진명스님

조계종 영산대재
부처님의 영취산 설법을 장엄하게 재현한
불교의식의 백미, 영혼을 천도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의식이며 종합불교 예술
17일(일) 오전10~오후5시 / 대웅전 앞 특설무대
동참접수 : 02)732-2115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창건기념 바자회
나눔을 통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행사
16일(토) 오전11시 / 대웅전 앞마당
나눔의 실천협약식 : 10월 16일 11시 30분 대웅전

가족뮤지컬 '오세암'
故 정채봉님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수 있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11일(월) 저녁7시 / 대웅전 앞 특설무대

입재식
한국의 사찰, 우리모두의 도량, 조계사를 창건하신
종조스님과 조사스님들께 다례를 올리는 법회 봉행
10일(일) 사시기도, 조계사 대웅전

조계사 청년회 설법대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음성으로 전하고 부처님의 의지를
새기며 포교의 의지를 다지는 대회
12일(화) 저녁7시30분/ 조계사 대웅전

청소년 댄스페스티발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으로 펼치는
폭발적인 열정의 무대,
16일(토) 저녁7시 / 대웅전 앞 특설무대
출연진 : 인터넷댄스동호회 prepixs팀, 구로청소년수련관 댄스팀
서울지역 각 학교 댄스팀 출연

조계사 신도경연대회
그동안 숨겨놓았던 재주를 무대위에서 펼쳐놓는 날
춤과 연주, 시낭송등 도반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조계사판 전국 노래자랑
10월14일(목) 오후 3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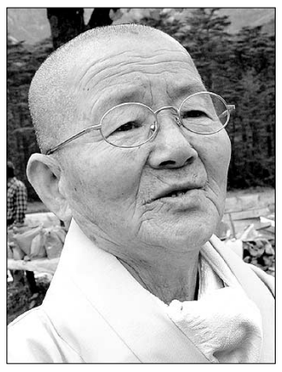
한마음 대동제
사부대중이 모두 모여 한마음 한가족 되는 흥겨운 대동의 한마당
10일(일) 오전11시, 조계사 경내
종목 : 홀라우프, 2인3각, 제기차기, 장기자랑, 줄다리기, 박터트리기 등

조계사 사진동호회 전시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조계사 도량
신행의 순간순간들과 조계사가 지나온 발자취
11일(월)~17일(일) / 조계사 앞마당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15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법기암서 출가 어언 60년

인 터 뷰 신계사와 인연 간직한 **혜해** 스님



"생전에 다시 못갈 곳이라 생각했던 곳을 찾아갔는데, 기쁜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 하겠습니까?"

9월 23일 신계사 복원불사에 비구니 대표로 현장을 다녀온 경주 천경림선원장 혜해(84 · 사진)스님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올해는 혜해스님이 24세 꽃다운 나이에 신계사 산내암자인 법기암에서 출가한지 만 60년이 되는 해다. 그만큼 스님에게 이번 금강산 방문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실 스님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스님은 벌써 4번째 신계사 방문길에 올랐다. 네 번째의 방북이니 만큼 첫 방문 때의 긴장감이나 낯선 감정들은 덜했다. 때문인지 스님은 "다음번 방북 때는 내가 출가했던 법기암에 올라 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몰라"라며 조심스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제는 절터조차 찾기 힘들어 졌지만 스님은 60년 전 법기암 시절의 기억을 아직도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다. 스님이 신계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이다. 출가한지 1년 만에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갈리면서 금강산 인근의 스님들과 함께 46년 10월에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 와중에 자신을 삭발 출가시켰던 은사 대원 스님과 일부 노장들이 법기암에 그대로 남았지만 이제는 생사조차 모른다.

지난 2001년 첫 방문 때 3층 석탑과 당간지주만 남은 신계사 터에서 홀로 108배를 올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케 했던 스님은 이번 복원불사 입재법회에서도 "하루빨리 신계사가 복원되고,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다투지 말기를 바란다"며 애절한 심정을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입재

민족 화해 주춧돌 기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 19명 등 50여명 참석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은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입재식을 9월 23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현장에서 봉행했다.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복원불사가 오는 11월 19일 낙성식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단장 수현)이 9월 23일 신계사를 방문,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입재식 및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흥륜사 천경림선원장 혜해 스님을 비롯해 수현(전국비구니회 부회장) · 경희(대구 서봉사 주지) · 법공(부산 관음정사 관음선원장) · 보각(의정부 석림사 주지) 스님 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 19명과 현대아산 측 관계자, 남북 기술진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비구니회 대표단 스님들은 입재식에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남북이 함께 진행하는 신계사 대웅전 복원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하며, 이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은 낙성식 때까지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입재식에 이어 진행된 위령제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금강산 지역에서 전사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번 위령제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위령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비구니 대표단 스님들은 떡과 과일 등 남한에서 직접 준비해 간 공양물로 손수 영가 천도단을 차리고 전통불교의식에 따라 1시간 여 동안 위령제를 봉행했다.

비구니회 대표단 단장 수현 스님은 "신계사 복원은 분단된 민족의 문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사적인 일이자 금강산을 불교성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대작불사"라며 "2천만 불자들이 신계사 복원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원경 스님의 중국 선수행 체험기

간화선 전통 맥 끊겨

사회통합 도구로 불교 적극 활용 인상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조계종 교육원과 공동으로 제4회 韓 · 中 선수행체험행사를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9박 10일간 실시했다. 체험단의 일원으로 생생한 중국불교의 현주소를 돌아보고온 송광사 강원 학감 원경(사진) 스님의 체험후기를 정리했다.

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 전부터 간화선의 전통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중국 수행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 10일 동안 내가 겪은 것은 '중국 선수행체험' 이라기보다 그냥 '중국불교체험' 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중국 현지에서 마주한 선의 전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모습이었다. 일부 선수행을 했던 곳을 가보았지만 염불 수행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조동종(묵조선) 계열의 사찰(포전 석실암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정토 염불을 하고 있었다. 복주 서선사에서는 선방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현재 창고로 쓰고 있어 보여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문화혁명 이후 불교의 정신문명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스님에게 한국에는 송대 이래의 간화선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중국도 간화선의 전통을 복원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참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태여서인지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중국불교를 체험하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성(省)마다 설치되어 있는 불학원(우리의 강원)을 방문한 것이다. 최근 민족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정부는 사회통합의 도구로 불교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불교의 육성,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에 따라 각 성마다 불학원을 세워 수준 높은 승려양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해외 불교를 배우기 위한 노력도 대단해 수년전 내가 유학했던 스리랑카에서도 중국정부지원을 받는 장학생이 30여명이나 공부하고 있었다.

중국 불학원은 총 9년제로 각각 3년과정의 중전반(中專班 · 기초-고졸), 대전반(大專班 · 기본-대졸), 사자반(師資班 · 전문-석사)과정을 거쳐 승려를 양성하고 있었다. 하루 5시간을 강의하는데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인들의 공부하는 모습에서 상당한 열의가 느껴졌다. 첫 번째 3년 기초과정에서 비구계를 받기 위한 승가고사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단 한번 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기본 3년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계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 강원의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배워야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대에 선의 전통이 쇠락하였고, 중국이 공산화 됐던 70~80년 동안 끊겼던 법맥을 잇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문서와 자료로 남아있는 불교의 전통, 근본 대승불교의 각 등지에서 살아있는 불교를 수혈 받으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한 세대가 양성될 2~30년 후면 한국불교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학인들의 출가 연령이 비교적 어리고, 우리처럼 간경 때 글 새김을 해야 하는 과정 없이 경전을 바로 읽고 이해하는 중국학인들이 수업진행은 확실히 걸림이 없었다. 새로운 도약과 웅비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불교의 무궁한 발전가능성을 체험한 열흘이었다.

정리=조용수 기자

교육 · 출판 30년 외길 밝혀온 '불광회'

도심포교 선구역할 한몫 신도교육 모범으로 꼽혀

1974년 서울 종로구 대각사에서 "반야사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공 · 행복 · 발전을 이루어 우리와 사회의 광명화를 도모한다"는 '불광선언' 을 통해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어온 불광회(佛光會 · 회주 지홍)가 지난 9월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신도교육의 모범을 보이며 정규신도만 1만명이나 되는 대규모 도심포교당을 일구어온 불광회의 성장은 이후 다른 도심포교당들의 포교방법 개발, 사찰 운영방법, 매체의 개발과 운영, 신도조직의 구성 방법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불광회는 창립 이듬해인 75년 '월간 불광' 을 통해 인연을 맺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불광법회' 를 시작했다. 이후 불광법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법등' 이라는 신행 결사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불광운동을 시작했다.



교육 · 수행 · 문화를 통한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었던 광덕 스님.

불광회는 82년 송파구 석촌동에 불광사 법당을 준공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시기 불광회는 법등조직을 세대와 지역별로 확대하면서 신도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갔다. 늘어난 신도를 교육, 수행, 문화를 통해 사찰 운영의 주체로 내세웠던 것 역시 불광회의 성공에 큰 원동력이 됐다. 80년대 불광회는 불광유치원 개원, 불광출판부 설립, 불광교육원을 개원하는 등 질적 · 양적으로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9년 광덕 스님 열반 이후부터 불광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고, 사회적 변화를 따라 갈수 있는 불광회의 새로운 활동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광회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성수 · 우룡 · 고산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 7명을 초청 불광사 보광당에서 대법회를 열고 있다. 또 10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참선, 간경, 염불 등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대표하는 각계의 선지식을 초청 '생활속의 불교 수행' 이란 이름으로 특별강좌를 열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02)420-3200 www.bulkwang.org

▮창간 30년 맞는 월간 '불광'



1974년 11월 창간한 '월간 불광(이하 불광지)' 은 당시 불교계 매체라고는 각 종단의 기관지가 고작이던 시절, 전법과 신도교육, 교양정보를 목적으로 발행돼 불교계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서옹, 고암 스님이 창간 축사를, 경봉 스님이 휘호를 내렸을 만큼 창간 초 불교계의 기대와 성원이 컸던 불광지는 불광회의 포교이념을 전파하면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불광지는 각종 불교용어와 의식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등 대중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안목을 일깨워 주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해서 1994년 제3회 문공부 선정 우수잡지로 선정되고, 79년에는 불광출판부를 설립, 바라밀총서, 선문총서, 불광불학총서 등 200여종의 다양한 기획시리즈를 발간해 현재까지 불교 문서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약 600만부를 찍어낸 불광지는 오는 11월 지령 361호를 발행한다.

조용수 기자

불기 2548 선찰 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개산 문예대제전



2004년 10월 14일(목) ~17(일) / 범어사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 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MBC 부산문화방송
주관: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봉행위원회, 범어사 신도회 진행: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후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산독립영화협회. 세계 금강승 불무도 협회. 부산광역시 불교 신도회.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부산불교 실업인회. 부산불교 거사림회. 부산광역시불교 연합회
문의: 梵魚寺종무소 ☎ 051)508-3122~7

14(목) 모심의날	15(목) 섬김의날	16(목) 다짐의날	17(목) 깨달음의날
영 산 재 / 대웅전 앞	다비식 시연 / 범어사 제2주차장	발우공양 / 설법전	회향식 - 야단법석/ 북문산장
발우공양 / 원응료	발우공양 / 설법전	백일장 사생대회 / 범어사 경내	
길놀이 / 매표소 ~ 대웅전	경로잔치 한마당 / 박물관 앞 무대	불무도시범 / 박물관앞무대	
의상대사 개산대재 / 대웅전 앞	저녁예불 / 대웅전	저녁예불 / 대웅전	
저녁예불 / 대웅전	점 등 식 / 대웅전 앞	점 등 식 / 대웅전 앞	
개막 점등식 /대웅전 앞	산사 영화제 / 박물관 앞 무대	강미리 춤 공연/ 박물관 앞 무대	
집단신명 퍼포먼스<타오 공연> /박물관앞무대	이은미 • 웅산 콘서트 / 박물관 앞 무대	산사 영화제 / 박물관 앞 무대	
산사 영화제 / 박물관 앞 무대			

체 험 행 사 • 발우공양 • 선차시연 • 사찰음식시연 • 템플 스테이 • 달마그리기 • 등 만들기
전 시 행 사 • 이철수 판화전 • 일본 국보가 된 조선사발 재현전 • 범어사 옛사진전 • 산사에서 만난 야생화전
부 대 행 사 • 디카 콘테스트 • 페이스 페인팅

천연 자비등 밝히기 불사 접수안내

◈기 간 : 10월 9일 ~ 16일까지
◈동참금 : 1인 1등 1만원. ◈접수처 :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처 : 051)508-3122, 3636

“대중 중심 불교운동 적극 모색”

정토회, 문경수련원 체제로…100여명 거처 옮겨

내년 2월 정기총회 후 구체적 계획 발표

사부공동체로 구성돼 있는 한국불교. 그러나 현실은 일부 승가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토회가 10년 넘게 활동을 펼쳤던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 시대를 접고 문경 정토수련원을 중심으로 한 NGO 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실험한다. 일부 승가나 주요 실무자들만의 한국불교가 아닌 대중이 변화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토회는 지난 8월 열린 제4차 천일결사를 회향하는 총회에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대표 유수 스님을 포함한 주요 회원들이 문경 정토회관으로 내려가 활동하는 것을 결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토회의 모든 활동들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입안, 결정,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운동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문경 정토수련원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대표 유수 스님, 좋은벗들 노옥재, JTS 이지현 사무국장,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 부장 등 간부급 활동가와 상근 자원활동가 중 희망자를 포함해 80~100명 수준이다.

서울 정토회관은 주부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는 기존 정토회 지역법당 중 하나로 재편된다. 정토회원들의 수행을 담당했던 문경 정토수련원은 정토회의 활동 중 기획과 정책 부분을 맡는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 서울 중심의 환경, 불가촉 천민지원, 통일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들을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새롭게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정토회는 제5차 천일결사 입재식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문경수련원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 사무국장은 “주부 자원활동가만으로 서울 정토회관의 활동이 꾸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장도연 기획실장도 “대중이 사회변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내년 2월 정기총회 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한국문화체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국제포교사들이 국보 78 · 83호 반가사유상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가 해외에서 활동 중인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제5회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을 10월 1일부터 4박 5일간 개최했다.

조계종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5개 불교종단과 원불교 해외포교사 90여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낙산사, 월정사 등 강원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탐방과 전통불화그리기, 바닷길 포행, 다도 및 다식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은경 기자

보현사, 재활용품 판매금 불우이웃에 농촌살리기 · 환경운동 병행

동화사 직할 포교당인 대구 반월당 보현사(주지 원일)가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사찰 내 유기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환경 실천운동을 계획하고 나섰다.

보현사는 불우이웃을 위한 재활용품 전문매장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10월 16일 동아쇼핑 9층에서 ‘아름다운 토요일 나눔 마당’을 개최한다. 보현사가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 토요일 나눔 마당’은 시민들로부터 재활용품을 기증받아 깨끗이 손질한 뒤에 되팔아서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이벤트다.

이에 따라 보현사는 7일까지 신도들을 주축으로 각종 재활용 의류와 아동용품, 전기 전자, 잡화, 책, 음반 등의 생활용품을 수집하며, 16일에는 스님과 신도들이 모두 일일 판매원으로 나서 나눔과 순환의 의미를 직접 실천할 예정이다.

한편 보현사는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서 농촌을 살리고 식탁의 안전을 꾀하는 또 다른 형태의 환경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보현사는 그 준비과정으로 현재 사찰 생활협동조합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남원 실상사를 모델로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에 사찰 내 종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유기농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053) 431-5400

배지선 기자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금 마련 선서화전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금을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10월 4~8일 부산 국제신문 4층 제 1전시실을 시작으로 11~15일 울산 불보신문 사옥 1층, 10월 21~22일 통도사 개산대재 행사가 열리는 통도사 경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월하 스님을 비롯 단청 인간문화재 석정 스님, 비로암 원명 스님, 중광 스님, 축서암 수안 스님, 서운암 성파 스님 등의 선 · 서화 2백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올 11월 개원을 목표로 한창 내부 공사 중인 노인전문요양원에 쓰일 예정이다. (055)383-3999

천미희 기자

금오복지관, 자비의 나눔 장터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대아동그룹홈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금 마련을 위해 10월 12일 ‘학대아동지원기금마련을 위한 자비의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소속의 어르신예술봉사단, 아동풍물봉사단, 죽장사 민요패 등의 공연과 생활도자기, 전통생활 소품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 그리고 학대아동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준비되어 있다. (054) 458-0230

배지선 기자

가을 산사 문 열리니 공연 ‘활짝’



범어사 개산대재에서 선보이는 타오 공연.

불국사 · 범어사 · 봉정사 · 문화축제 붉게 물들다

덕 높은 스님들의 법문, 목탁 소리와 기도로 대변되는 산사에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전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개산대재 문예대제전을 연다(051)508-3122. 이번 행사는 개산 이래 첫 문화행사여서 의미를 더한다.

범어사 문예 대제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선망부모를 위한 다비식. 10월 15일 열리는 다비식에서는 선망부모 일체영가의 다비식을 행하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또한 천년자비 등밝히기를 비롯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진다. 14일 ‘모심의 날’에는 의상대사 개산대제, 개막 점등식, 집단 신명 퍼포먼스 ‘타오’공연, 산사 영화제(가족)가 15일 ‘섬김의 날’에는 다비식 시연, 경로잔치 한마당, 이은미 · 웅상 콘서트, 산사영화제(단편영화 절간의 만우절), 16일 ‘다짐의 날’에는 1회 사생대회, 불무도 시연, 강미리 춤 공연, 산사영화제, 17일 ‘깨달음의 날’에는 북문 산장에서 회향식 ‘야단법석’이 열린다.

이밖에도 발우공양, 선차 시연, 달마그리기, 템플스테이 등의 체험행사와 이철수 판화전, 다완 전시, 디카 콘테스트, 페이스 페인팅 등이 범어사를 찾은 대중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한편 경주 불국사는 10월 9일 범영루 앞 광장에서 신라 불교문화 영산대재를 거행한다. 이날 행사는 1부 영산재와 2부 예술공연으로 이뤄지며, 2부 예술제에서는 영산재보유자들의 불교의식과 천수바라의식 그리고 불국사합창단과 불자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054)746-9912

이 밖에도 안동 봉정사(주지 문인)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안동탈춤페스티벌 기간동안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학’. 전시기간 동안 봉정사경내에는 다양한 모양의 학등이 불을 환히 밝히며 군무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봉정사의 창건을 상징하는 봉황등을 대웅전에 걸 예정이며, 전시회 기간 동안 소품 등이 장식된 만세루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차담 시간도 마련된다. (054)853-4181

천미희 · 배지선 기자

범어사 · 서울 디지털大 제휴

범어사(주지 대성)가 서울디지털대학(www.sdu.ac.kr 총장 노재봉)과 스님 · 학생 교류협력을 체결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범어사는 스님 450여명이 서울디지털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맞춤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받고 서울디지털대학 재학생에게는 범어사 산사체험 및 불교관련 특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성 스님은 “사회복지와 상담심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스님들의 수요가 높아져 온라인 교육기관을 찾던 중 서울디지털대학과 제휴를 맺게 됐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불국사 석가탑 해체보수된다

국보 21호 불국사 석가탑이 해체보수에 들어간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0월 1일 문화재위원회가 최근 석가탑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해체보수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은사지 석탑 해체보수가 마무리되는 내년말쯤 석가탑에 대한 해체보수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석가탑의 기단이 침하되고 표면이 크게 변색되는 등 훼손속도가 빨라지자 보존방안이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석가탑에서는 지난 66년 보수공사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익순 기자

‘자리이타’ 생활화 서원

포교사단, 팔재계실천법회

하룻동안 출가자가 되어 8재계를 받고 재가보살계를 지니는 수계실천대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팔재계실천대법회’를 10월 9~10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법회는 불자수행의 기본인 재가보살계 실천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하고 건강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는 ‘포교방법론’과 ‘지계 실천’ ‘간화선의 이해와 실제’ 등에 대한 강의와 찬불가 배우기, 지계실천을 위한 참회기도, 철야정진, 참선, 수계법회(전계아사리 보성) 등으로 진행되며, 법회 참가자들에게는 사전에 8재계와 재가보살계에 대한 의미와 실천덕목 등을 확인해 보는 기도정진시간을 갖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8재계가 생활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면이 많지만, 매달 2회의 포살법회와 연1회의 실천점검 및 참회기도, 모범 실천자 포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는 포살법회 형식을 빌려, 전사회적인 정신정화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관음종 개산조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 보살수계 대법회

◆ 일 시 : 2004년 10월 8일 오후 2시 ◆ 장 소 : 장충체육관 수계 대법단

밝고 맑은 마음으로 현세의 삶을 복 짓는 일부터 합시다. 삼세의 부처님도 보살계를 통하여 성불 하셨습니다. 계는 진실한 보배 거울 같아서 그늘진 구석까지 다 비춘다 하였습니다.

국제보살계 수계 증명단 및 법회 임원명단

● 석가여래 전수 일승 계법 대법주 남천 죽산

전계 아사리	범일보성 대화상, 불심성휘, 타카하시류텐	갈마 아사리	자성만봉, 미야바이시쇼켄, 영산홍파
교수 아사리	여산철우, 후카자와쇼호, 보우법륜	득계 아사리	다니켄쇼, 인봉재윤, 법화성각
의지 아사리	후나카와호쇼, 혜명정암, 방육혜학	수경 아사리	취암영월, 덕산화암, 성욱인공
존증 아사리단	숭산지섭, 동령정웅, 대해송월	호계 설단장	영산 홍파

● 대 회 장 : 이홍파

● 부대회장 : 정법성 이월담, 김동령, 강벽제, 김경철, 김경담, 홍경수, 윤녹봉,정춘담, 양종명, 양고산, 이석봉, 오삼보 (무 순)

● 운영위원장 : 정법륜

● 운영위원 : 이효천, 황병진, 신성법, 진대명, 이도인, 이해성, 강법천, 안법해, 임법령, 배보운, 김경혜, 김경심, 김경관, 김지현, 이진성, 백무학,석보리, 허도일, 황병진, 곽진용, 김현관, 김종남, 이대철, 이운구, 박권선, 이범영, 정덕장, 이삼광, 송혜정, 임현성, 장현성, 정법련, 김묘혜, 김성혜, 김보성, 서도현, 장보련, 최지산, 김원산, 임법원, 김도암, 한혜성, 최동명, 김성관, 정도명, 오묘인, 엄해각, 김혜암, 지법정, 정도련, 석선혜, 위보련, 고상묵, 임법경, 강성오, 강백제, 유우경, 김묘법, 정연담, 송혜일, 정선혜, 김정도, 이동혜, 이송화, 김연순, 백청현, 진서경, 조우덕, 박법일, 추정호, 차예산, 양혜정, 김청암, 한진각, 양유덕, 김청덕, 김진공, 서천호, 정월인, 정월송, 지혜운, 민도원, 정능허, 김동명, 김법광, 이도경, 조법련, 장혜정, 박보각, 현관오, 김봉화, 최보현, 김선아, 김혜지, 조현호, 김법성, 전지훈, 송보선, 김법안, 전묘각, 김동운, 심관철, 이해룡, 김청종, 김도오, 이국자, 이다혜, 정창현, 맹순남, 김법인, 김묘광, 천혜능, 김묘광, 황선암, 김거룡, 최일관, 김동선, 박석순, 김현산, 최지윤, 최자성, 박혜산, 임광덕, 조혜민, 지혜봉, 김도선, 송동선, 박담혜, 박태선, 조학산, 오법륜, 이진호, 임혜운, 손해산, 한지현, 최법성, 김수련, 구동화, 장혜월, 김청담, 박광명, 김계현, 박도문, 이석송, 이성달, 정탄오, 김법정, 유청보, 유용현, 양현수, 전서광, 김지호, 신원봉, 정법지, 장지홍, 김현각, 박정원, 김정혜, 이지족, 송지덕, 엄무각, 김남천, 강성진, 조혜수, 오혜진, 정진성, 안무공, 김정화, 조해명, 서효운, 허혜수, 유법성, 노정광, 백정명, 이법룡, 정정혜,박도법, 최범선, 권청오, 김혜월, 이운천, 곽혜운, 이운룡, 김도각, 정연봉, 성혜범, 지대웅, 정법공, 이혜련, 이백강법연, 이지도, 이혜덕, 김청태, 하성원, 조해조, 하도정, 황영직, 김혜정, 제덕암, 장묘광, 홍영무, 이도성, 강도철, 조혜담, 장법능, 이선광, 강법성, 이혜광, 안영락, 송혜원, 박도산, 주혜원, 심통원, 서법운, 박천령, 박지관, 박혜봉, 박혜수, 전상원, 조도원, 이청타, 양지광, 안오명, 이지광, 양동암, 고원광, 오원호, 조덕산, 전지명, 이원영, 정홍원, 조무정, 김도연, 김법진, 김자진, 고연화, 이일호, 안혜총, 이시우, 윤도공, 최보성, 서도관, 김홍제, 신석관, 최명성, 조법웅, 구도광, 최원명, 전홍조, 김지관, 김법은, 김자신, 박혜강, 유현로, 정설보, 김종하, 오덕운, 이병철, 윤희정, 이상훈, 이광효, 구도안, 오혜신, 모명심화, 맹보현화, 장임동화, 노대법성, 이묘각심, 박법련화, 조심일순, 박무진화, 권명일심, 조백련화, 임지혜심, 배자운심, 배법련화, 문상품화 (무 순)

● 집행위원장 : 김지섭

● 총무부장 : 황법명 ● 총무간사 : 이대광 ● 봉사부장 : 최법주 간사 김법경 ● 재무부장 : 박지열 ● 재무간사 : 박지성

● 동원부장 : 법성사 간사 법성사 ● 기획부장 : 이법현 ● 기획간사 : 이도오 ● 부녀부장 : 채창원 간사 차일녀

● 섭외부장 : 조법호 ● 섭외간사 : 이도각 ● 조직부장 : 황혜광 간사 정도명 ● 경호부장 : 박홍빈 ● 경호간사 : 김갑년

● 의전부장 : 김대홍 간사 이의선 ● 법요부장 : 권종일 ● 법요간사 : 법요담당 ● 홍보부장 : 구보각 ● 홍보간사 : 최윤섭

● 합창단 : 유경숙

<동참문의 · 관음종총무원 : 02)763-0054, 3345>

대한불교 관음종 개산조 태허 대종사 100주년 기념 국제 보살수계 대법회 대회장 이홍파 합장

천불천탑 계곡서 신나는 축제를

운주사·도암면 이달말 '운주축제' 지역활성화·상생의 한마당 기대

현대화 과정에서 소원(疏遠)했던 사찰과 지역주민의 공동체문화가 불교문화축제로 복원된다.

화순 운주사와 도암면은 '2004 화순 운주문화축제'를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키로 하고 축제운영을 지역민이 직접 기획, 주관토록 했다.

이를 위해 화순군 도암면 번영회는 송승교 번영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민 40여명으로 구성된 '2004 운주문화축제 추진위'를 구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운주축제 추진위는 '잃어버린 공동체를 찾아서'란 주제아래 속세와 정토세계를 이어주는 '운주로 가는 꿈'과 운주사 법당이 없던 시절 천불천탑 앞에서 초막을 짓고 불공 올리던 '초막 짓기', 운주사를 소재로 한 시와 음악의 만남 '포엠 콘서트', 천개의 비누로 만드는 '천불조성', 천불 천탑과 어우러진 문화잔치 '산사음악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운주축제 실무를 맡고 있는 김형만 집행위원장(광주불교방송 PD)은 "운주사 천불천탑은 종교적 신앙을 넘어 민중의 삶으로 승화된 역사의 산물"이라며 "그동안 축제에서 소외된 지역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맡아 잃어버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특히 금년에 신설되는 '운주로 가는 꿈'은 이번 축제의 결정판으로 주차장에서 경내까지 인공터널 운하를 만들어 축제 참가자들이 (속세에서)배를 타고 운주사(정토세계)에 들어가는 불교적 세계를 묘사한 프로그램이다.

운주축제 추진위는 또한 공동체 복원을 위해 청년 100여명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와 지역특산물인 '목화체험', 주민노래자랑, 지역출신 작가들의 초대전 등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취지에 걸맞게 사찰과 축제 참가자, 지역민이 하나 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주축제 기간에는 ▲사찰음식시식 ▲천불닮은 표정 찾기 ▲백일장 및 사생대회 ▲운주마당극 ▲연등 만들기 등 각종 체험 및 오락프로그램이 펼쳐져 재미를 더한다.

운주사 주지 정행 스님은 "운주축제를 계기로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운주사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 또 다른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61)374-0660

이준엽 기자

음식물 zero '마음은 깨끗'

정토회, '빈그릇운동' 광주서 선포식



정토회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9월 23일 광주 우체국 앞에서 '음식 남기지 않기 10만인 서약 광주지역 선포식'을 갖고 '빈그릇운동' 동참서약과 거리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광주지역 선포식에는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법 스님,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사무처장, 광주시청 폐기물과 이교준 과장 등 지역 시민단체, 환경관계자가 동참한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으로 '빈그릇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빈그릇운동'에 참가한 주부활동가들은 '밥그릇과 빈그릇'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와 거리홍보캠페인을 펼치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서명을 받았다.

한편 정토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0일간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빈그릇운동-음식남기지 않기 10만인서명' 지역 선포식과 '10만 명 서명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영산보존회, 범음 범패교육

한국 전통불교 영산보존회(혜령 스님)는 불교전통의식인 '범음 범패교육'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율곡사 교육원에서 개최한다.

금년으로 6회째 맞는 이번 범패교육은 <작법구감>을 편찬한 원명 스님을 비롯하여 혜령, 호산, 월인 스님 등 불교의식 전수스님과 심만춘(동방불교대) 교수가 직접 강의한다.

교육기간동안에는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안채비, 겉채비(사물다루는 법, 막바라, 천수바라, 작법) 등의 의식을 직접 시연한다. (062)263-4575 이준엽 기자



제13회 행원문화상 시상

제1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주영운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4일 승가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역경상에 대림 스님(초기불전연구원장), 문학상에 방송작가 윤청광 씨, 예술상에 동국대 손재현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노병철 기자

'강원불교문화 자원화 하자' 월정사·강원도민일보 세미나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강원도민일보사는 10월 10일 오후 3시 30분 월정사에서 '강원불교문화의 문화자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광식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최웅천 국립춘천박물관장의 발제 아래 지현병 강원문화재연구소 실장, 정연우 도문화재 전문위원, 박경립 강원대 교수, 심재종 前 강원도관광협회 부회장, 한정갑 월정사 불교대학 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월정사측은 "세미나에서 강원불교문화 역사성과 특성 및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 강원불교문화 문화자원 활성화와 지역사회 가치 자원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정사는 10월 8일 오후 7시 월정사 대웅전 앞에서 '제2회 천년의 숲길 찾아가는 오대산 산사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영화제에서는 동화작가 故 정채봉 씨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초승달과 밤배'가 상영된다. (033)332-6664

남동우 기자

자비신행회, 불교 강좌 개설 지산·혜능 스님등 8회 걸쳐

광주 · 전남지역에서 불교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가 '인간 붓다의 생애'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불교 강좌를 개설했다.

자비신행회 산하 한꽃불교아카데미는 10월 5일부터 시작해 11월 23일까지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21세기 현대인, 인간붓다를 만나다'란 주제의 강좌를 연다.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도로 나누어 8회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지산(송광사), 혜능(해인사 율원장), 재연(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원경(송광사 강원 학감), 일장(유마사 주지),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현장(대원사 주지), 붓다락키다 스님이 강의를 맡는다.

또한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불교문화답사(10월 22일 봉화 청량사)와 '죽음을 준비합시다' 특별수련회(11월 20~21일 보성 대원사)를 갖는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061)234-2732 이준엽 기자

원각사, 中 관정 스님 초청법회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10월 20일 '중국 관정 대사 초청 특별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 관정 스님은 정토선 법문에 이어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정수기의식을 직접 주관한다.

중국의 생불로 추앙받고 있는 관정 스님은 세계를 돌며 정토선을 지도하고 있다. (062)223-3168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양평 용문사

"대중이 주인입니다"



지난해 음력 3월3일 열린 '은행나무축제' 모습.

양평 용문사(주지 의정)는 은행나무 사찰이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 정3품목)를 보기위해 사찰을 찾는다. 마의태자의 지팡이 설화로 잘 알려진 용문사 은행나무는 지난 천여 년 간 네 번의 큰 병화와 전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불타지 않고 국교인 불교의 혼과 기상을 대변해왔다.

일부 사람들은 용문사가 은행나무를 내세운 관광 사찰로 만족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한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용문사의 상징일 뿐이다. 용문사의 진면목은 용문사 스님들과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 용문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은행나무를 보고 감탄하고, 스님과 신도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관광객에게 친절한 안내, 최고의 포교효과 '걷고 싶은 길' 위해 진입로 시멘트 제거

용문사 스님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불교대학을 통해 신도들을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유도하며 신도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찰의 주인은 스님이 아니라 대중이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시 들리는 관광객이라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정답게 웃으며 다가가 용문사 안에 있는 은행나무와 정지국사 부도 및 비(보물 제531호), 금동관음보살좌상(지방유형문화재 제172호) 등 문화재를 상세히 설명한다. 화려한 산세 속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사찰을 보는 그대로 느끼고, 그 안에 문화재 등을 통해 용문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불교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이 결국 포교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그것이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용문사가 선택한 포교방식이다.

그러나 용문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단순한 전통사찰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3일 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하고, 올해부터는 '가장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국립공원에서 용문사로 올라오는 오솔길과 진입로의 시멘트 포장을 뜯어내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걷기명상'과 '숲길명상' 등을 운영, 관광객들이 불교의 참선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생각이다. 또한 타종교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 위해 100명 수용 가능한 요사채도 건립할 계획이다.

용문사 부주지 보인 스님은 "용문사가 가진 지리 · 역사상의 이점들을 충분히 살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31)773-3797

김은경 기자

국난극복 소원성취 일광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유주무주 선망부모 (태아령) 특별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一光 석일선 스님의 국난극복 성원성취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재에 꼭 동참을 하시어 업장소멸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비옵니다. 지난번 합동천도재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찰에서 영가천도를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금번에 합동천도재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 천도재 때에 생긴 영험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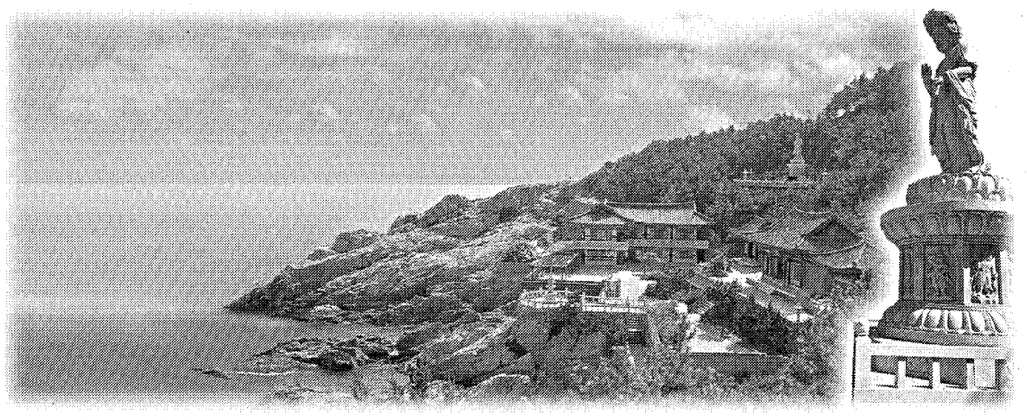
- 합동천도재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재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쌀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되(쌀을 푸는 도구)로 쌀을 한없이 퍼부어 담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재 이후로 양식장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횡설수설하던 딸이 천도재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만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에 항상 어께가 아파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천도재 이후로는 아팠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재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룰수없을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합동천도재 동참 일 시 : 2004년 10월 1일 오전 11시
합동천도재 동참 보시금 : 한가족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합동천도재는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오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독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역 → 강남터미널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 7시 30분에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성거사 전용 버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로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통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 시켜 드립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인근 대도시까지 그늘 드리우는 '거목'

경남 양산·김해

통도사·가야불교 두 지역의 '무게중심' 역할
화합으로 문화·복지 포교의 질적 성장 견인

거목이 드리우는 그늘은 크다. 큰 나무는 열매로, 혹은 그늘로 나무의 수령과 덩치에 걸맞게 그 주변을 넉넉하게 감싸 안는 법이다. 양산과 김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불교의 중심에 역사나 규모면에서 거목의 역할을 하는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양산의 경우 제 15교구 본사 통도사가 양산 전체의 불교에 한 아름의 혜택을 선사하고 있고, 김해의 경우 금관가야의 역사 속에 꽃피워온 가야불교가 김해불교의 현재를 살찌우고 있다.

양산과 김해의 또 다른 공통점은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인접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동부 경남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양산은 그동안 울산과 부산의 연계도시로 기능해오다 물금신도시의 발달로 교육, 문화 등에서 독립된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김해 역시 부산 강서구와 인접, 부산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김해불교는 김해 지역만의 특징을 살린 풍성한 축제에 가야불교의 맥을 살려내며 그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양산

양산불교에서 통도사의 역할은 통도사의 안정이 곧 양산 불교의 안정으로 통할 정도로 지대하다. 양산 불교뿐 아니라 지역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산시 전체와 더불어 호흡하며 개산 1359년을 맞았다.

통도사는 수행, 포교, 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이 돋보인다. 산내의 극락선원, 서운암 선원, 보광선원 등은 수행납자들의 정진 열기로 뜨거우며 강원에 이어 율원 개원을 위해 불사 중이다. 율원이 개원되면 선원, 강원과 더불어 인재양성의 골격을 갖추게 되는 셈.

매년 10월 열어온 개산대재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뜻을 기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 초, 중, 고등학생 사생대회, 어린이집 원생들의 재롱잔치, 합창제, 부도헌다제 등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불화 전문 박물관인 성보박물관도 불교문화의 찬란한 가치를 알리는 공간이며 운영과 성보 관리 면에서 전국 성보박물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입적한 월하 스님의 뜻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은 양로시설, 요양시설에 이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며 지역복지의 선두에 서 있다.

이 밖에도 도서관 건립, 친환경적 보행로 조성 등과 발맞춰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통도사 불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통도사의 영향력은 양산에 그치지 않는다. 유난히 말사가 많은 울산지역에서도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울산BBS 설립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통도사외엔 통도사 양산포교당, 원동 신흥사의 활동이 눈에 띄는 정도다.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경기장을 연 신흥사는 점심 대접, 떡 공양 등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경기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경기장이 지역에 단 3곳뿐인데 그중에서도 신흥사 경기장이 상태가 가장 좋고 스님도 늘 마음으로 챙겨주니 너무 고맙다"며 즐거워했다.

양산불교의 무한한 가능성이 통도사의 몫이라면 한계 또한 통도사에 기인한다. 거목이 크면 주위의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 양산불교는 독보적인 통도사의 역량 때문에 여타 사찰들의 활동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거목이 드리운 그늘과 혜택을 뛰어 넘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만 양산불교의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듯.


양산 통도사 개산대재 행사 모습. 통도사 개산대재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김해사암연합회는 매년 찬불합창제를 열면서 지역불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김해

그에 비해 김해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천태종, 법화종 등 기타 종단 사찰의 화합으로 지역불교의 고른 발전을 일궈낸 대표적 경우다.

민중불교가 살아있는 김해불교의 저력에 걸맞게 인구 42만의 중소도시에서 범 종단적인 연합 단체인 김해불교사암연합회의 사단법인화와 더불어 총 180평 규모의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이라는 큰 열매를 맺었다.

가야불교문화원은 가야불교의 설화를 역사로 탈바꿈시키는 중심 공간. 해로를 통해 인도불교가 최초로 전래됐다는 가야불교의 역사를 되살리는 가야불교사에 대한 홍보 영상물 상영을 비롯, 불교문화 관련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김해불교사암연은 김수로왕 추모제, 찬불의 밤,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을 열며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보선원, 수인사,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등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99년 김해에 터를 잡은 다보선원은 전국에서 연 1천 여 명이 이곳을 찾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중 20%는 기독교인일 정도로 종교와 상관없이 수행 자체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이 많이 찾는다. 새벽 3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의 좌선과 행선이 이어지며 청소년,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상남도 교육청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보)은 청소년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량. 청소년들을 마음공부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구상중이며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법회도 꾸준히 열고 있다.

특히 혼성합창단은 김해불교사암련이 매년 열고 있는 합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4회째 맞이한 산사음악회에 이어 올 10월 2일에는 장애인을 위한 음악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수인사(주지 성화) 어린이집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어린이 포교 원력이 크다.

설화를 역사로 바꾸는 일, 그 과제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 김해불교의 핵으로 역할을 다할 가야불교문화원 개원과 함께 가야국의 역사와 가야불교 역사 고증을 통해 '삼국유사'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국유사'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가 알차게 영글고 있다.

양산 · 김해=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대중과 호흡하는 '종가' 구현

현문 스님
양산 통도사 주지



'수행 자체가 포교'라는 현문 스님은 통도사를 수행 잘하는 도량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평소 주지실과 가까운 선방의 수행에 방해가 될까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자제한다. 특히 종무소 소임 스님들의 예불 참석과 대중공양 등을 정착시켜 종무 행정이 곧 수행임을 강조해왔다.

통도사의 무한한 가능성이 곧 불교의 미래임을 믿기에 현문 스님은 그동안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통도사를 만들기 위해 문화와 불교가 어우러진 개산대재를 열어왔고, 도서관 건립, 친환경적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초파일 때 등 달고 떼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설 정도로 사중 일에 솔선수범하는 스님은 통도사 원주, 노전, 총무 소임를 두루 거쳤고 자장암 · 표충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역 노인들에 쉼터 제공

영규 스님
양산 신흥사 주지



22년 전 신흥사로 왔을 때, 다 쓰러져 가는 2동의 당우만 덩그러니 있었다. 도로가 없던 당시, 경운기를 교통수단으로 대광전 해체 복원불사를 마쳐 마침내 1992년 보물1120호로 지정케 했다.

또한 화엄전, 요사채, 범종각 등을 건립해 도량의 면모를 일신했다. 스님의 원력으로 복원된 신흥사는 지금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경기장까지 갖추고 있다.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어렵던 도량이 대학생, 고등학생들의 수련대회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스님은 재가 불자들의 평생 수행처가 될 재가자 총림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차세대 포교에 열정

지수 스님
통도사 양산포교원 주지



재적사찰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수 스님은 신도들에게 한달에 1번 꼭 정해진 절에 가서 공부하길 권한다. 도심 포교당의 특성상 신심 있는 불자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재적 사찰의 중요성의 깨달았기 때문이다.

통도사와 범어사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포교원의 지리적 특성상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 불자들의 수행처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 스님은 연아 유치원, 양산불교청년회 등 지역의 어린이, 청년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명 지키는 수행 앞장

혜등 스님
양산 내원사 주지



기품있는 선풍 드날리는 비구니 스님들의 정진도량. 혜등 스님은 1979년 도용 스님을 입승으로 모시고 18명의 스님들이 모여 시작한 삼년결사를 내원사의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

천성산 고속철 관통 위기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한 스님은 그동안 지율스님이 벌여온 고속철 관통 반대 운동에도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왔다. 특히 내원사 정진대중들까지 부산역에서 천성산까지 삼보일배로 오르는 정진에 동참했을 정도.

혜등 스님은 천성산 고속철 관통 여부를 떠나 내원사가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일깨우는 상징적인 도량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 화합불심 주도

한파 스님
김해 진영포교당 (화장사) 주지



김해불교사암연합회의 살아있는 역사로 통하는 스님은 김해불교의 화합을 이끄는 중심에 있었다. 조계종 사암연과 군소종단 사암연이 분리돼 있을 때 김해불교사암연으로 통합을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2대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김해불교사암연의 사단법인화를 추진, 초대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가야불교문화원을 건립, 10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1983년 화장사에 온 스님은 폐사상태였던 화장사에 금단청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화엄보전을 중창했으며 앞으로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건립과 더불어 지역 청년 불자들의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가야불교 활성화에 노력

성남 스님
김해 자인사 주지
김해불교사암연 사무총장



김해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김해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김해불교의 발전에 진력하는 스님은 가야불교문화원 건립, 김해사암연 사단법인화 등에 실무를 맡아 추진해왔다.

특히 잠자고 있는 가야불교를 깨워 가락불교의 역사를 되살려내야 한다는 스님은 가락문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불교문화를 김해시민들에게 알리는 중심에 서 있다. 타 종교인들과의 교분이 두터워 초파일에는 교회 봉고차를 동원 신도들을 나르기도 한다.

포교와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스님은 복지학과에 이어 아동학과에 편입, 공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부터 가야불교문화원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화시대 '준비 끝'

분다 빠라 스님
김해 다보선원 주지



동국대 선학과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곳에서 잠시 강의를 하다, 수행에 뜻을 두고 인도 분다가야, 미안마 마하시선원에서 다시 계를 받았다.

스님은 부처님 방식대로 수행하자는 수행열풍을 일으키며 대구, 대전, 서울 등지에 선원을 열어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인도불교 지원 프로그램과 수행지도자 과정 등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법이 흥하지 않으니 사법이 흥한다"는 스님은 요일별 수행모임을 만들어 철저하게 수행 위주의 도량을 만들어 김해불교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원형을 만드는 중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교 생활화 교육에 헌신

혜진 스님
김해 은하사 주지



올 4월 1일부터 은하사 주지를 맡았다. 그러나 스님이 25년 동안 살면서 잔뼈가 굵은 곳이라 은하사 분위기에 맞은 포교를 펼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구상중이다.

새벽, 사시예불에 직접 기도 수행하는 모습으로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스님은 성보박물관 건립, 불교교양대학 설립 등을 통해 포교와 수행의 균형을 이뤄나갈 계획.

특히 불교교양대학은 입문자 과정을 지양하고 기도 수행과 실천을 겸한 불교의 생활화를 이끄는 교육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김해 지역 젊은 스님들이 중심이 돼 가야불교사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사랑의 이불' 주인공

정억순 씨
양산 미륵원 원장



'양산 이불 할매'로 통하는 정억순 보살은 양산 미륵원 원장으로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에 사랑의 이불을 전달해왔다. 정 보살의 이불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

전국의 소방서, 경찰서는 물론 전국의 선방에도 정 보살은 좌복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화랑어머니회를 이끌며 충효사상을 일깨워온 정 보살은 근래에는 경북 왜관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를 겸한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가야불교의 비밀 파사석탑

허황후가 아유타국서 가져와 높이 120㎝, 허황옥릉 안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16살의 아유타국(阿踰陀國:아요디야) 공주 허황옥은 하늘이 내린 가락국 왕을 찾아가 배필이 되라는 부모의 분부를 받들고 기원후 48년에 2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붉은 돛을 단 큰 배를 타고 2만5천리의 긴 항해 끝에 남해의 별포 나룻목에 이른다.

왕후는 올 때 파신(波神)의 노여움, 즉 풍랑을 막고 항해의 안전을 위해 배에 파사석탑(婆娑石塔 · 사진)을 싣고 왔다. 높이가 120㎝ 정도밖에 안되는 이 자그마한 석탑은 고려 중엽까지는 김해의 호계사에 보존되어 있다가 지금은 허황옥릉에 안치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치됐던 이 탑은 향토사학자인 허명철 금강병원 원장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지방문화재로 등록됐다. 허 원장은 그 돌이 우리나라에 없는 파사석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초기 인도 스투파의 축소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해지역에서는 향토사학자와 불교계를 중심으로 가야불교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지원 1년 성과와 과제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가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기와 등 건축자재 지원을 시작한것은 작년 10월27일부터다. 지난 1년간 총 12차례에 걸쳐 기와, 단청재료, 건설장비 등이 북측에 전달돼 남북불교 교류사상 사안별 교류로는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영통사 지원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남북불교 교류채널 넓혔다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 지원사업은 남북불교 교류채널을 넓히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통사 전경.

●25억원 규모 기와 · 단청재료등 18톤 트럭 160대 분 북송

지난해 10월 첫 기와 지원이 시작된 이후 천태종은 영통사 복원을 위해 기와 46만장을 비롯해 단청재료 26톤, 건설장비 등 18톤 트럭 160대 분량의 물량을 대거 투입했다. 이번 달에도 두차례에 걸쳐 북측에 건설장비를 비롯해 건축마감재를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당초 예상했던 10억원의 2.5배인 25억원에 달했고, 천태종 스님 57명을 비롯해 연인원 400여명이 북한을 다녀왔다.

영통사 복원불사는 1998년 발굴작업에 이어 2000년부터 시작됐다. 총 29개동의 전각 복원과 진입로 개설공사가 진행된 대형불사로 꼽힌다. 그동안 대북 불교교류에 소극적이던 천태종이 영통사 복원불사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천태종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사찰이라는 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류채널 조불련서 조경협으로

천태종의 영통사 복원 지원은 물량적인 교류 외에도 남북불교간 교류채널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조선불교도연맹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교류채널이 북측 대외창구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경제협력위원회로 확대됐다. 형식적으로는 영통사복원위원회가 전면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조선경제협력위가 이끌었기 때문이다.

천태종이 지난해 12월 통일부로부터 통일협력사업 및 사업자로 승인 받아 자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남북불교 교류를 활성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일시중단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천태종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북측의 신뢰를 얻어내 교류를 재개시켰다. 이로 인해 남북불교교류의 무게중심이 조계종에서 천태종으로 바뀐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원만 하고 성과 못얻나"

그러나 개성 영통사 복원이 끝나는 내년 봄 이후 천태종의 대북교류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측이 지원은 계속 받으면서도 지난 8월 계획됐던 국제학술대회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올 11월 목표로 했던 낙성시기를 진입로 공사를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천태종의 요구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천태종의 대북교류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성지순례 등 후속교류 이어져야

천태종은 '지원만 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측 불자들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나 개성지역 관광, 인근 유적지 공동발굴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교류의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단 · 단체가 개별적으로 북측과 접촉하는 현 남측 불교계의 대북교류 시스템을 협력과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는 체계로 변화시키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데 북측도 공감하는 만큼 일회성 교류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불교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한·중·일 고승초청 보살계 수계법회

관음종, 8일 장충체육관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개산조 태허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한 · 중 · 일 3국의 대덕 스님과 모든 불자들이 참여하는 화합법회로 열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측은 전계 아사리에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갈마 아사리에 만봉 스님(봉원사), 교수 아사리에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을 확정됐다. 중국에서는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성휘 스님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일본측에서는 다카하시 류덴(진언종), 미야바이시 쇼겐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도 내빈으로 참석해 수계의식을 지켜볼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한국조동종, 조동선학논총 출간

조동선의 사상과 역사, 이끌어 온 스님 등을 총망라한 책이 출간됐다.

한국조동종총본산(총무원장 학봉)은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국 대법당에서 <조동선학논총>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조동종의 법인체인 한국불교조동선림이 간행한 이 책에는 조동선맥을 연구해 온 금당 스님의 '조동종원류결(曹洞宗源流訣)'을 비롯해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조동종의 묵조선 연구', 김영두 원광대 교수의 '나말여초의 조동선', 홍수평 중국 남경대 교수의 '조동선 사상 연구' 등 8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조동종조인 동산 양개(洞山 良介) 선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조동선맥과 조동종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조동종 총무원장 학봉 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조동종은 조계종과 더불어 선종의 양대산맥"이라며 "이엄 진철(利嚴 眞澈) 선사의 원찰인 중국 운거산 진여사에서 단절되었던 선맥을 복원한 한국조동종은 조동선풍을 널리 드날리기 위해 '조동선학논총'을 간행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교구합창단 연합회 결성

진각종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 4개 교구합창단은 최근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가칭)종단 교구합창단 발전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는 한편, 초대 회장에 서울 진각합창단장 대성지 보살을 선출했다.

'종단 교구합창단 발전을 위한 모임'은 앞으로 교구합창단간 정보 교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기획, 서원가(찬불가) 보급, 연합합창제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인사서 연수교육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 17~20일 양산 대인사에서 불기 2548년 종도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조용길 동국대 교수의 특강을 비롯해 구족계 수계산림, 종무행정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미륵종은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김해 관음정사에서 행자교육 및 수계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로위안 문화예술제

태고종 대구 청룡사(주지 보성)는 10월 7일 오후 2시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 · 경북지역 어르신 25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로위안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사라져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문화예술제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보존회 소속 어산스님들의 영산재 시연을 비롯해 삼보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청정무용단의 부채춤 공연, 영남민속보존회의 회심곡 등 민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053)656-5266

본원종 창종 15주년 기념법회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스님 등 종단 관계자들이 9월23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열린 창종 15주년 기념법회에서 케익을 자르고 있다.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9월 23일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창종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원로 · 중진 스님과 총무원 집행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본원종은 창종 이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종단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며 "우리 사회와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은 투철한 애종심과 확고한 종단관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본원종 총신도회 신장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원종이 불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승가와 종단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각종 19~20일 스승강공 총지종 18~21일

진각종과 총지종의 가을 스승강공 일정이 확정됐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0월 19~20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추기스승강공을 봉행한다.

이번 스승강공은 '사지사력 활동으로 생활 중에 각(覺)할지라'를 주제로 예참, 주제강론, 교법강론 등으로 1박 2일간 진행된다. 특히 창종 초기에 활동한 1세대 스승들의 교화경험과 수행, 신행활동 등을 듣는 설법시간이 마련됐다. 강공 기간 중에는 전법관정불사를 비롯해 △기로진원식 △종정보고 △선대열반스승추념불사 △제339회 정기중앙종의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10월 18~21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63회 추계강공을 실시한다.

효강 종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강공 기간중에는 최고의결기구인 원의회와 사회복지재단 · 유지재단 이사회, 제90회 정기중앙종의회, 승단총회 등이 개최돼 불상 봉안에 대한 토론을 비롯해 교화활성화, 사회복지사업 확대, 도제양성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허정희 포교사(왼쪽)가 하나원 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허 포교사는 '하나원' 밖에서도 신행활동을 이어가는 불자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외로운 마음' 불심으로 채워 줘야죠

'하나원' 탈북 동포 전법 현장을 찾아서

탈북여성 180여명 남한 적응 위해 기거
"불법 좋은 건 알지만…종교 개념 없어"
난해한 경전 · 나이든 포교사 등 '답답'
'믿음' 이어가도록 불교계가 도와야

"아, 아. 원생여러분, 2시부터 3층 법당에서 법회를 시작합니다. 부처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원생들은 지금 빨리 법당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9월 19일 일요일 오후 조계종 포교사단 허정희(63) 통일 3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하나원' 복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허 포교사는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경기도 성남의 '하나원' 분원을 찾는다. 안성에 본원을 둔 '하나원'은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자들이 2개월간 생활하는 정규 교육기관이다. 늘어난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 10월부터 성남 분원 운영을 시작했다. 분원에는 현재 20세에서 45세까지의 독신여성 180여 명이 기거하면서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 언어, 컴퓨터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방송이 나간 후 '자립관' 13평 남짓한 공간, 탱화가 모셔져 있는 법당으로 서른 명 남짓한 원생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점심 식사 뒤 졸음이 밀려오는 시간이라 그런지 몇몇은 눈을 비비면서 들어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일곱 번 정도 법당에 꾸준히 나온 진희(가명 · 38)씨가 허 포교사가 가져온 떡이며 과일을 깨끗한 접시에 옮겨 담고 불전에 놓는 모습에서 제법 불자 태가 났다.

"천수경 독경합니다. 저기 교재 갖다 보세요. 몇 쪽이지요?"

허 팀장과 함께 '하나원'을 찾은 포교사단 염불포교 6팀장 이선전(65) 포교사의 목탁 소리에 맞춰 독경이 시작됐다. 서른 명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경소리가 구절마다 딱딱 맞아떨어진다. 계속해서 원생들이 직접 작성한 발원문 낭독, 반야심경 봉독 소리가 낭랑하게 이어졌다.

독경 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원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절집 말'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부처님은 '신'하고 무에가 다릅네까?"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皆有佛性)'이 뭔 뜻이어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잘 해야 원생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종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쉽게 불법을 전하려면 그들의 궁금증을 자연스레 풀어줘야 한다. '하나원' 분원이 생기자마자 탈북자들의 포교활동에 뛰어들었다는 허정희 포교사에게는 지금도 이것이 가장 큰 '화두'다.

"애 많이 먹었지요. 이 사람들이 워낙 '종교'란 것이 없는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데만도 한참 걸려요. 그래도 부처님 말씀 좋은 건 다 알아요."

사실 처음 포교 활동을 시작한 2002년에는 법당을 찾는 이가 3~4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허 포교사가 방마다 문을 두드려 모은 불자 수는 이제 35명을 넘어섰다.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하나원에서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다 사회로 나간 영희(가명 · 36)씨는 불교대학을 다니며 포교사 고시를 준비할 정도로 신심 깊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한달에 한번 꼴로 하나원을 방문, 원생들에게 불법을 전하려고 애쓴다.

허 포교사에게는 영희씨처럼 하나원 밖에서도 신행활동을 이어가는 불자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허 포교사가 법회를 집전하는 동안 개신교 신자 명희(가명 · 26)씨는 2층 복도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명희씨의 말에 따르면, '하나원'에는 불교 외에도 개신교와 천주교 단체들이 출입한다. 이 중 개신교 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약 7~8명 정도의 개신교 전도사와 목사들이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수시로 '하나원'을 방문, 일주일에 3회 이상 원생들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원생의 절반 이상인 70여 명이 고정적으로 교회에 나간다. 안성 본원의 경우에는 상주하고 있는 목사까지 있어 아침저녁으로 기도회가 열린다.

"중국에서부터 남한 선교사들이 마음의 의지가 돼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때 남한 사람이 절을 세웠다는 소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을마다 있거든요. 노래도 배우고 사진도 찍으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다보면 발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요."

아직 종교가 없다는 선영(가명 · 26)씨는 하나원의 시설에는 불만이 없지만 면회가 일체 금지 돼 있어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했다.

"아무래도 자주 오는 사람들이 좋죠. 불교 쪽에서도 사람이 온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너무 나이 많은 분들만 오시더군요. 여기 사람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또래를 만나서 옷 얘기, 화장품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하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또 다른 원생 정화(가명 · 25)씨는 처음 하나원에 들어와서 찾은 곳이 법당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글(경전)을 읽으라데요. 재미도 없고 중얼중얼, 이상해요."

일부 원생들의 불교에 대한 바람과 실망에 대해 허정희 포교사는 "솔직히 나이든 포교사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래를 해 볼까, 차트 식으로 된 교재를 만들까, 온갖 궁리를 다 했지만 법회 집전하기도 힘에 부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포교 인력 부족 문제도 있지만 이선전 포교사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타종교는 성직자들이 이곳에 직접 나옵니다. 목사, 신부들이 포교 현장에 있는 거죠. 스님들이요? 여기 '절대로' 안 나오십니다. 포교사들이 전법하는 것과 스님이 법문하는 게 수준이 같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나와 주셔야 합니다."

포교사들의 하루가 끝나는 길, 어스름이 깔려 오는 시간. 법당을 찾았던 원생 네 명이 이른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왔다. 그들은 포교사들에게 반배 합장을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또 오셔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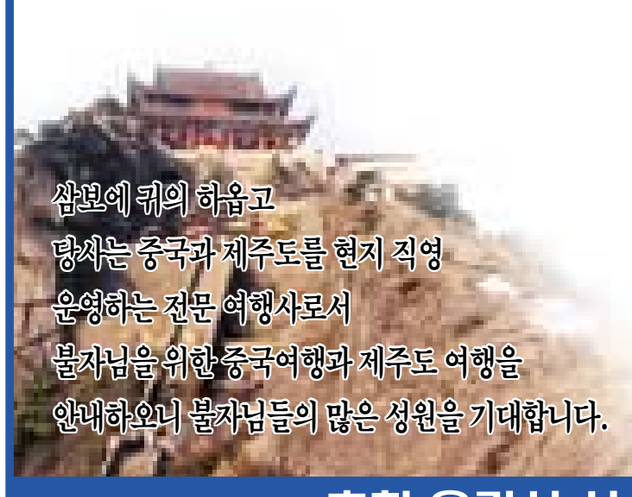
더러는 실망해서 발길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교를 '믿어보려고' 하는 하나원 원생들은 '불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포교도 포교지만,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허정희 포교사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하나원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선전(가운데) · 허정희 포교사.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0월 20일 출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650,000원 (중국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불포함) 10월 10일 마감

일 자	주 요 일 정
20일	09:35 항공편으로 인천출발 / 북경도착 북경 최대 사찰 담저사 순례 야간 열차로 낙양으로 이동
21일	소림사, 탑림,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22일	항공편으로 북경 이동 천안문, 자금성 및 왕부정 거리 관광
23일	만리장성 관광, 옹화궁(라마교사원), 와불사
24일	천진으로 이동 진천페리 승선 / 출발
25일	인천 도착 해산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대한민국경찰불교회가 전·의경 포교를 위해 계급·나이를 초월해 '합장인사하기' 운동을 벌이는 모습.

일터불심, 어린이·청소년·군경 포교에 앞장

눈높이 맞추면 모두 법우
신행과 포교 둘 아니다

"계층 포교로 결속력 강화·신심배가… 보람도 커요"

일터불심의 포교 열정이 뜨겁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군·경, 교도소 등의 '계층포교'에 쏟아 붓는 신심이 대단하다. 바쁜 직장생활에도 꿋꿋이 신행활동을 하는 직장불자들이 계층포교에 들이는 공은 보살정신에 닿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층포교의 나선 일터불자회. 어떻게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씨를 뿌려야 불교가 '쑥쑥'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 이하 산악인연합회)는 오는 10월 30일 특별한 등반대회를 갖는다. 유치원, 초·중고생, 대학생 2백여 명을 초청, 서울 아차산을 오르는 '제1회 청소년 초청 환경 등반 대회'가 바로 그것. 산 정상에서 목탁 소리를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싶어서 마련한 행사다.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했다. 야생화초 공부를 비롯해 환경보호활동, 여기에 사찰체험에 이르기까지. '놀면서 불교를 즐기는' 등반 일정을 잡았다.

산악인연합회가 이런 대회를 왜 기획했을까? 차세대 불교 주역을 키우고, 한국불교를 젊게 만들기 위해서다. '어린이-중고생-대학생-청년'으로 순환되는 인적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도 한 이유다.

"직능단체의 특성을 살린 청소년 포교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청소년 초청 등반대회였어요. 청소년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사찰문화를 스스럼없이 알아간다면, 불교도 물이 몸에 스며들 듯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갈 거라 확신해요."

산악인연합회 김대원 사무총장이 이번 대회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89년 창립한 포항교사불자회(회장 박기백)도 청소년 포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기로 유명하다. 2003년 11월, 불자교사 80여 명이 모여 포항 죽림사에서 청소년문화재교실을 열었다. 월 1회 문화재 및 불교이론 강좌, 현장 답사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불교와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키워줬다. 고민과 진로상담 활동도 빠지지 않고 했다. 문화재교실을 친근한 쉼터로 만들어주기 위해 불자회 홈페이지(user.chollian.net/~lds900/pbt)에 사이버 청소년 신행상담, 불교공부방도 개설했다.

포항교사불자회가 이렇게 청소년 포교에 나선 이유는 간단했다. '불자교사의 불심은 청소년의 신심과 비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늘 수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회원들이 일일이 회비를 거둬 청소년들과 매월 불교유적지 답사를 떠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매번 답사를 떠날 때마다 행사 경비 충당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죠. 중간에 그만 둘까 회원들의 고민은 날로 커가기만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처럼, 청소년 포교는 불자교사가 당연히 해야 일이었기 때문이죠."

불자회장 박기백 교사(54·묘원)는 불자교사에게 있어 청소년 포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군인·경찰과 인연만들기

지난 90년 창립한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활선). 그간 40여 회원들은 군 포교 현장에서 신심을 불태웠다. 군부대 방문을 위해 자기 공연 일정도 바꿔가며 고집스레 불자 군 장병들을 찾아 갔다. 그러다보니 현재까지 위문 공연만 7백여 회가 넘는다. 오로지 청년 불자의 불심을 북돋우기 위한 노력뿐이었다.

어려움도 있었다. 행사 경비 마련에 애를 먹었다. 불자회원들이 내놓는 '주머니 돈'을 언제나 부족했다. 지역 사찰과 불교단체의 도움을 받았지만, 힘은 들었다. 그래도 군 포교 열정은 이어갔다. 2002년부터 매주 일요일을 아예 '군법당 찾아가는 날'로 정했다. 지난 1990년 창립이후, 육군 1사단과 3사단 신병교육대, 1군단 포병대, 군 법당 등을 방문, '노래하는 음성포교사'로서의 역량을 아낌없이 뿜어냈다.

"불자 군장병들은 한국불교를 책임질 청년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이었던가요? 어떤 직장인이 인사를 하더군요. '군대 시절, 법당에서 들었던 불자가수회의 찬불가가 지금까지도 머리에 생생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하더라고요. 지금은 일터에 불자회를 만들려고 회원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국방연구원·국방품질관리소 홍릉법우회(회장 이종인)의 군 포교 원력도 대단하다. 국방연구와 군수물자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 업무인 이들 불자회원들의 포교활동은 고스란히 군 포교 활성화로 이어진다. 83년 창립한 이후, 줄곧 군내 사찰을 중심으로 불자 군장병과 법음을 나눠왔다. 1년에 봄·가을로 나눠 전국의 군 법당을 찾아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런 군 법당과 지속적인 만남은 불자 군장병들의 신행고민을 해결해주는 기회가 됐다.

이외 서울 구로구청 불자회(회장 조정호)도 5년 전부터 인천 19사단의 불자 군장병을 찾고 있다. 또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는 2002년 포교사 자격을 갖춘 회원을 당연직 상임포교사로 위촉, 전·의경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장보살 원력으로 '교화'를 실천한다

교도소 포교의 '베테랑'은 단연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오희창). 연합회원들은 업무 그 자체가 '교화'라고 말한다. 전국 48개 교정기관 중 43곳의 불자회가 경비교도대, 재소자 상담 등에 활발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동교도소 불심회의 경우, 불우한 재소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구구절절 딱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재소자들이 사연을 풀어놓을 때마다 굵은 눈물을 흘리지요. 참회는 간절해요. 죄는 지었지만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불자 교도관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안양교도소 불심회 김성배 회장은 불자 재소자 상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든 교정인연합회 전법팀(유영군·군산교도소 보안계장)은 포교사 자격을 백분 살려, 재소자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포항교사불자회가 청소년 포교열정을 담은 '청소년 문화교실'. 사진은 포항지역 청소년들이 2003년 11월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 답사에서 박기백 불자회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우리불자회는요

삼호중공업 불자회

한국경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친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불자회원들은 굵은 땀방울을 근무현장에서 흘렸습니다. 대형 선박과 철구조물 생산 활동은 산업일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불자회는 전남 영암군 삼호면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불자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입사한 90여 명의 일터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터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불경을'이란 신행모토를 내걸고 밤낮으로 일과 수행의 두 바퀴를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창립은 2001년 4월 사택 단지 내 축성암에서 했습니다. 대둔사 주지 몽산 스님을 비롯해 말사 스님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성황리에 창립법회를 봉행했었지요. 이후 우리 불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씩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었습니다. 또 불자회원들의 애경사를 포함해 서로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장 내에서도 업무적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원만한 직장생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행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즐거운 도반'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특히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인근 군부대 불자회와 갖는 행사들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해군지역방위사령부 불자회와 3년째 친선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군법당 불자장병들과 법회도 함께 봉행하고, 위문품을 전하면서 법우애를 뜨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해 2월에는 대둔사 대웅전에서 '제1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보선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합동수계식도 갖고, 참불자로 살기 위해 서원을 했었지요. 이 때 우리 불자회원들을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불자로 살고, 항상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부처님 정신으로 직장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진은 삼호중공업 불자회원들이 올 9월 22일 전남 축성암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

안보면 보고싶고 볼수록 즐거운 도반들
가정·회사·지역에서 '중공업 불심' 과시

우리불자회는 앞으로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무리 불법을 잘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보살행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1법회 1자녀 데려오기'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아빠, 엄마만 믿는 불교는 '앉은뱅이' 신행에 불과하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법회를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애'도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겠어요. 또 아이들끼리 볼 수 있는 어린이법회도 마련해 우리 자녀들부터 선재동자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정동욱 회장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별특강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
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우리절개산대제
오는10월7일 목요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태화산에서 우리절이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10시부터 법회를 봉행하오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가족 여러분, 부디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일원동봉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염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 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제 2기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관상, 수상
▶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장충체육관 방향 경동교회 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월간역학 교육원
(02-2264-0258)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소백산 송이,능이판매
054)634-3334
농협 : 한희욱
751081-51-060579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 2동
심우사 한산 합장

상황버섯 100% 자연산
적은 물량이므로
한정판매합니다
054)753-3640
011-9320-3640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지리산
50대이상
50대이하는 전화사절
011-483-5639

지리산자연송이 판매합니다
055)883-2106
016-777-7656

행자모심
40세미만의 비구니
행자를 모십니다
문의 : 총무스님
041)832-1188
010-6757-5532

행자모심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02)917-3363

모 집
- 기도스님 1명
- 처사 1명
- 공양주 1명
- 법당 화주보살 1명

▷각 30~50세까지
054)383-8032
011-9176-4403

공양주 모십니다
▷40 ~ 50세
신심이 깊고 건강한분
목포 달성사
061)244-1489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43세 비구
017-515-7527

포교에 관심있는 주지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대처스님
(법납 10년이상 50세미만)
서남해 섬사찰
011-663-4893

기도스님 모심
조계종 도심포교원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505-200-2233

저는 조계종의 혜담스님 입니다.
23년간 수행하였습니다. 기도 중 신병을 얻어 병원에 반년 간 있었으며, 거의 2년간 고생하다가 우연히 경기도 안성의 도성사 도성큰스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완쾌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널리 알려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성큰스님은 이런 신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016-562-3533

기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9342-98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산중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부전도 가능합니다)
010-9415-2961

행자 부전스님 모십니다
▷30~50대
천운사
031)764-3399
016-294-0261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40~50대
출퇴근. 숙식가능
도현사
02)529-1390

부전스님, 신심 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011-576-2737

명 진 우 비
명진 우비는 오랜 전통과 기술로 맞춤식 일회용 우비 전문업체로 불자님들과 함께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구의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로 인해 천재 지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행사시 미리 준비를 하시어 산성비를 맞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저렴한 가격과 국내산으로 공급해 드리니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 대표 : 황규철 - 전화 : 041)934-1985
- 팩스 : 041)934-4974 - 홈페이지 : www.myungjin.wo.to

기도스님 모십니다
054)834-69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까지
서울 강남 소재 사찰
02)577-0007
02)578-55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천
011-781-3513

기도스님(비구) 모십니다
▷산중사찰
010-3383-4111



담양 대나무 참숯양말
◆숯의효능 : 간질, 현기증, 빈혈, 탄저병, 및 피부세포의 활성화 작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만성습진, 무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남성용 · 여성용 전통염색 ●
선물용 세트 · 사찰 및 단체주문 환영
전화 : 031)864-7361 휴대폰 : 011-705-7382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비구니 부전스님
서울 마포에 있는 도심포교당입니다.
미얀마 비구니 스님들도 함께 수행하며 포교하는 기도 도량입니다. 위빠사나 명상 수행도 같이 하시며 서로 의지하며 평생 도반이 되어 오래오래 계실 기도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문의 : 02)338-2158 / 011-229-6061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011-9571-6479

출가학교 및 행자모집
▶출가학교 2기:
남자 - 9월30일 ~ 10월20일(3주간)
16세 ~ 41세, 삭발, 교육비 :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목조건축물
(보수. 복원. 보존)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기와방수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복원 시스템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 전용(부식)방부제
- 기타 공사
- 목재 방염 공사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0. 4. 월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금요일 (수시접수)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觀相 **人間을 위한 학문**
★관상대로 살아간다★
이 세상에 똑같은 얼굴은 없다
관상학계의 대표적인 인물 : 신기원 선생
◆ 50년 역학의 가시밭길을 걸어오다 ◆

개강일	10월 9일(토) 오후 7시 ~ 10시 [매주 1회]
命理	[제 5기] 수강생 모집 [5개월완성]
	★학문의 체계없이 秘法은 없다★
	강의 유방현 원장 직강
참가대상	결혼상담사 부동산 중개인 일반 퇴직자 심리적성상담
특 전	회원증 및 수료증 교부. 학술 세미나 참석 자격 부여

수료후 합격자 일반상담자 및 전화상담요원으로 취업보장 창업시 적극 지원

개강일	토요반 : 10월 9일 오후 2시 ~ 6시(매주 1회) 평일반 : 10월 13일 : 수, 금 오전 10:30 ~ 12:30(매주2회)
주 관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 02)929-4646, 4643

홈페이지 : KTSA.CO.KR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 출구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 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3개월 완성반(주, 2회)
    Ⓐ 월 · 화반 Ⓑ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무료특강 10월 5일(화) 저녁 6시 30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 임법당: 60평
- 부지: 800평
- 가액: 3억5천

- 위치: 경북
- 임법당: 24평
- 부지: 100평(종중)
- 가액: 6,000만원
- ※ 문화재금 석불 有

- 위치: 경북
- 법당 및 지장전 : 100평
- 요사 : 100평
- 부지: 2,700평
- 가액: 7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층 40평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모두 갖춰져 있음. 집기일체포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스님급한사정으로 '급' 양도코저 함
010-4422-5575
041)832-5575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토굴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 임야 전답 3500평
- 가액 : 6천만원

010-9763-1271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
- 부지: 1000평
- 법당: 15평
- 요사: 25평
- 가액: 7억

- 위치: 삼각산
- 국유지 임대
- 법당: 9평
- 건물: 15평
- 가액: 2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 시내
- 평수 : 30평
- 법당, 방2개, 상담실, 화장실
- 시설 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

02)816-2764
016-535-2754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서부정류장 근방
- 평수 : 98평
- 법당,방2개,종무소,주방1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절충가능
  시설비 : 3천 5백만원

053)625-7104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시장내
- 총 45평(3층 건물중 2층)
- 호불 500불(지장보살)인등 500, 연등 1000개, 원목 달집(단청필)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법당최고시설)
- 포교당운영하실 조계종스님 모십니다

016-444-575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에서 5분거리
- 대지 : 250평, 전 : 250평
  임야 : 6,000평, 법당 : 80평
  삼존불 , 방 8개 요사채 30평
  (한옥전통기와) 황토방(온돌)1
- 가액 : 1억 7천만원(전, 월세 가능)

033)661-1375
011-202-8288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해인사 가야산
- 부지: 170평
- 건물: 1층 30평, 2층 30평
- 가액: 1억 3천(대출가능)
- 기도정진 토굴임, 천년된 3층사지 석탑 바로옆

- 위치: 서울대 지하철역 200m
- 법당 30평, 요사방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총평수 : 40평, 방2개, 주방, 샤워실, 법당
- 가액 : 2천 2백만원 월세 23만원(보증금포함)

※ 스님이 급히 해외교육차 출국관계로 양도하고자 함
011-9850-2946
053)653-0287

사찰안내
- 위치: 전주시내,중심지역대지상가주택
- 1층상가 6개, 2층사찰 대지 110평 건평120평 자신있게 갖춘 도량임
- 가액 총 4억8천 준비금 2억 8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이전 상가에서 매월 일백만원나옴. 융자 80%가능
- 대지는 8×6미터, 코너절
-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법사님도량

010-3166-8483

불자전원주택
- 위치 : 경기도 양주 소재, 산중 사찰 내 신축건물
- 건평 32평 방4개 거실, 욕실 불심 깊은 노부부, 예술인 환영 (입주자 식사 및 편익 제공)
- 전세 입주금 6천만원

031)867-1801
016-703-6648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전원주택(토굴)>
- 위치: 의령 용덕
- 대지: 1300평
- 건물 : 58평
- 가액: 1억8천
  의령에서 10분거리

<절터>
- 위치: 웅촌 대대리
- 대지: 1,100평
- 가액: 2억5천
- 부산 ↔ 울산 중간지점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소래 포구 어시장 상업지구 3층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방, 주방, 화장실,주차장,베란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3천만원(절충가능)

011-438-7569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토굴,암자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소재
- 하늘과 마주보는 산밑 1257평
- 농가 흙집 리모델링 방5개(구들방1개, 벽난로)
- 도량-아늑한 세월의 숨결이 묻힌 나무조각불상다수 미니 돌도랑 그위에 미니정자 오롯한 수행의 길을 찾는분
- 가액: 2억(입법당, 집기, 비품 소품일체 양도)

033)342-7931

토굴암자안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30분거리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2억(절충가능)

041)753-813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남해 바닷가(한려수도)
- 평수 : 약 1,000평(대지 516평, 밭 400평) (법당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요사채20평, 기타 : 화장실, 창고)
- 특징 : 인근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있음
- 가액 : 3억 (한려수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함)

011-627-0290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 법당: 50평(3층건물 중 3층) 큰방 3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시설 A급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소재
- 부지: 약 100평
- 법당: 20평
- 요사: 2동 30평
- 가액: 3천 8백만원
- 특징: 조용한 시골마을로 기도정진하기에 좋음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물좋고 산세수려)
- 평수: 650평 (종교부지)
- 심야보일러, 임법당 25평, 방 5개, 주차장 창고 등
- 가액: 1억 4천 8백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8419-8004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댁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사찰 안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부근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건물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8평, 11평
- 모든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1억3천만원

043)733-8186
011-9405-818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8천만원(답사 후 절충可)

019-503-7959
055)942-9156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진주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임법당안내
- 위치 : 전북 진안
- 임법당, 삼존불, 심야보일러
- 가액: 600만원

011-664-8155

사찰전세
- 위치: 울진
- 스님 불사관계로 (급) 싸게
- 즉시법회가능

054)782-5859

암자안내
- 위치 : 경기도
- 평수 : 3,000평
- 산세수려하고 물좋고 공기좋은 조용한 암자
- 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2천 5백만원

031)582-06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부평동 4층 건물 중 4층 (자갈치국제시장 부평시장 중간위치)
- 평수 : 65평
- 전세 4000만원에 65만원 2000만원에 95만원
- 권리비, 시설비 없음 ※ 법회가능

051)727-1903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도심사찰안내
- 위치 : 대구근교
- 평수 : 대지 170평
- 전통한옥, 건물 2동(올 수리)
- 넓은 정원과 주차장 상가아파트단지가 어울어진 곳 낙동강이 흐르는 정남향 교통 사통팔달
- 가액 : 1억 9천만원(전세가능)

011-245-54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남구 신사역 전철역 1분거리
- 실평수 : 25평 (방3, 창고, 차고 有)
- 시설특, 살림가능
- 2000만원 월 90만원 철학관 최적지

017-514-0384
02)543-5060

포교당안내
- 위치 : 용인시 포곡면 면소재지
- 3층건물중 3층 20평
- 법당, 방, 주방, 상담실 넓은 옥상
-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11-9369-8890
031)323-2890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1억(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4층건물에 3층
- 법당 30평 시설일체 완비 삼존불 80평(공양실, 친견실, 작은방 2, 샤워실,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80만원 시설비는 꼭 하실분 답사 후 결정

011-424-8668
011-9758-6191

사찰안내
- 위치: 동해안 산세 수려한 명산자락임
- 부지: 1300평중, 법당자리는 종교부지임
-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주심포 건물
- 요사채: 목조건물, 현대식 스라브 건물 1동
- 종단연수원, 납골당, 기도원으로 적합함
- 가액: 답사 후 마음에 드시면 절충하기 바람

011-376-164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돈암동 시내 사찰
- 법당1동, 요사2동
- 전세: 없음, 월20만원, 시설비 2500만원8
- 지하수 있고, 기타시설 완벽
- 비구니 스님께 최적합

055)646-2766
016-377-639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시장 2분거리 버스정류장 근접
- 평수 : 45~50평
- 삼존불,신중탱화,산신,용궁, 큰방2개,베란다,욕실,집기일체
- 전세 : 5천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또는 3천만원 월 30만원

010-8422-7772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미암면
- 대지 약1만평, 건평 70평
- 법당, 방5개, 주방,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 주위 과수 50주(밤나무)
- 가액: 시설비 5천만원

061)473-1573
011-679-1595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대흥동 보문산 입구
- 평수 : 25평 ● 시설 : 2층에 위치, 법당(삼존불),탱화,거실,부엌, 살림 일체 있음. 즉시 양도입주가능함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절충가능함

042)527-3800
017-403-38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평수: 3층건물 80평
- 15년된 포교원
-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내부법당 30평, 큰방 4개, 거실1, 주방, 욕실, 창고, 화장실
- 공원과 시장이 옆에 자리잡음

010-4718-4123

사 찰 안 내
- 위치 : 철원 동송 시내
- 부지 : 819평, 한옥법당 10평
- 설법 강좌실 21평
- 요사채 15평
- 사찰관리실 7평, 약수터
- 가액 : 3억 ● 임야 25,000평. 평당 2만원
- 진입로 8m접 계곡물 접

011-9243-099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 건물 3층 전관 53평(엘리베이터 有) 순 한옥식으로 잘 꾸며져 있고 바닥은 전체 게르마늄과 맥반석으로 된 온돌방이며 법당은 18평, 방5칸, 욕실 큼, 주방2
  보증금 4천만원에 월50만원 (삼존불 삼존탱화 연설대 시설물 냉장고 에어콘 정수기 일체 시설비 포함 3천 5백만원) 합 7천 5백만원.
- 기타 : 버스정류소 바로 옆 지하철 2분

010-9469-22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인근섬)
- 대지 : 120평, 밭 200평
- 법당 : 30평(삼존불 모셔져 있음)
- 건물 : 요사채 18평(방4개)
- 도량내 관음보살 불상 모셔져 있음
- 특징 : 불심이 돈독한 섬마을 지역임
- 가액 : 1억 7천만원(답사 후 조정가)

011-9576-1648
054)832-164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011-713-5634

사찰겸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부천 부천역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 2층 30평 법당 1개 방2개 거실 욕실
- 대웅전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조각 완벽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5십5만원 시설비 1천 4백만원 포교요충지
- 스님개인사정상 급매.비구니스님, 비구스님,법사님.보살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주차는 80%. 주인직거래

032)667-848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 (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토굴 포교당 필요하신 스님
- 시설비 : 300만원
- 위치 : 경남 마산시 인근

016-868-5517

불자 실버하우스
사찰 경내 신축건물
1人 1실 침식 제공
입주 3,000만원
- 부부 · 형제 자매 환영 -
문의처 : 031)867-1801~2
016)703-6648

학계 '가을걷이' 분주

'간다라불교미술…' 세계 석학 참가
학회마다 발표회 준비 · 주제도 다양

하늘은 높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 가을. 10월과 11월에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학술발표회들은 불교학계에도 가을이 찾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먼저 눈에 띄는 발표회는 국제대회로 치러지는 '간다라불교미술 국제학술대회'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와 한국미술사연구회 공동주최로 10월 16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문명대 동국대 교수, 이영애 경주대 교수를 비롯해 외국에서 미야지 아키라(일본 나고야대) 교수, 존 헌팅턴(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피에르 캄봉(프랑스 기메박물관) 씨 등 간다라 불교미술의 권위자들이 참가한다.

문명대 교수는 카니시카탑 사리용기 윗면에 부착된 삼존불상을 통해 불상기원문제를 다룬다. 미야지 아키라 교수는 간다라 초기 불상에 인도고대초기미술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밝히고, 최초 불타상으로 추정되는 '범천권청' 부조상의 도상 · 교리적 의미를 해석한다.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속 피에르 캄봉 씨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간다라 불상을 비교 · 연구해 발표한다. 기메박물관은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 내 유적 · 유물 파괴로 인해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유물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이다.

▮올가을 불교학술대회 일정

날 짜	학 회	대회명 (주제)	장 소
10.9	불교학연구회	10월 월례발표회	청호불교문화원
10.9	한국고대사학회	제80회 한국고대사학회정기발표회	서울시립대
10.16~1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간다라 불교미술 국제학술대회(간다라불교조각의 연구 과제와 그 교류관계)	고려대 국제관
10.23	한국미술사학회	제9회 전국미술사학대회(조선전기 미술의 대외교섭)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10.26	한국선학회	2004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고려 중후기 선 사상의 전개)	동국대 문화관
10.30	한국불교학회	제41회 추계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11.4~8	한국국악학회	제2회 한중 불교음악 학술회의	세종문화회관 외
11.5~6	불교미술사학회	제4회추계학술대회	통도사성보박물관
11.5~6	한국고고학회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통일신라시대 고고학)	대전 중앙과학관
11.6	한국종교학회	2004년도추계학술대회(세계 종교학의 지평과 동아시아 종교학의 역할)	서강대
11.13	불교학연구회	2004년불교학연구회추계학술발표대회(화엄과 선)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11.13	한국고대사학회	제81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미정)
11.27	보조사상연구원	2004정기학술대회	법련사

26일에는 한국선학회(회장 현각)가 '고려 중후기 선사상의 전개'를 주제로 동국대 문화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갖는다. 법산 스님(동국대)이 '태고보우 스님의 선교관',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나옹혜근의 선사상', 김호귀 씨(불교문화연구원)가 '일연 스님의 조동오위관'을 논하고, 김개천 국민대 교수는 고려 후기 사찰을 중심으로 '선의 건축조형 개념'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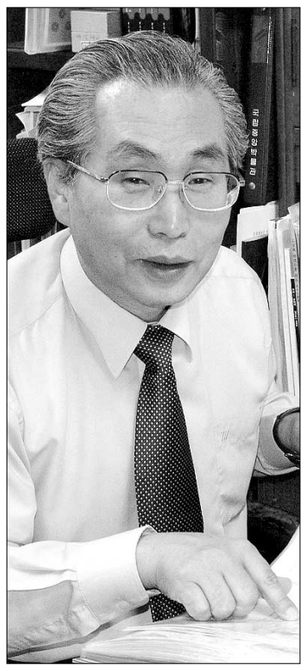
30일에는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가 동국대에서 '제41회 추계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를 주최한다.

최근 연구위원 57명을 위촉하며 조직을 새로이 정비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27일 서울 법련사에서 '간화선 수용 및 한국 간화선의 정체성'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갖는다.

이 대회에서는 인경 스님(선상담 연구원)의 '돈오점수와 간화선 사상', 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의 '수선사의 선풍과 간화선 사상', 김방룡 씨의 '여말 선초 간화선 사상' 등이 발표된다.

그밖에 11월 5 · 6일에는 한국고고학회가 '통일신라시대 고고학'을 주제로 대전 중앙과학관에서 '제2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를 열고, 11월 16일에 열리는 한국종교학회(회장 김종서)의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종교교육분과의 김용표 동국대 교수가 '초기불교의 종교경험과 교육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문명대 동국대 교수가 파키스탄 조사연구시 기록한 유물카드를 설명하고 있다.

"간다라 불교미술 이해할 기회 될 것"

인터뷰 '간다라' 국내 첫 국제학술대회 개최 문명대 교수

간다라불교미술을 주제로 해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인 '간다라불교미술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한 문명대 교수를 9월 22일 연구실에서 만났다. 문명대 교수는 대표적인 불교미술사학자며 간다라불교미술의 권위자다. 다음은 문 교수와의 일문일답.

▲간다라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2002년에 시작된 '파키스탄 고대 간다라 문화교류 학술조사연구(이하 파키스탄조사연구)'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1 · 2년차 조사가 간다라 지역 박물관과 유적지의 유물조사가 중심이었다면, 3년차에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정밀하게 연구하게 된다. 이번학술대회는 파키스탄조사연구를 중간점검하며, 외국의 간다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계기로 삼고자 기획됐다.

▲간다라 미술 연구에 관심이 큰 데?

-간다라는 불교미술의 발상지로, 우리 불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불상 연구자라면 누구나 간다라 불교미술을 거쳐 가야 하는 관문이다. 언젠가 간다라 불교유물과 유적을 철저히 조사해보겠다는 원을 세웠는데, 늦게나마 파키스탄조사연구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

▲간다라 불상과 우리나라 불상은 얼마나 닮았나?

-간다라의 영향이 직접 나타나는 우리나라 불상은 드물다. 서울 뚝섬에서 발굴된 불상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간다라 불상 연구가 우리나라 불상의 초기 형태를 짐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파키스탄조사연구의 성과는?

- 라호르 · 페샤워르 · 탁실라 · 스와트 · 디르박물관 등 파키스탄의 주요 박물관 5개소의 소장 유물 2000여점을 실측 · 촬영해서 유물카드로 기록했다. 파키스탄 박물관 소장자료를 이처럼 실측해서 기록을 남긴 건 세계에서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간다라미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또 간다라 불교미술 관련해서 발표됐거나 발표될 논문이 30여편이나 된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탁실라 지역을 발굴했는데, 성과는?

-4~5세기 경의 것으로 보이는 불두와 처용탈 형태의 토제품을 발굴했다. 탈 모양 토제품이 꽤 컸는데, 이처럼 큰 탈은 처음 발굴된 것이다. 혜초 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탁실라 지역에 수천 개 사원이 있었다 한다. 불상을 수십 위씩 모시는 것이 통례이므로, 수만 위의 불상이 있었을 텐데 거의 도굴당하고 발굴되는 예도 흔치 않은 실정이다.

▲간다라 관련 연구 계획은?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집중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해야 할 시점이다. 추가적인 발굴조사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돼야 한다. 또 후학들을 위해 간다라 불교미술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

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0>

정견(正見)과 생명의학

현대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체는 물과 더불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미량 무기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면역학의 발달로 우리의 면역계의 구성이 누구나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와 수많은 생리활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나와 너의 살의 구성 물질은 다르지 않고 또 생명체의 특징인 개체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면역계의 구성도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나의 살을 타인에게 이식한다면 면역 거부 반응에 의해서 금방 거부당한다. 요즈음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생명체 조직의 구성도 같 그것을 인식하는 면역계의 구성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확히 개체성을 구분하는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진전이 없다.

생명체의 생성 비밀인 '조합과 관계'는 과거 · 현재 · 미래 따로 없는 연기의 세계

몇 안 되는 동일한 구성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거의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생명체를 단순히 그 구성 물질로 환원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1+1=2의 수학에 바탕을 두어 쌓아올린 과학으로는 생명현상은 접근될 수도 없으며 이해될 수도 없다. 생명은 몇 안되는 생체 구성 물질로부터 이들의 조합(組合)과 다양한 관계(關係)를 통해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형태의 생명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지금처럼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구성 물질이나 작용 상태를 찾아내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조합(組合)과 다양한 관계(關係)를 밝히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구성 물질의 하나와 하나가 관계했을 때 1+1=10, 아니 100이나 1,000도 되는 것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현대 생명과학의 현재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관계가 생명현상의 이해에 가장 중요함이 드러난다. 서양식 과학으로서의 생명의학은 구성 물질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가면서 생명체를 단순화 시킨다. 그렇게 해서 물질요소를 찾아낸다해도 다른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찾아낸 물질의 원래 기능도 알 수 없기에 이러한 연구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구성 물질들이 모여 관계함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 그 성격이나 모습은 원래의 구성물질의 모습을 지니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 새로운 체계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을 향하여 역으로 피드백 작용함으로서 그 영향으로 이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물질조차 예전의 모습을 지니지 않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연기의 세계이다.

이렇듯 계속 변화하며 다양하게 생겨나는 관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正見)이다. 지금 발달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의학이 정견에 바탕을 두어 생명체를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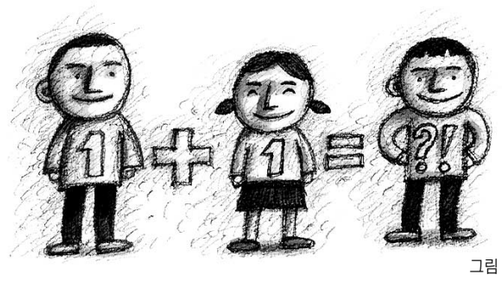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고급 카운슬러 六壬 「전국 육임 학당」 수강생 모집

- www.taotemple.net -

세상이 긴박 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긴박합니다.
당장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좋은가, 나쁜가? 에 대한 해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해 준 문제들의 **맞고 안 맞고** 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문제들의 자신 있는 상담에는**「육임」이 최고** 입니다.
왜냐하면, 상담하기 전에 래방자가 **물어 올 내용이 무엇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결정될지, 그 일의 전후 사정까지 미리 알아버리는** 고등한 비술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 한 육임가의 판단이 월등한 이유가 바로 이 것 입니다. **육임은 한 가지, 한 가지의 판단이 진검 승부**에 해당됩니다. 고등한 육임을 해야만, 긴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긴박한 정서를 꿰뚫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도마를 꺼내고, 집 파는 문제로 왔는데 10년 운이나 말하고 있다면, 그 선생을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늘을 대신 하는일」**을 하는 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남자」에 「우물 안의 고기와는 큰 것을 말할 수 없고, 여름 벌레와는 추위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육임과 일반 오행술과의 차이가** 이 것 입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고복자 효사」총재의 직접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마지막 (지방) 기회**가 될 것이므로, 오행가로서의 고등한 실력을 구비코져 하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적극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04년 10월 중 아래 일자 시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용 : 1백 5십만원 (교재「효사육임강의록」上(학습서) 下(활용서) 드립니다.
● 학습기간 : 3개월 13주 65시간 집중 강의 (기초 · 기본 2시간, 본강의 3시간)

● 등록학당 안내
육임학당 **효사숙** 제 9기 10월 8일 금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2-993-8680)**
육임학당 **강남숙** 제 3기 10월 9일 토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2-525-3039)**
육임학당 **전주숙** 제 5기 10월 17일 일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63-284-7714)**
육임학당 **광주숙** 제 5기 10월 18일 월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62-224-8680)**
육임학당 **대전숙** 제 2기 10월 12일 화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42-223-8680)**
육임학당 **부산숙** 제 6기 10월 13일 수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51-756-0141)**
육임학당 **대구숙** 제 6기 10월 14일 목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53-624-8680)**
(위 강남숙은 비구니스님들께서만 수강하는 육임전문학당 입니다.)

● 강 사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曉史
● 저 서 : ■**「육임래정비법」** 外 **「효사활인천역집」** 1~17권 (육임CD별도)
■월간 **「천문역학六壬」** 발행인 ■육임학당 **「효사숙」** 강주
■한국경제TV **「CEO제왕학」** 육임강의 中

생명평화 탁발순례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펴낸

도법 스님



"오늘의 불교 부처님 생애에 비춰보니 …"

직설적 문체로 승단에 던지는 절절한 고백과 비판

"불교 한 번 잘 해보자, 중 노릇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동안 여러 대중결사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불교는 모순과 세속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천년 전 수행자들처럼 온몸으로 물음을 던지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가위를 지나 곡식을 익히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10월 1일, 남원 실상사에서 도법 스님을 만났다. 지난 7개월간의 생명평화탁발순례를 잠시 접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스님은 최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아름다운 인연)를 펴내고, 경제적 ·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한국불교와 승단이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진리의 실천이란 언제나 지금 바로 볼 수 있고 실현되고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는 우리를 미혹케 하는 그 어떤 허상도 타파하려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중심의 이기성에 의한 육체적 관습적 허상을 타파하기 위한 출가 정신의 실천이 생활화될 때 비로소 참된 출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회향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1천일기도'와 곧이어 시작한 생명평화탁발순례 역시 스님에게는 '불교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수경 스님과 함께 전국을 걸으며 대중들을 만나 생명과 평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순례는 '전 존재를 바쳐 오늘 우리를 둘러싼 문제의 실상을 파악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한 일이다. "일생을 탁발수행승으로 일관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출가수행자들의 삶 역시 늘 길 위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스스로 평화의 존재가 되어 우리 모두의 삶터를 평화롭게 가꾸기 위해 시작된 두 스님의 탁발 순례는 하루 평균 12㎞, 3년간 1만2000㎞를 걸으며 전국 일원에서 진행된다.

스님은 "마음속에 간직된 생명과 평화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내 생활 속에서 녹여내도록 하는 것이 탁발 순례의 목표"라며 "생명 평화의 논리로 너와 나, 남녀, 진보와 보수, 남과 북,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풀어내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에 대해 스님은 "한국불교와 승단에 던지는 절절한 신앙고백이자 숨 막히는 답답함을 어찌하지 못해 토해낸 하소연"이라고 말한다. 10여년에 걸친 집필 끝에 선보인 이 책에서 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에서 입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좇으며 한국불교의 현실과 교차시켜 되짚어 본다.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길은 부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역사의 뿌리인 부처님을 인간 · 역사 · 종교적 측면으로 종합하여 온전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지 않은 채 불교를 제대로 알고 수행도 순탄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각 장에서는 부처님의 탄생과 발심, 출가, 수행, 깨달음, 전법을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과 그것이 뜻하는 바를 짚어 보고, '반성되어야 할 우리의 문제'를 통해 '지금/여기'의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무조건 출가수행과 깨달음만을 본받으려 했던 기존의 믿음과 접근 방법을 철저히 반성하고, 싯다르타의 발심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출가의 출발이자 수행의 전부라고 지적한다. '깨달음'에 대한 오해도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청정 지혜 자비로 충만하다면 굳이 깨달음 여부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부처를…' 책 표지.

과장되지 않은 어휘와 스님 특유의 직설적인 문체를 따라 읽어가다 보면 모순과 혼란, 관념으로 점철된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속 시원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제 스님은 10월 4일 밀양을 출발해 거제, 마산, 창원, 진해 등을 걷게 될 생명평화탁발순례를 다시 시작한다. 15~17일에는 실상사 일대에서 순례에 참가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2004 생명평화대회-참회와 성찰의 길'도 마련되어 있다. "희망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만나고 이야기한 만큼 생명평화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님은 그렇게 전국토를 걸어갈 것이다. www.lifepeace.org

실상사=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일주문



러, 한인이주 기념관 기공식 참석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9월 26일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열린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기공식에 참석했다.



전국청소년지도자 축제 개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10월 8~9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제 3회 전국청소년지도자축제'를 개최한다. (02)2667-0874



동국대 서울캠서 법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은 10월 12일 오후 4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불교를 알면 즐겁다'를 주제로 법문한다.



조계종 3기 고시위원장에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9월 22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조계종고시위원회에서 1 · 2기에 이어 제3기 고시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

서울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은 10월 9일 오전 10시 송암교회, 수유리 성당과 함께 제4회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한다.



서울구치소에 불서 보시

서울 사간동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9월 22일 서울구치소 재소자 불자 3백여 명에게 불교서적, 호신불, 예불집 등을 전달했다.



문화재정책 주제 특강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 2학기에 재학중인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장은 10월 7일 대전 문화재청에서 '정부의 문화재 정책 혁신'을 주제로 특강한다.



독거노인 등에게 1천만원 성금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본부장은 9월 24일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서울 박물관대회 유산 보호 새 전기될 것"

국제박물관협의회 자끄 페로 회장



"자연재해, 도굴, 전쟁 등으로 인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각국 정부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10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04 세계박물관대회'에 참석하기위해 방한한 자끄 페로(59 · Jacques Perot · 사진)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회장은 9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46년 파리에서 설립된 ICOM은 140개 회원국의 박물관 · 미술관 전문가 2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유네스코 비정부기구(NGO). 3년마다 유럽과 비유럽 지역에서 번갈아 열리는 ICOM 대회는 '문화 올림픽'으로 불린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서울대회는 ICOM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9월 30일 현재 102개국 1천2백65명이 등록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아시아 지역 박물관 전문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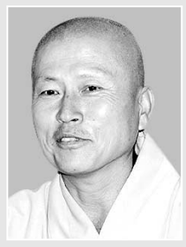
페로 회장은 서울 대회의 주제를 '박물관과 무형 문화유산'으로 정한 것과 관련, "어느 나라보다 무형 문화유산이 풍부한데다 일찍부터 제도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호해 온 한국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끄 회장은 프랑스 국립 문화유산보존대학을 졸업하고 육군박물관장을 거쳐 현재 콩피엔뉴 · 블레랑쿠르 국립박물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부터 ICOM회장을 맡고 있다.

노병철 기자

"2006년 10월까지 모든 불사 마무리"

룸비니에 대성석가사 건립하는 법신 스님



"2006년 10월까지 부처님 탄생 성지인 네팔 룸비니에 3층 규모 요사채 2동과 대웅보전 1동을 건립하는 '대성석가사' 불사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지난 1995년 UN 산하 룸비니개발위원회에서 7,748평의 대지를 99년 동안 임차를 받은 후 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한 끝에 룸비니 성역화 불사가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팔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 스님(사진)이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2004년 한국 문화체험(10월 1~5일)' 행사 참여차 한국에 들어왔다. 법신 스님은 대성석가사 창건 의의를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여러 종교인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성석가사 불사는 그 밑바탕을 닦는 일인 셈이다.

법신 스님은 "올 9월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기단부 1016평과 1층 483평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11월 13일 대웅보전 2층 290평 상량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신 스님은 네팔 현지 사정에 대해 "약 20개국의 종교인들이 들어와 사찰을 건립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가 점차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네팔 내정이 불안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스님은 10월 2~8일까지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리는 세계박물관협의회(ICOM)의 세계박물관대회에 네팔 대표들과 함께 참석, 네팔의 문화를 세계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펼치고 10월 17일 다시 네팔로 떠난다. **강유신 기자**

BBS부산불교방송 '라디오법회 - 금강경 강의'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대강좌

2004년 가을.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깨달음의 강좌 -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대강좌'**를 진행합니다.
삶이 곧 수행임을 일깨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는 수행의 요체를 쉽고 분명하게 보여 줄 이번 반야심경 대강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발원합니다.

법륜스님의 **직접 강의**로 진행되는 **부산 해운대정토법당**

부산 해운대정토법당 / 10. 5 ~ 11. 4 / 매주 화, 목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 051)747-9997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영상법회

법 당	요 일	일 정	시 간	연락처
서울정토법당	매주 수	10. 13~12. 15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2)587-8993
부산동래법당	매주 화	10. 12~12. 14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51)557-2746
대구정토법당	매주 목	10. 14~12. 16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53)744-3025
대전정토법당	매주 목	10. 14~12. 16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42)253-8990
청주정토법당	매주 화	10. 12~12. 14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43)284-5951
마산정토법당	매주 수	10. 13~12. 15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55)247-8991
울산정토법당	매주 금	10. 15~12. 17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52)245-8995
광주정토법당	매주 금	10. 15~12. 17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62)511-8990
제천정토법회	매주 화	10. 12~12. 14	오후 7시	043)648-0083
정읍정토법회	매주 목	10. 14~12. 16	오후 7시 10분	019-308-2731
제주정토법회	매주 목	10. 14~12. 16	오후 7시	064)724-7885
공주정토법회	매주 화	10. 12~12. 14	오후 7시	041)856-3317
김천정토법회	매주 월	10. 11~12. 13	오후 7시 30분	054)434-4311

모든 수행근본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달마면벽 진법 호흡태식법에 있느니라

지구촌에 천지 개벽시대가 오고 있다

경신도통비법으로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개벽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天用眞人·泰日大師 作品

◎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 달마 면벽구년의중생제도인 것이다

삼나만상을 창조한 선촌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미륵달마도법으로 지각이 변동되는 양 10月 7이 자시와 8일오시에 경신일이 들어 오미낙당당의 지구촌 모든 종교문화가 바뀌는 종교시대에 새로운 미륵달마 진법으로 하늘과 땅 지구촌 대서사시의 날인고로 천문도법인 초능력 도통비법을 갑신울유 천증수는 물과 불과 이름모를 괴질과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고로 경신입문한 공덕은 평상시 수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더 큰 힘을 얻는 대용맹정진 수행인 이 상서로운 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며 동참한 모든이들에게 특별 돈부 달마 선물을 드립니다.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만병의 근원인 당뇨병, 혈압, 비만 질병을 이기는 배꼽 뛰는 법강의

1. 지구촌 개벽이 시작되는 금년 갑신년 음 7월과 음 8월 9월에는 물과 불이 기승을 부리고 지구촌 온난화로 이름모를 괴질과 질병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시작되는 지구촌 개벽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바로 당신인 것이다.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한 진광대도진인이며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시구충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태양법으로 의통능력과 퇴치능력법만이 삼시구충을 모두 제도하므로 지각이 변동되고 지구촌 개벽시대에는 6경신 도통회로 모든 종교법이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지어다. 이 법은 역대도인들과 복희로부터 요, 순, 우, 탕, 선천, 후천, 진시왕, 황무제, 관운장, 원효, 의상, 도선, 진묵, 서산, 사명, 방한암, 탄허, 윤고암선사들께서도 이 법으로써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종주도 된 것이며 오늘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2. 말법시대에는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스승과 문중을 배신하고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냥 도인인척 하는 자는 하늘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로 오직 마음을 모두 비운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요,하늘빛 庚자와 귀신우두머리 申자에 귀의하여 정신과 마음을 다바쳐 수행,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천안통 천문을 열어 진태양 진법으로 인가하여 지각이 변동되는 시대에 천하중생들에게 기근에 맞는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잡신에 병, 마음에 병을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득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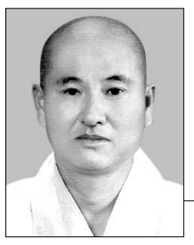
경신도통과 무극대도란 무엇인가

1)천안통 2)천이통 3)타심통 4)신족통 5)숙명통 6)누진통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60년에 한번씩 우리인생도 60세 등 환갑이 돌아오는 것과 기도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생명이 있고 번식할 수 있는 자리는 천주교, 기독교, 유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수마만이기면 득도하는 수행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 천이통경, 타심통경이 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이 빙의되여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일경 즉 천안통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 한 恨을 알아 들을 수 있는 기도중의 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신비의 기도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풍수지리 최고의 도전자는 비젼의 진본 감여보감에 있느니라.
※ 진본감여보감 (상 · 중 · 하) 구입가격 : 3천만원

● **입제 : 양력 2004년 10월 7일 목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4년 10월 8일 금요일(해시) 1박 2일**
02)821-6622 / 821-7767~8 / Fax 02)821-7768
016)239-3110 / 010-3292-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불자 세상보기

월 암
동국대 선학과 강사

'교육' 부터 살리자

경제위기 확산, 과거사 청산 공방, 수도이전 논란, 병역비리 파문, 남북 핵문제 등등 대한민국은 지금 수라장이다.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나라가 온통 벌집 건드려 놓은 것 같아 머지않아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이러한 국가 · 사회적 위기가 모두 대통령과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산사에 까지 들려온다. 물론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대에 어긋나고 있는 대통령과 정쟁으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을 변명해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정치 혼돈과 경제 난국 앞에서 누가 과연 그 책임을 비껴갈 수 있는가.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회심리현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부끄럽다. '나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너로부터의 혁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신라의 충담 스님은 나라의 태평을 묻는 임금에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하리라"고 답했다. 그렇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위기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국리민복을 책임져야하는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희생과 봉사로 국민을 섬겨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또한 국민답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 수준과 비례한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자.

오늘날 국가 · 사회적 어려움이 어느날 당장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보릿고개를 면하고자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달러의 파이를 얻었다. 이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문화전통을 소홀히 했다. 국민소득 3만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바로서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는가'라는 점이다. 정신이 바로 서있지 못한 국민에게는 3만불 시대가 오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그것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배워야 한다. 수천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에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 구석구석에 병리현상이 만연해 있다.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에 휩싸여 상생의 정치가 사라졌다. 기업윤리가 말살되고, 교육이 실종 된지 오래며, 가정은 뿌리채 흔들리고, 개인주의의 팽배 속에 자살률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면적 붕괴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 교육이다. 가정교육이 오도되고, 학교교육이 변질되고, 사회교육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교육이 정립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제부국을 이룬다 한들 그것은 한낱 모래성의 환상일 뿐이다.

다시 시작하자. 조금 늦더라도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어른들이여 회초리를 들자. 역사와 사회 그리고 양심 앞에 회초리를 들어 먼저 자신의 종아리를 치자. 그런 연후에 피묻은 그 회초리로 우리의 귀여운 자식들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자.

교육은 백년의 계획이라 하지 않았던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弘益人間) 인간교육,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饒益衆生) 생명교육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서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참으로 장하고 자랑스럽다. 또한 면목없고 부끄럽다. 한 고등학생의 학내 종교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처절한, 그러면서도 의연한 투쟁이 결실을 맺어 자신 뿐 아니라 전교생의 예배 참석 자유를 확보해 주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누구나 느끼면서도 그저 어물쩡 넘어갔던 문제에 단호하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설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이러한 쾌거를 이루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왔던 기성세대들, 그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 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종교 간의 갈등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마치 포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종교인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 갈등이 표출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석 군은 종교의 자유란 모든 이들에게

강의석 군에게 박수를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러하기에 다른 이의 종교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포교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준 강군의 투쟁은 더더욱 높이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이 일이 기독교계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기독교계가 위축되거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올바른 선교의 길을 걷도록 해준 강군에게 감사하여야 할 일이다.

또한 불교계도 이 일을 공격적인 개신교의 선교에 대한 경종으로만 여기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된다.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성을 지니고 있는 불교의 특성을 발휘하여 다원종교 사회에서 각 종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화합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제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강의석 군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또 그가 이루어낸 값진 승리가 모든 교육기관과 공공 기관에서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귀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性의 가치관

남이 내 어여쁜 누이동생이나 아내를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살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마련이니, 항차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대방편불보은경〉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240건의 성매매영업과 468명의 성매매사범이 단속에 걸렸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 특별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엠파스가 '특별법으로 성매매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가'를 주제로 진행 중인 인터넷 투표 결과 9월 30일 현재 83%의 응답자가 '어떤 법으로도 성매매를 막기는 힘들 것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심지어는 변종업종이 생겨나고, 음성적 성매매로 인해 에이즈 등 성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성매매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도 매춘은 존재한다니, 성매매 근절은 그만큼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성매매의)공급과 수요를 차단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이다. 법제도적인 장치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부터 차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근본을 따져봐야 한다. 그것이 곧 지름길이다.

■ 한명우(취재부 차장)

독자투고 우리 함께 대승도의 자리로

세상일에 집착하지 않는 게 제일의 정진

지난 봄 조계사에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가 열리고 있을 때 신문사에서 내놓은 선(禪)특집 부록의 제목 '선의 황금시대 활짝 열렸다'를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오늘날의 불법을 선의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들의 앞날에 선의 황금시대는 기대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선이고 교이고 간에 이 시대의 불법이 참으로 혼란스럽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참선이든 경전이든 다만 행하는 것만 있고 행하여 얻는 결과 – 깨달음은 없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열의 하나로 30년 내지 50년을 한결같이 밀어붙이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참선은 조사관을 뚫어내는 것이고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진 상태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다. 마음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조사관을 뚫어낼 수 있고, 조사관을 뚫어낸 자리에서는 마음길이 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건 깨달음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오직 간화선만이 깨달음의 길이고 역대 조사의 명맥을 이어온 바로미터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본말(本末)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의 빈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간화선은, 흥왕하던 대도선의 기세가 다소 주춤했던 송나라 초기를 전후해서 크게 대중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싶다. 대도선은 원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도의 자리에서 들어보이신 선사들의 일용사 모든 것이다.

덕산의 방과 임제의 할,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등등…. 선사들의 공안들 중 다소를 선정하여 참구하는 방법과 저마다의 소견을 덧붙여서 하근기의 사람들 앞에 내놓아진 것이 간화선인데,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위산 앙산 남전 조주 덕산 운문 법안 등 쟁쟁한 선사들이 화두로 깨친 적도 없고, 간화선법을 하라고 일러준 적도 없다.

예로부터 돈오점수의 양 문은 천성(千聖)이 밟아온 궤철(軌轍)인데, 언제부터인가 제방에 분분한 얘기로는 규봉 선사, 보조 국사, 법융 선사 같은 분들은 돈오점수법이어서 아니고, 오직 간화선만이 돈오돈수 법이라며 실제로 정진해 가는 행상은 중생심으로 소승도의 행을 닦아가고 있을 뿐 대승심, 대승도로 나아가는 구석은 없는 것 같다. 하물며 부처님의 광장무애한 법문의 문 문마다, 역대조사의 간결명료한 직지언구(直指言句)의 구절마다 일승대도의 자리로 환히 이어져 있고, 그러한 문자어구 밖에서 또한 무문(無門)의 대도가 사람 사람의 다리 아래 요연히 드러나 있는데도 말이다.

조계종에서 현재 <금강경>을 종도들의 소의경전으로, <육조단경>을 선가의 종지(宗旨)로 삼고 있지만, 다만 읽고 외우기만 할 뿐 대승심, 대승도로 나아가는 정진은 없다고 나는 보고 있다.

곧 세상일을 여의지 않고 세상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제일가는 정진인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일에 머물러서 불도를 통달해야만 대승보살도의 길이다. 그래서 이승(二乘)은 생사를 벗어나서 가상열반에 머물러 있고, 보살은 생(生)이 곧 무생(無生)임을 깨달아 생사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번뇌속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생사속에서 열반을 누려야 불 속에 핀 연꽃으로 마침내 시들지 않는 법이다.

밖을 향해 분주히 배우고 열심히 수행한다면 억겁의 세월동안 범부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조용히 내면의 자리로 돌아와 살펴 들어간다면 잠깐 사이에 중생제불의 근원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머리를 가지고도 동서남북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머리를 찾아 헤매 왔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그렇게 머리 찾아 헤매는 한, 머리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머리 찾아 헤매는 일을 그만 접고 머리를 찾아야 한다는 근심걱정들도 놓아버릴 때, 머리는 저절로 목 위에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운거 스님(지리산 성지토굴)

'현대' 만평 심 민 섭



법인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사불수행반 개강
'부처님 그리면 부처님 닮습니다'
"사불은 부처님 그리기와 참선이 하나로 된 수행입니다. 불보살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불성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 강의개요

1. 개강일시	2004년 10월 12일(화) 오전10시30분
2. 교육장소	동산법당(동산불교회관)
3.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4. 교 과 목	· 사불의 개념 · 수행의 역사 · 사불선의 호흡법 · 관법으로서의 사불선 · 순먹사불 (기초 수월관음도, 지장, 아미타, 신장상) · 경명주사 사불(관음, 지장보살)
5. 지도법사	법인스님(사불수행 지도법사)
6. 회 비	월 5만원
7. 기 간	1학기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자를 초청합니다



자비수관은 관세음보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로움을 나타내며, 몸에 대한 갖가지 견해와 번뇌가 정화되니 마음의 본래모습을 드러내어 이 자비수로 대비심과 지혜가 드러남이 마치 한송이 연꽃이 마음속에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 강의개요

⊙ 개강 및 일시	· 오리엔테이션 : 10월 13일 (수) 오후 7시 · 본 강 의 : 10월 22일(수) ~ 11월 26일 (수)
⊙ 장 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내)
⊙ 지도법사	지윤스님 (전 송광사 강주) (인도 다람살라 수행)
⊙ 내 용	4념처 수행중 특히 "봄"을 정념으로 관찰하는 자비수관으로 관세음 보살의 지혜와 자비심을 증득함
⊙ 대 상	수행에 관심있는 분 30명
⊙ 수련동참금	월 5만원(교재제공) 국민은행 016-01-0226-236 동산반야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반 야 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www.dongsanbud.net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사주박사



www.drsaju.com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프로 사주박사(www.drsaju.com)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생명나눔은 보살도 실천의 지름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승가대서 골수기증 캠페인

학인 스님 52명 동참…대다수 나이제한 걸려 아쉬움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이 9월22일 대학 본관에 마련된 골수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홍보부스에서 채혈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9월 22일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에 마련된 골수기증 희망자 신청 부스. 생명나눔실천본부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의 3cc가 생명의 빛이 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골수기증은 재생불량성빈혈과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일. 기증을 받으려는 봉사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잠시 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스님네'들이 부스로 몰려들었다. 신청 부스 일대는 순식간에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아~따. 그라믄 어뜨케 해야 된다냐잉? 왜 내 피는 안 받는다요? 나이 묵은 피라고 안 받아분다냐? 그라믄 안뎬당께."

스님네들은 신청 부스 관계자들을 붙잡고 사정을 한다. 몇몇 스님들은 다짜고짜 채혈 간호사에게 굵은 팔등부터 내어보인다.

"스님. 마흔 살이 넘으셔서 안돼요. 채혈 나이 기준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40세 미만만 가능' 억지 쓰시지 말고 수업 들어가세요."

"그믄, 대신 헌혈이라도 할랑께. 헌혈에는 나이 제한 없는 것 아니요잉. 스님들 피는 맑고 순수해서 기냥 먹어도 된당께. 헌혈차는 왜 없다냐잉?"

좀체 실랑이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그때, 장삼 자락을 휘날리며 홀연히 등장한 스님이 있었으니~.

"3학년 스님들은 빠지소. 나, 대학원 불교학 석사4학기 법운이오. 내가 부처님 앞에 맹세하오. 이 분들 나이는 20살도 안 됐소. 출가한 지 스무 해도 되지 않았다는 말이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일단 채혈이라도 해주소. 관세음보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스님까지 나선 차에 본부도 규정만을 고집할 순 없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따로 신청하는 조건으로 채혈을 허락했다.

"왜 골수기증에 나이 제한을 두느냐"는 질문에 이어진 본부 측 답변. "골수등록자의 대기 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되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등록을 받아놔야 대기 연수가 길어지잖아요. 또 타인간 유전자형 일치 확률도 높아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나이 들어도 골수기증은 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저희도 이럴 때마다 난감해요."

소란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억척스런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골수 기증 집념은 채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3학년 스님들은 1학년 스님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며 강의실로 발길을 바삐 옮겼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 6월초.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이 이 대학 총학생회에 행사 참여를 부탁하면서다. 총학생회장 해광 스님(불교학과 3학년)은 "생명나눔이 진정한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강조했고, 260여 학인 스님들도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채혈을 하고 나니 겁나게 좋구만잉. 환희심이 난당께. 나 때매 한 사람이 살아 불게 될 수 있다고 하니 허벌나게 좋아불구만잉. 앞으로 우리 스님네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귀중한 운동을 널리 알려야 쓰겠당께."(진일 스님, 불교학과 3학년)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은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신청자는 총 52명. 대부분의 학인 스님들이 나이 제한에 걸려 되돌아갔기 때문에 등록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본각 스님도 나섰지만, 나이 때문에 골수기증 등록 대열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채혈을 위한 봉사자로 나선 복진아 간호사(34 · 여의도성모병원)는 "채혈할 때 일반인들은 겁부터 내요. 그런데 스님들은 미소부터 짓더라고요. 자비심이 충만하다보니 그런가 봐요."

7시간 동안의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 동참한 학인 스님들은 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골수기증,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3일 예산 수덕사에서 시신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에서는 본부 이사장 법장,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을 비롯해 시신기증자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02)734-8050 김포=김철우 기자

"준모를 살려주세요"

선천성 심장병으로 4차례 수술

재수술비 없어 후원 손길 절실



태어난 지 2개월만에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7살 어린이가 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정신지체와 언어장애 3급인 신준모 어린이(사진)는 지난 1997년부터 4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에 심장병이 다시 도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지능력과 언어구사가 다른 또래 어린이들보다 현저히 떨어져 재활치료도 요구되고 있어 가족들의 애를 더 태우고 있다.

하지만 준모 아버지 신용진(37) 씨는 일거리가 없어 병원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 김영선(34)씨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의료수급권자로 월 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곤 있지만, 월세내기도 빠듯하다.

계좌번호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김철우 기자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나눔잔치 열어



동국대 참사랑봉사단(단장 이관제)은 9월 24일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서울시 중구관내 불우이웃 1000여명을 초대해 '추석맞이 사랑의 나눔잔치'를 벌였다(사진).

이번 나눔잔치에는 홍기삼 동국대 총장과 성낙합 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손재현 무용단의 공연, 동국대 동아리 ODC, SSID, AJAX팀의 노래, 단과대풍물패연합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졌다. 2부 순서에서는 만찬과 위문품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02)2260-3049

한편 참사랑 봉사단은 19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중구 관내 무의탁 노인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과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고 도움을 주고 있다. 조용수 기자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1천원으로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눔의 저금통 신청

인천시 학일1동 김영주씨
저금통- 5개 스티커- 5장

나눔의 헌금

경기도 용인시 용담사 선재어린이집(원장 성목 스님) - 67만1280원

서울시 변인택님 - 4만원

총누적금액 23,858,01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교화는 새로운 삶이죠"

30년간 사형폐지운동 앞장 **이상혁** 변호사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공휴일 빼곤 매일 죽어요. 아침마다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에겐 생의 마지막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죠."

1992년 12월,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된 이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형수들에게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죽지 않은 날'이다.

'사법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사형제는 현재 전 세계 121개국에서 폐지한 제도로, 유럽연합(EU)은 가입 조건으로 '사형제 폐지'를 내걸고 있을 정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수 출신'인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사형제 폐지 논란에 다시 금 불을 붙였다.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시점에서 30여 년간 사형제 폐지운동에 앞장서 온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이상혁(69) 변호사를 9월 23일 서울 공덕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72년부터 자원봉사로 구치소 재소자 교화활동을 시작한 그는 74년 서울구치소 교화협의회장을 맡아 본격적인 교화활동을 펼쳐왔다. 처음엔 가족도 모르게 시작한 그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87년, 2,000여 명의 재소자를 교화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후부터다.

"선행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되, 자의든 타의든 남에게 알려지면 곱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상을 받고나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교화활동에 앞장서던 그가 사형제폐지 운동으로 눈을 돌린 것은 75년 전남 광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며 17명을 살해한 범인 김대두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부터다. 법원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던 김 씨를 설득해 말문을 열게 했지만, 결국 그는 처형을 당했고 이 변호사는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생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사형수들을 풀어주거나 그들의 형량을 턱없이 낮추자는 말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성 회복운동이자 평화운동이며 생명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89년 5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이하 사폐협)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그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 단도 시케미쓰의 <사형폐지론>을 번역해 자비로 사회 각계 인사 3천여 명에게 책을 보내는 등 사형제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해왔다.

사형폐지운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항의전화도 숱하게 받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책자를 보내주겠다"고 설득했다.

"일반 재소자들은 사형수를 '최고수'라 부르며 그들을 믿고 따릅니다. 사형수들이 무기형을 살며 재소자들을 교화한다면 교화효과가 배가 됨은 물론 사형수 자신에게도 참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 생활비라도 벌겠다며 재소자들의 빨래를 해주고 돈을 벌었던 '엄마 사형수'와 다른 재소자들을 교화하며 이 변호사에게 100여 통의 편지를 보낸 30대 청년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사형수를 만나왔다는 그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사형수 서채택 씨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생불(生佛)'이라 불렸던 서 씨는 '개심하고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자꾸 교도소 들락거리면 나처럼 된다'며 재소자 교화에 힘썼다. 스스로 수번(囚番)을 '백팔번뇌'를 상징하는 108번으로 정했던 서 씨는 결국 92년 '108번뇌 모두 떨치고 간다'는 말을 남긴 채 처형됐다.

"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앙굴리말라(Angulimala)도 제자로 받아들인 부처님은 일체중생의 생명이 모두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는 불교계가 사형제 폐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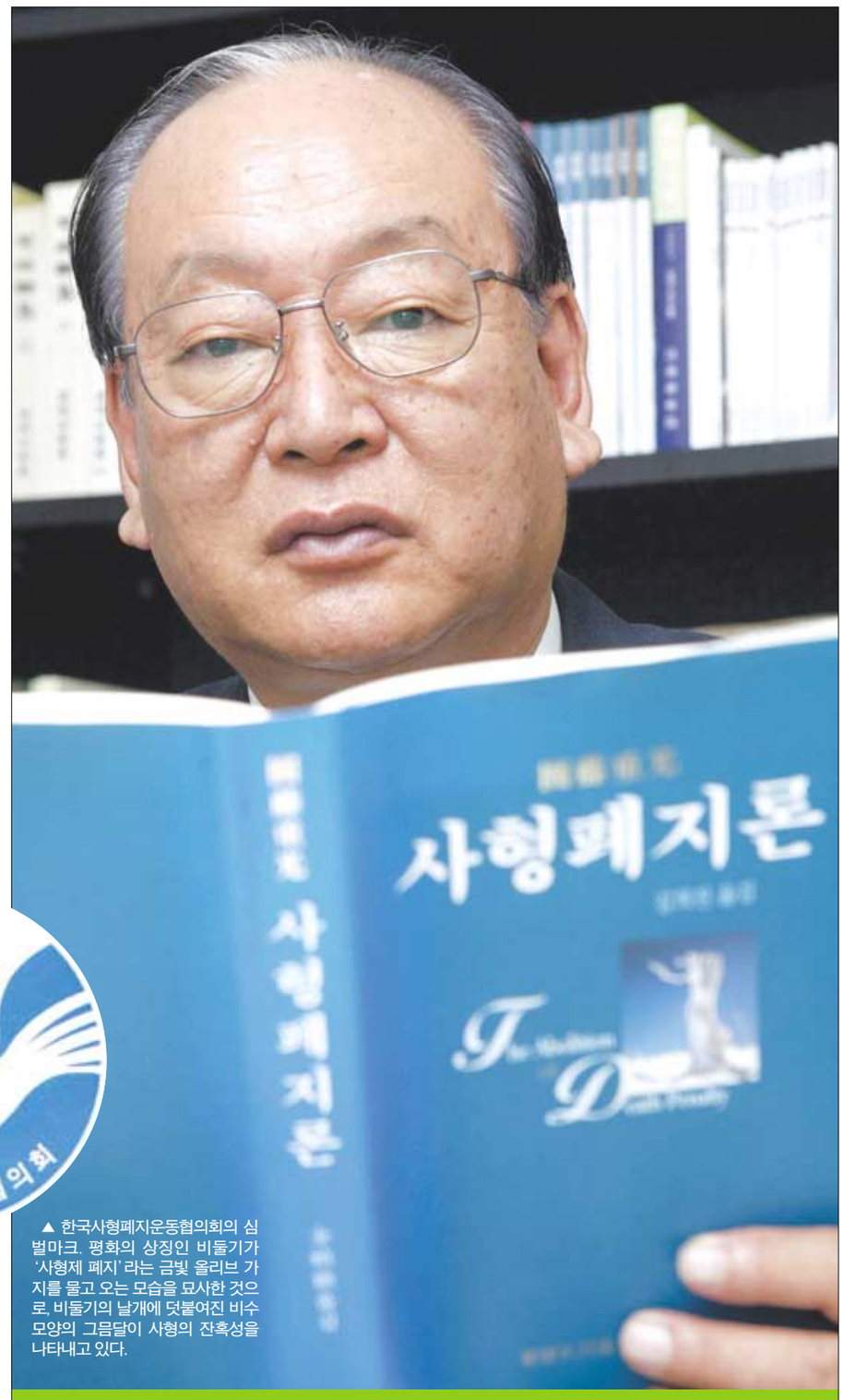
그는 누구보다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재소자들을 위해 불교계가 교화활동이나 사형제 폐지운동에 앞장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또한 그는 '나는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하고 또 구하겠다(吾救救 九死一生)'는 뜻으로 선정한 전화번호(599-9413)도 얼른 바뀌길 바란다.

"변호사법 1조에는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변호사의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변호사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돈은 못 벌었어도 변호사라는 직업윤리를 실천하는 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죠. 허허."

문득 그의 방에 걸려 있는 '공선사후(公先私後)' '신의일관(信義一貫)'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일흔을 바라보는 그가 30년을 지고 온 '사형제 폐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김대두 변호한 뒤 '사법살인'에 회의
2천여 재소자 교화로 '동백장' 수여
일체중생 위해 불교계 적극 나서야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 심벌마크.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사형제 폐지'라는 금빛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비둘기의 날개에 덧붙여진 비수 모양의 그믐달이 사형의 잔혹성을 나타내고 있다.

10년간 집행 없어…2008년이면 '사형폐지국' 국제 기준에 들어

지난 7월말 기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58명이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된 뒤 지금까지는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기준에 따른다면 우리나라도 2008년이면 이 범주에 들게 된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돼오던 지난 7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며칠 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붙잡히자 반대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현재 유 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7>

사마타 수행의 한계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삼매를 이루는 사마타 수행의 한계는 진리를 깨닫는데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지혜를 낳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제 아무리 뼈를 깎는 수행을 하여 수승한 경지에 올랐다 하더라도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며 생로병사를 비롯한 일체의 괴로움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으려면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위빠사나를 부처님이 실천하신 수행법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꿰뚫어 본다'는 뜻으로 한자로는



'관(觀)' 혹은 '조견(照見)'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빠사나 수행에서 꿰뚫어 보아야할 대상은 무엇이고 얻어지는 지혜는 무엇이며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위빠사나 수행의 대상은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인 신(身) 수(受) 심(心) 법(法)입니다. 이를 4념처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수행자는 우선 몸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현상들 예컨대 호흡, 걸음걸이, 손놀림, 눈 깜박거림 등 수많은 작용들을 빠짐없이 관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 등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더 나아가 5온, 12처, 4성제와 같은 법의 이치를 관찰해 갑니다. 물론 이 위빠사나 수행시 스승이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단 7일만 닦아도 성인의 과위를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빠사나에 의해 얻어지는 지혜로는 10가지로 청정을 이루는 지혜, 존재의 생멸을 아는 지혜, 존재의 무너짐을 아는 지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세간의 위험스러움을 아는 지혜, 존재를 싫어하는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평온의 지혜, 장애 받지 않는 수순의 지혜입니다.

수행자가 위빠사나를 닦게 되면 이 10 가지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수행자는 자아의 세 가지 특성 즉 3법인으로서의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와 고(苦)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법인을 깨닫게 되면, 수행자는 일체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지혜 얻으려면 위빠사나 함께 닦아야

해탈을 이뤄 다시는 생사에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사마타는 지혜를 수반하지 못하지만 위빠사나에 의해 얻어진 지혜 속에는 반드시 사마타의 경지가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가운데 집중하는 수행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수행은 지관(止觀)이 함께 하는 것으로 사마타는 위빠사나로 전환되어야만하고 위빠사나는 사마타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이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수행한 방법이라 하여 사마타 수행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 의거해 볼 때 사마타 수행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위빠사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기도 합니다.

■유마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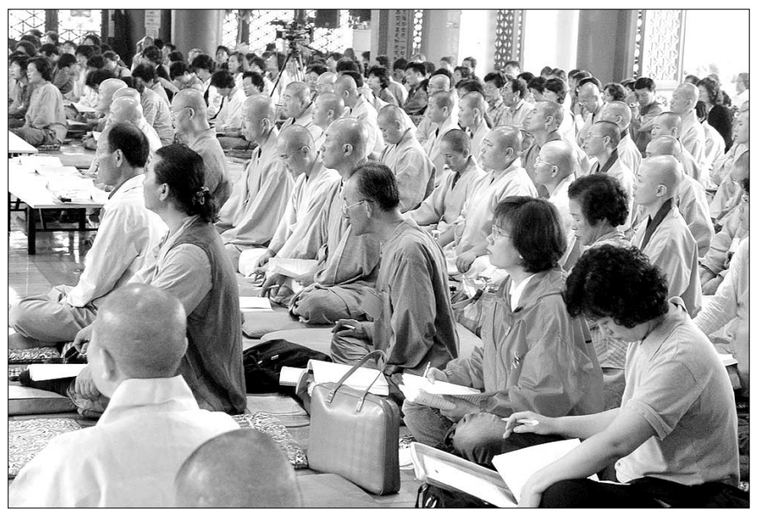
설우 스님의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

동화사 담선대법회

"우리는 모두 부처" 알고 믿으면 '해탈'

9월 18일 대구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한 동화사 담선대법회 세 번째 장이 펼쳐졌다.

이날 논주로 나선 설우 스님(법인정사 선원장)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과 반야의 자연지가 구족되어 있는 사실을 자각하면 곧 바로 돈오"라면서 "이를 통해 참된 진아의 세계를 체득함으로써 보살의 서원과 원력으로 회향하는 자비의 삶이 실천된다"며 <육조단경>의 대의를 설명했다.


동화사 담선법회에서 설우 스님의 설법을 경청하는 사부대중.


설우 스님

설우 스님은 "부처가 부처로 부처행을 하는 것이 선(禪)"이라고 정의했다. 선은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해서 정법안장 열반묘심의 정안을 구족한 선승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상심으로 수용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선은 실천불교이며, 여기서 실천이란 어떤 목적이 있어 무엇을 채우고 꾸며야 하는 노력의 실천이 아니라, 부처가 부처의 행을 보이는 것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설우 스님은 비록 견성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부처라는 사상적 확립만 있다면, 모두가 부처이기에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며 평등사상이 자연히 정립되어 각종 사회의 부조리도 치유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우 스님은 "부처로서 부처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가 되면 조사선의 꽃인 보살의 만행이 나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의 요지.

●마음은 원래부터 연기적 존재

불성이란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육조단경>에서는 불성에는 남북이 없고, 불성의 성질은 청정공적하다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더럽고 깨끗하다는 양변 대립적 청정한 마음의 실체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마음은 연기적 존재이고, 공성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불성은 중생심의 본질적인 자성청정심을 말하며, 연기법으로서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는 세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생속에 부처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혜능 스님은 <단경>에서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자불(自佛)이야말로 진불(眞佛)'이라고 말하면서, 부처를 천국에서 인간으로, 피안에서 차안으로 끌어내렸으며, 모든 이들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였다. 아울러 중생이 부처이고 번뇌가 보리며, 즉심즉불의 본래불을 깨달아 자기 부처를 바로 보아야 한다는 평등선언을 한 것이다.

●오직 돈오돈수…점수 철저히 배격

혜능 스님은 홍인 화상의 <금강경>에 대한 법문을 듣는 중에 '응무소주이생기심(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라는 내용의 이치를 확연히 깨달았다. 돈오돈수는 단박에 깨쳐 닦아 마친다는 뜻이며, 여기서 깨쳤다는 말은 원래 부처라는 것을 체득하여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돈오는 '나는 부처다, 나는 연기적 존재'라는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며, 돈수는 부처의 행을 말하는 것이다. 혜능 스님의 돈오돈수 사상은 체험을 통해서 확인된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경묘각 정오정각'만을 견성이라고 선을 그었다. 혜능의 돈오돈수 사상은 훗날 상당 설법이나 선문답을 통해 스승은 직지인심을 드러내고, 기연을 계기로 제자가 견성성불하는 조사선의 가풍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때 생사심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중생을 이고득락케 하고자 하는 보살의 서원, 연기적 현상을 직시하는 삶의 가치관에 대한 확고부동한 정립 위에 이뤄지는 참된 발심이 수행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혜'는 '등불과 빛' …둘이 아니다

혜능 스님은 점수법에서 말한 계(戒)로 인해 정(定)이 생기고 정을 거쳐 혜(慧)가 발한다는 사상을 배제했다. 정은 '적적'이요 등불이라 한다면, 혜는 '성성'이며 빛을 말한다. 등불과 빛은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일체만법의 경계를 당해도 본래 진여불성자리(생멸없는 공한자리)를 관하는 것을 '선(禪)'이라 하고, 그 경계에 집착하고 물들거나 흔들림이 없는 것을 '좌(坐)'라 한다. 또 모든 존재 현상에 살면서도 존재 현상에 구속을 당하거나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하며, 안으로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定)'이라 하고, 이것을 선정삼매라 한다.

●무념 · 무상 · 무주의 실천

혜능 스님은 불지견이 중생의 마음속에서 본래 자연지로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불성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사상으로 무념(無念)으로 종을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無住)로 근본을 삼을 것을 설했다. 무념은 부처로서의 실천행으로 모든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생각이라도 어느 한 경계나 사물에 대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상은 상을 떠난 것으로 자기 색신 속의 자성 삼신불에 귀의하게 하여 청정한 마음달이 바로 자성불임을 확신하면서 바로 지금 즉신성불할 것을 강조했다.

무주는 사람의 본래 성품이 한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혜능 스님에 의해 <금강경>의 반야바라밀의 정신에 의거해 남종선의 실천사상으로 정리됐다.

대구=배지선 기자

원명선원 참선불교대학 개설

제주 원명선원(회주 대효, www.wmsonwon.net)은 10월 3일부터 2005년 2월까지 매월 1 · 3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참선불교대학을 개설한다.

일반 교양대학과는 달리 참선 위주의 교육으로만 진행되는 참선불교대학은 성철, 서옹, 서암 스님의 문하에서 정진하고 30여 년간 선수련회를 열어 온 대효 스님(사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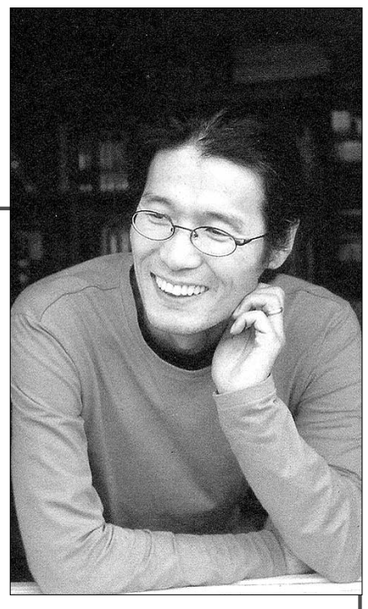
직접 법문과 독참, 문답생활과 연계한 상담으로 지도한다는 게 특징. '한 마디(一句)에 사람이 뒤바뀌고 세상이 뒤집히는 화두 참선'을 지향한다는 원명선원의 공부 내용은 일상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로 이뤄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緣起) △치우침이 없는 곳을 향하여(中道) △어떤 사물에든 절대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空) △대자유의 행복(解脫) △절대안정은 생사의 초월에서 가능하다(涅槃) △본래부처와 본래청정을 이미 지니고 있다 △자성불(自性佛)이 법력(法力)을 쓰고 산다 △괴로움과 장애 가운데 광명과 해탈의 세계가 있다 △지혜와 삼매 △마음을 비운다(無心) △화두 참구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단계적인 과정 등이다. (064)755-3322 김재경 기자

「4박5일 기공 지도사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치료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밝힌다!
소주천속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천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출고정가 15만 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봉행 제1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 대법회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 입니다.
이것은 홍당무도 토끼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반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홍 합장
❖ 일시 : ● 입재 - 10월 14일(음) 9월 1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10월 21, 28일 11월 4, 11, 18일) 재봉행
● 회양 - 11월 26일(음) 10월 15일(동안결재)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기도비 : 무 료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찾아오시는길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정법수행 정진도량 팔공산 지 혜 정 사

국내 최대 규모의 명상 사이트 '명상나라(www.zen.co.kr)'의 주인장 손민규(43)씨. 명상붐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손 씨는 우리나라 명상계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오쇼 라즈니쉬의 제자이기도 한 그는 인도의 명상마을 '뿌나'와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명상법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오쇼의 저서 50여 권을 비롯해 달라이라마의 법문집 등 불교 관련 저서를 다수 번역하며 자신의 체험을 대중에게로 회향해왔다. 그런 그가 명상나라 5주년을 맞아 '지금-여기'의 명상문화를 진단하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명상나라 대표 손민규 씨

명상에 '고귀한' 옷 입히지 말자

인터뷰 손민규 명상나라 대표

기술전수에만 급급…깨달음 외면

▲20여 년간 명상계에 몸담아 왔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피부로 느끼는 명상계 현실은 어떤가?

-인도의 뿌나만 살펴보더라도 많이 변한 것을 느낀다. 예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명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위기였다. 구도의 마을을 찾는 이들의 각오도 대단했다. "깨닫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국행을 다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순수함이 변질된 듯하다. 라즈니쉬 명상서적의 가격은 무려 6배나 올랐고 허황된 명상의 기술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 같은 '명상의 기술'은 상업화의 옷을 입고 '상품'으로 거듭나기에 이르렀다.

명상 강사, 언론 한번 타면 '스승님'으로 격상

▲국내 명상계 현실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명상센터'는 범람하고 있지만 소위 '사이비'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적지 않은가?

-지역의 한 요가원을 찾아서 요가를 배운 적이 있다. "호흡을 눈알이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참으라"고 하더라. 상기병이나 내장기관 이상이 감지되는데도 깨달음의 과정 중에 찾아오는 '명현반응'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요가 체위 가운데 '물구나무서기' 자세가 으뜸이라고 해서 요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명상원도 마찬가지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기 쉬운 강도 높은 동적명상 '다이나믹 명상'을 사전상담 없이 무작정 가르치고 있다.

국내 명상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모 센터도 다를 바 없었다. 평범했던 도반들이 하루아침에 유능한 명상가로 둔갑해 명상 강사가 되어 있었다. 객관적으로 그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그네들은 그렇게 강의를 하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는 날에는 어느덧 벼슬아치가 돼 버린다. 그러다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무리들이 생기면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고, 심지어는 자신은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으며 인간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했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내 주위, 그리고 국내 명상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명상지도자 정규코스 있어야

▲명상 · 요가 지도자들의 자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지도자의 자질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언론매체에 소개됐다 하더라도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명상문화가 확산되고 명상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나 대학 차원에서 명상지도자 정규코스를 고안해 객관화된 커리큘럼을 이수한 자에 한해 명상지도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일천한 경험으로 대중 호도 비일비재

▲명상지도자에게도 그 같은 정규과정이 필요한가? 깨달음과 자기각성을 논하는 명상계에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물론 '학습의 정도'와 소위 '근기'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명상을 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쿤달리니가 터졌다느니 신비의 체험을 했다느니 하며 대중들을 호도하는 데에 있다.

오쇼 라즈니쉬는 21살에 깨달았지만 20년간 깨달음을 발설하지 않았다. 20년 간 인도 전역을 누비며 수백만 명을 만나고 다녔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했다. 마음의 문제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적인 깨달음이 옹골차게 영글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명상 결과물에만 '솔깃'

▲그렇다면 오쇼 라즈니쉬의 가르침은 합당했나? 그의 명상법을 문제 삼는 이들도 많은데.

-라즈니쉬는 실제로 현대인에게 적합한 명상법들을 고안했지만, 결과적으로 명상의 본질보다는 명상에 이르는 통로에 집착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실제로 그의 사후에 많은 제자들이 다양한 '테라피(therapy)'들로 장난을 쳤다. 그것들은 순간에는 '효험'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평안을 약속할 수 없는 진통제이자 보약일 뿐이다.

나쁘게 말한다면 아이들에게 주는 막대사탕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명상의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는 현 시대의 명상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저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자

▲명상의 유행은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명상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명상의 결과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명상의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명상을 삶의 공허를 메꾸는 '악세사리' 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가질 것은 그대로 다 가지면서 '우아하고 고상한' 명상을 추가적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에 매진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자. 명상에 지나치게 고귀한 옷을 입히지도 말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명상문화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법'을 통해 '생각을 죽이려고 하거나' '평안을 유도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자. 그저 자기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선의 세계 61

돈오(頓悟)-4

프랑스 출신으로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라는 학자는, 돈오의 '돈'에는 세 가지 중층적인 뜻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신속하다(fast), 둘째는 완전하다(perfect), 그리고 셋째로 무매개(無媒介, im-mediate)라는 뜻이 복합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속하다' 함은 빠르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초시간적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터이다. 내가, 그리고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음은 초시간적인 세상의 진상(眞狀)이라고 보는 것이 본각 사상이다. 본래 그러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거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조건이 충족되면 그 본래의 진상으로 되돌아간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논서(論書)에 흔히 말하듯이 전에 있던 것이 이제는 없어진 것도 아니요, 전에 없던 것이 나중에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선종에서는 지금 바로 여기 중생과 세상이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라고 한다.

상대적 관념 · 분별의 틀 너머에 존재
세상의 진상 시작도 끝도 없이 펼쳐져

진리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다가 시간이라는 틀을 갖다 대어 인식한다.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개체로 보고 너와 나를 가르는 주객(主客)의 구도,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 사고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거짓에 상대되는 것, 어느 때 어느 곳, 누구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정으로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면 그런 어떤 틀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본각이란 바로 그런 진리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단박에 깨친다는 것도 시간의 흐름 중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시간 속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이렇게 무명번뇌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면 분명히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있고 누구는 그만큼 치열하게 수행하며 살았으니 깨친 듯하고 누구는 못 깨친 듯하다는 구분이 엄연하며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전에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인용하며 언급했듯이, 본각이니 불각(不覺)이니 시각(始覺)이니 하는 개념들은 말로 못할 것을 굳이 말로 설명을 하자니까 짐짓 고안했을 뿐이지 정말 본각의 자리에서 보자면 못 깨친 범부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비로소 깨친다는 사건도 없다. 본래 깨쳐 있다는 말조차 쓸데없는 소리이다. 그냥 세상의 진상이 시작도 끝도 없이 펼쳐있을 뿐이다.

그러면 도대체 깨달음을 체험하기 위해 수행을 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한 소식'을 하고 하는 건 다 뭐란 말인가? 선불교는 모든 것을 온통 그 닦아 깨치는 문제로 수렴시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다 본각, 불각, 시각이라는 개념처럼 방편일 뿐이라고 본다. 그런 교의와 개념, 수행의 행위와 깨달음 체험의 일화가 다 이를테면 수사(修辭)일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그게 다 거짓이라는 뜻인가 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갈 수도 있겠는데, 그건 또 아니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이 아니면 참이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도, 우리가 모든 것을 상대적인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별의 습성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작동한다. 본각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돈오라는 개념도 그런 상대적인 관념, 분별의 틀 너머의 자리에 그 낙처(落處)가 있다. 그러니까 '단박에'라거나 '빨리'라는 말에 속아 그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틀이 적용되지 않음을 뜻하는 표현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 2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10월 10일 (일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태중(낙태,유산) 아기 지장보살님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일 시 : 2004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11시 (음, 8월27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8월27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21일 (음, 10월 10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1만원),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5) 초발심(初發心)이 정각(正覺)이다

우루벨라의 산상수훈

저번 강의에서 우리의 일상은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늘 '넘쳐나는 것'으로 더러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넘쳐나는지, 무엇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불타고 있다

어느날, 우루벨라의 해질 무렵, 붓다께서는 불을 섬기던 가섭 형제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저녁 노을로 불타는 하늘을 보고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사람의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1) 눈이 타고 있고, 눈이 보는 물질이 타고 있다. 귀가 타고 있고, 귀가 듣는 소리가 타고 있다. 코가 타고 있고, 코가 맡는 냄새가 타고 있다. 혀가 타고 있고, 혀가 느끼는 맛이 타고 있다. 몸이 타고 있고, 몸이 접촉하는 감촉이 타고 있다. 의식이 타고 있고, 의식이 소비하는 대상인 생각이 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타고 있는가. 2) 다름 아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는 것이다. 그로 인해 3)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불타고 있고, 또한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愁悲惱苦)이 불타고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 모든 불타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해 싫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일체에 대해 싫어하는 생각을 가질 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지고, 그때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우루벨라의 산상수훈입니다. 붓다는 "온 세상이 불길에 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보면 온 세상은 평온한 것 같지만, 정말, 시쳇말로 '불꽃 튀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성한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한 경쟁의 칼 부딛치는 소리로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 '눈에 불을 켜고,' 노리는 것에 '혈안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불길을 잡거나 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이 난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붓다는 우뚝 이 사태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법화경>에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이 온통 불길 속에 싸여 있는데도, 사랑하는 자식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태연히 소꿉장난이고, 가족들은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싸여 있습니다.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종교간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역적 당파적 분쟁도 위태로운 수준입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가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 가령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웃과 직장 등에서 우리가 겪는 반목과 소모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온갖 형태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고, 증오와 적대감, 잔인성과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적의와 갈등, 대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평온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역사는 외부적 변화를 통해, 가령 전쟁과 정변, 혁명과 개혁들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면적 시도들이 기대와는 달리 더 큰 폐단을 몰고 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면적 변화가 필요하다

역시, 문제의 근본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탐욕과 공격성, 그리고 무지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청정한 법계를 더럽혀 온 것이 아닐까요. 세상 불행의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비난해 마지않는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나는 분열과 갈등으로 추악하고 잔인해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것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전면적으로 뒤바뀌는 굉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초발심(初發心)이 곧 정각(正覺)입니다!

바깥을 향해 외치다 말고, 내부를 향해서 말을 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잘못의 실상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나아가 그 흐름을 되돌리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의 관건은 삶의 이 실상, 그 고통과 비참과 직접 '대면'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삶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남다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붓다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열 번 날려 과녁에 맞추기는 어렵다. 백번 날려 다 맞추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삶의 비참한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붓다는, 놀랍게도, 사성제 가운데 처음의 고(苦)의 진리를 깨닫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학일익(爲學日益), 위도일손(爲道日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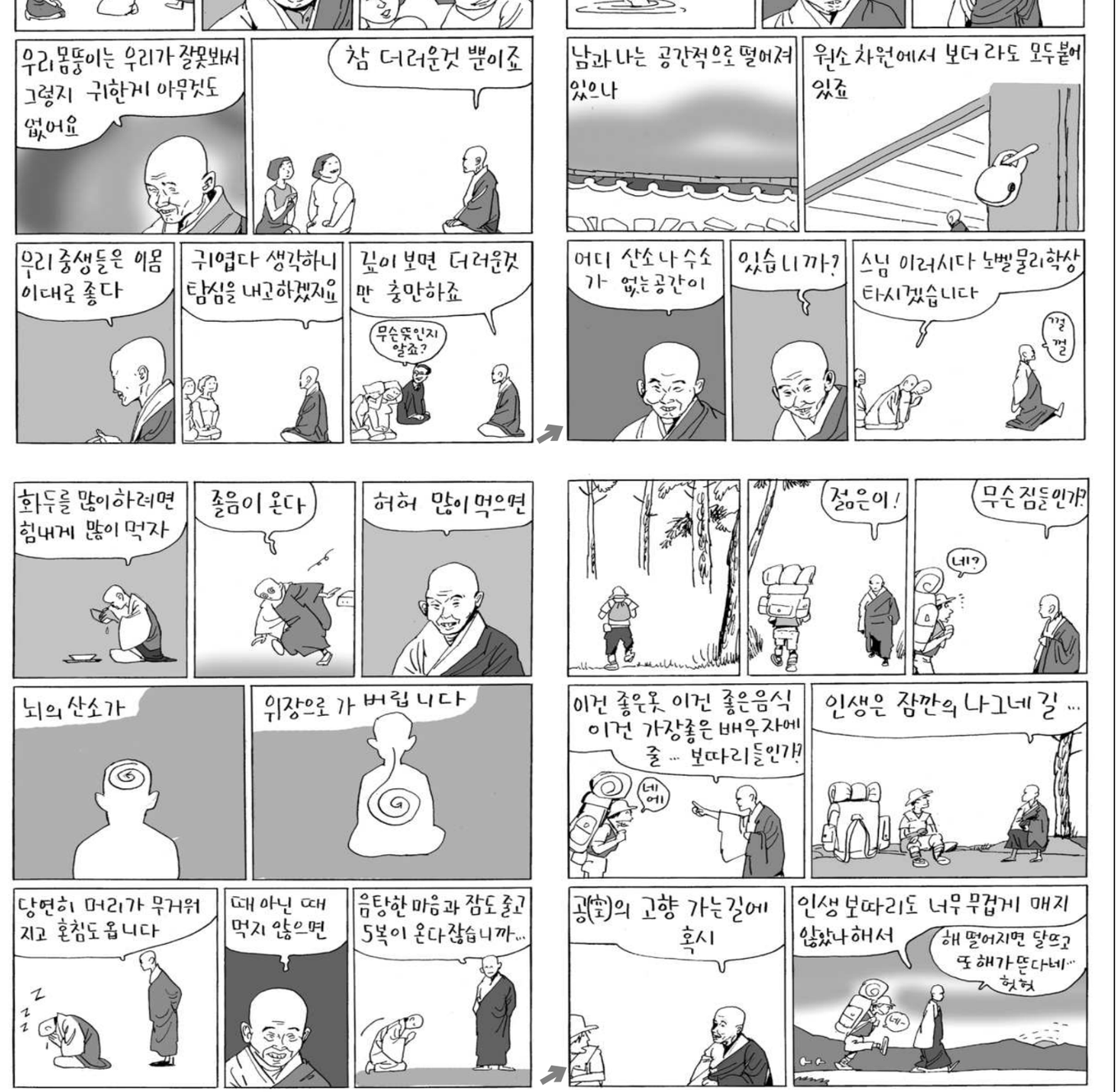
역시 불교는 '이 언덕'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사람이나, 세속적 성취욕이 강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 교제와 정치적 성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유형들은 불교를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세상의 무상함에 민감한 사람들이 불교를 찾습니다. 아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성취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 대결과 정복의 와중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아쇼카왕이나, 조선의 세조가 그 전형적 인물이고, 최근에는 백담사에 가 머물던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는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우선 안을 다스리라고 권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아무 것도 보태주지 않고, 다만 빚쟁이처럼 덜어갑니다. 혹, 불교에 챙겨갈 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불교는 나중에 "붓다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거나 "붓다는 40년간 장광설(長廣舌)을 늘이고서도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는 아무 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사코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오래된 독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말입니다. 이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고 세상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붓다가 말했습니다. "열반은 탐욕과 증오, 기만의 끝이다."

그렇다면, 이제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내부에 과연 "무엇이 쌓여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 치우든지, 태우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화 스님(1923~2003): 전남 무안 生. 1947년 백양사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 50여년간 전국 선원에서 정진. 곡성 태안사를 중창. 미국 삼보사와 금강선원, 성륜사 등에서 포교.

네티즌 교리문답

'무위진인(無位眞人)'이란 어떤 사람인가?

문 한국 조계종의 근원인 중국 임제종의 조사인 임제 선사는 늘 '무위진인(無位眞人)'이 되어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무위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D '무위진인')

답1 : 임제 선사는 <임제록>에서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세계에 살면서 일체의 경계에 속박되는 인혹(人惑)과 경혹(境惑)을 받지 않고, 일체의 모든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을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이라 설합니다. 임제 선사는 그러한 사람을 '일체의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乘境底人)' 또는 '무위진인'이라고 합니다. 무위진인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체인 본래심으로 주인이 된 지혜로운 삶을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살아가라(隨處作主 立處皆眞)'고 말합니다. ('수처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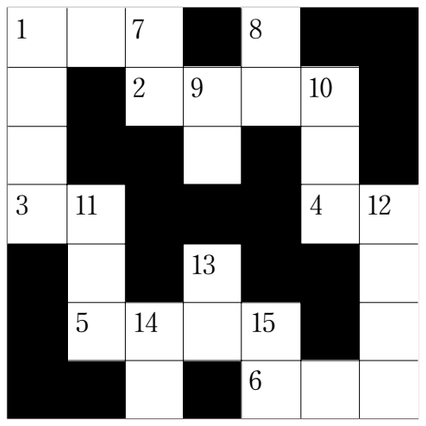
답2 : 황벽 선사가 <전심법요>에서 "하루 종일 일체의 모든 일을 떠나지 않고, 일체의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사람을 자유자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무위진인을 말함입니다. ('자유인')

답3 : 진각혜심 선사는 <진각국사어록>에서 무위진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하고 법문을 들으며 분명하고도 뚜렷이 밝고 어떤 형태도 없는 것이 어찌 하나의 그 무엇이 아니겠는가? 조계혜능은 그것을 '타고난 그대로의 얼굴(本來面目)'이라 하였고, 임제는 '지위에 얽매이지 않는 참사람(無位眞人)'이라 하였으며, 석두는 '암자 속에 있는 죽지 않는 사람(庵中不死人)'이라 하였고, 동산은 '집안에서 늙지 않는 사람(家中不老者)'이라 하였으니, 모두가 이 하나의 그 무엇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인 것이다. 생각을 움직이면 그것과 어긋나고, 분별하면 바로 잃어버린다. 생각과 분별로부터 물러나면 바로 하나의 그 무엇과 상응하지만 단지 물러나려 하지 않을 뿐이며, 놓아버리면 바로 편안하고 즐겁지만 단지 놓아버리려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영가현각은) 취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다만 이렇게 얻을 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암중불사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같은 땅에서 1년에 두 번 곡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토지 이용법. 2.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이심전심 3.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4. 길 잃은 아이 5. 퇴계 이황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안동에 세워진 서원 6.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빛을 전파하는 가는 유리 섬유.

세로 1. 깨달은 뒤 육도 중생 속에 들어가 제도하는 것 7. 마음을 정함 8. 나(我)라는 상(相) 9. 마음의 상태 10. 찹쌀을 쪄서 떡메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묻힌 떡 11. 골굴사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불교계 무술 12. 아(我)는 공(空)이나 독자적인 본질실체를 갖고 있다(法有)는 주장 13. 아무렇게나 쓰거나 그린 글씨나 그림 14. 알칼리성, 중성, ○○ 15. 둥글게 빛나는 빛, 후광.

덩샤오핑이 없었다면 중국은?



덩샤오핑 평전
벤저민 양 지음
권기대 옮김
황금가지 펴냄
1만6천2백원



1989년 6월 9일 북경에서 열린 인민 해방군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덩샤오핑. 현대불교 자료사진

올해는 중국의 지도자 '작은 거인' 덩샤오핑(鄧小平 · 1904~1997)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덩샤오핑은 생전에 굳이 자서전을 쓰려 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전기를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훌륭한 전기는 당사자가 생전에 했던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전기를 갖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기대는 빗나갔다. 그가 살았을 때만 해도 그의 전기가 수십 편 쓰였고, 심지어는 그의 딸까지도 펴냈다. 사실 전기 작가에게 그만큼 매력적인 인물도 드물었을 것이다. 혁명과 내전, 권력투쟁의 혼돈 속에서 불사신처럼 살아남아 끝내는 절대권력의 권좌에 등극했으니 말이다.

#중국을 세계 제 2의 대국으로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이 책은 미국에서 활동한 중국인 학자 벤저민 양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의 업적과 과오를 냉정하게 서술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산 혁명, 항일 전쟁, 문화 대혁명, 6 · 4 톈안먼 사태에 이르기까지 격동하는 중국 현대사의 최전선에서 세계 제 2의 대국을 이끌어 온 덩샤오핑을 진지하게 분석한다. 또한 탁월한 정치력과 특유의 신념으로 그가 중국에 무엇을 남겼으며, 오늘날 중국은 그의 유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덩샤오핑은 1904년 쓰촨 성 광안 현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 1920년 열여섯 살의 나이로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대전 후 공황에 시달리던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공장 노동자가 된 덩샤오핑은 중국공산청년동맹 프랑스 지부에 가입하고, 훗날 혁명의 동지이자 경쟁자가 되는 '저우언라이(周恩來)', '리리싼(李立三)', '차이허썬(蔡和森)' 등과 함께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든다.

 # 철저한 실용주의와 비상한 정치 감각

마오쩌둥의 충성스런 지지자였던 덩샤오핑이었지만, 1950년대 말 대약진 운동이 실패해 3천만 명이 굶어죽는 참상을 보고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유명한 말로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한다. 이때부터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의 눈 밖에 난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 당시 마오의 추종자들에게 '주자파(走資派, 자본주의로 쏠리는 자)'라고 비판당하며 여러 번 숙청의 위기에 몰렸다. 공식 지위를 박탈당하고 트랙터 공장으로 쫓겨나는가 하면, 1976년 4인방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자택에 연금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군부를 등에 업은 화궈펑(華國鋒) 세력의 도움으로 복귀하였고, 그로부터 당 중앙 부주석, 국무원 제 1부총리, 군사위원회 부주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 모든 지위를 찾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모두가 덩샤오핑이 마오의 뒤를 이어 국가 주석에 오르리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1997년 사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거부하고 한 계단 아래에서 실력을 행사했다.

#중국인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지도자

군인 출신 거물이 즐비한 중국 공산당에서 문관 출신 덩샤오핑이 최후의 승자가 된 비결은 바로 철저한 실용주의와 비상한 정치 감각에 있었다.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제 권력에 집중한 덩샤오핑은 언제든지 자기 세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1989년 톈안먼 사태 때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도록 허가한 것은 당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면모였다. 당시 동유럽 공산 정권이 줄줄이 붕괴되는 상황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결의가 그러한 참극을 불렀던 것이다. 저자는 당시 외국 정부의 몰아치는 비난에도 눈썹 하나 까딱 없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들은 조만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덩샤오핑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낸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마오쩌둥이지만 가장 고마워하는 지도자는 덩샤오핑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은 덩샤오핑이야말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되찾아 준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그의 여러 과오나 독재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칭송한다.

#중국의 오늘과 내일엔 그가 있다

오늘의 중국 지도부는 덩샤오핑의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흡사 1970년대 한국의 유신 체제를 연상시킬 만큼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덩샤오핑이 천명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주껏 이용하라" 라는 외교 지침이 지금껏 중국 정부가 보여 주는 강경 노선의 핵심이다. 저자는 "향후 중국에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그 인물은 내치가 아니라 외교 드라마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 현재의 중국은 덩샤오핑이 빚어 낸 모양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읽기 위해서는 덩샤오핑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멀쩡한 옷이 단 한 벌도 없었던 검약정신엔 숙연함마저

특히 수많은 업적중에서도 덩샤오핑이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철저한 검약 정신이다.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와 딸들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옷이 단 한 벌도 없음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수감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대목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박종호 지음 | 시공사 펴냄 | 1만4천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소문난 클래식 애호가 중 한 사람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LP음반 컬렉션을 시작했으며,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해마다 음악제가 열리는 곳이라면 베네치아에서 오스트리아의 보덴 호숫가까지 어디든지 찾아다닌다. 그렇게 30여 년 동안 음악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저자는 마침내 천직으로 삼아온 의사에서 클래식 레코드 전문점인 '풍월당'의 주인으로 인생의 제 2막을 맞게 되었다.

풍월당은 개점한 지 1년 만에 각종 음악 잡지에 음반 판매량이 게재되고 백건우와 흐보로스토프스키, 이안 보스트리지 등 대가들의 사인회를 열 정도로 클래식 음악과 관련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자신의 인생 지도까지 바꾼 음악 사랑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아냈다.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은 명반을 소개하거나 클래식을 듣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교과서적인 입문서가 아니다. 저자만의 감흥으로 읽어낸 음악 이야기가 전주처럼 흐르고 초심자들을 좀 더 음악에 몰입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는 쉽게 풀어 썼다.

클래식이 있어 아름다운 인생

레코드점 사장으로 변신한 전직 의사의 음악 사랑

그래서 클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매혹적인 선율에 마음을 빼앗겨본 적이 있는 이들이라면 '무슨 음악을, 누구의 연주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추억의 음반 편력기를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불멸의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일궈낸 위대한 예술 세계를 통해 삶의 진정성과 마주할 수 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불우한 장애를 타고난 바리톤 크바스토프가 부르는 '겨울 여행' 과 42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쿠벨리크가 지휘한 '스메타나' 공연 실황의 감동을 전하는 글 속에서는 절망과 환희가 교차하는 삶의 근원적인 비애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다분히 음악 호사가의 주관적 느낌인데, 음악사에 관한 정보를 집어넣어 적절한 균형을 잡고 있다. 저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레퍼토리별 명연주 소개에서는 '봄, 세상의 모든 사랑을 위하여' '여름, 싱그러운 꿈과 낭만을 위하여' 등 계절에 따라 4개장으로 나눴다.

계절별 구분은 크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어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곡목별로 골라 읽을 수 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안드라스 시프' '비발디의 사계- 파비오 비온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백건우' 식이다. 곡 이름과 연주를 병치한 구조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선곡에서 그의 취향과 관심이 쉬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인 '나만의 추천음반' 에서는 본문에 언급된 100여 개의 음반을 모두 소개했다. 특히 이 음반들은 LP판이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CD들이어서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반가운 정보이다. 또한 재킷 사진을 올컬러로 실어 음반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더했으며, 리뷰는 음악을 가까이 하고 싶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음반을 제대로 고르는 데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허란** (수원대 피아노과 강사)

마하몰 수험생합격기원용품 특별지상기획전

마하몰 eTrust eTrust 6년연속 인증기념 특별감사이벤트
이벤트 하나, 모든 구매고객에게 열반의 미소 CD를 드립니다.
이벤트 둘,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불보살캐릭터액자를 증정합니다.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이젠 지갑 속에 넣어 다니세요~!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합니다.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세트 19,800원
· 순금카드(골드파우더)+열쇠고리+휴대폰걸이
▮ 붓다열쇠고리 5,000원
▮ 붓다핸드폰걸이 3,000원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88,000원
· 재 질 : FINE GOLD 99.9%
· 골드파우더카드 : 15,000원
· 중량금(1돈)카드 : 120,000원
· 색 상 : 검정, 녹색





▮ 연실합장주 6,000원



▮ 연꽃핸드폰걸이 6,000원



▮ 연실열쇠고리 12,000원

살아있는 씨앗이므로 사용하시다가 싫증나면 언제든지 연실의 아랫부분을 3mm정도 잘라 물에 담궈두면 발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 재질 : 연실(연꽃씨앗) · 사이즈 : 18mm*13mm (천연 연꽃씨앗이므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살아있는 연꽃씨앗을 이용해 핸드메인팅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 산호합장주 16,000원
▮ 도실나한합장주 20,000원

지혜의 반지, 합격기원 반야심경 반지



▮ 반야심경 金반지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金반지
· 14K : 245,000원 · 14K : 245,000원
· 18K : 352,000원 [외부(外部)] · 18K : 352,000원 [내부(內部)]



▮ 반야심경 銀반지 38,500원
· 은 92.5% 로듐도금
· 크기 : 폭 약 8mm



▮ 반야심경 목걸이(원형,사각) 48,000원
· 가로 18mm, 세로 33mm · 가로 21mm, 세로 32mm
· 재질 : Silver 92.5% · 팬던트와 체인 포함(은)



▮ 반야심경 팬던트 Gold
· 14K : 245,000원 ※체인 별도
· 18K : 352,000원



▮ 수험생을 위한 기능성음반
15,000원 → 13,500원
· 실 력 발 휘 -결정적인 순간에 120% 능력 발휘, 시험도 업무도 가볍게 패스!
· 집중력향상 -잠재 능력을 자극하는 서브리미널 메시지
· 플러스사고 -마인드 컨트롤 효과로 자신감과 활력이 샘솟는다.



▮ 소원성취 합장초
샘플형(소3개,대2개) 17,000원
· 소(小)20개입 : 60,000원
· 대(大)20개입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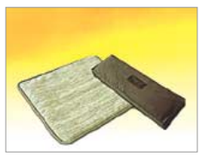
▮ 갓바위 소원성취 메달
49,500원- 은(99.9%)이상
· 직경 : 40.0±0.1mm
· 표면처리 : 무광 프루프
· 제품구성 : 메달, 플라스틱 캡슐, 고급케이스



▮ 모닝스타(천연아로마향) 6,500원



▮ 견성향(지관단) 15,000원



▮ 희담석 방석
198,000원 → 178,200원
· 희담석 방석 구매시 희담석 지키미(20,000원)를 드립니다.



▮ 희담석 방석
360,000원 → 298,000원
· 희담석 좌복 구매시 희담석 허리찜질팩 (44,000원)을 드립니다.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삼성,신한,LG, BC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 삼성 :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신한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LG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 까지) ● BC카드 : 2개월 무이자할부(2004. 9. 30 까지)
※ 마하몰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eTrust 인증제도"인증 심사결과, 인증업체(우수전문몰 부분)로 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 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간화선 교과서 '서장' 풀었다



서장
대혜종고 지음
전재강 옮김
운주사 | 1만8천원

간화선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서장>이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과 전재강 교수(동양대 문화재발굴보존학과)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장>은 조계종 전통강원의 기본교재로, 출가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로도 불리는 이 책은 중국 남 · 북송 때의 임제종 선사 대혜(大慧, 1089~1163) 스님이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수록된 65편의 서신 가운데 스님 2명과 여성 1명의 편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의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들과 주고받은 편지다. 이 편지에서 대혜 스님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조사선의 핵심을 알리고 있다. 또한 스님은 '깨달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지'를 여러 장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화두를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대혜 스님의 조언은, 이 책을 화두 공부 지침서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게 만든다.

"첫째 화두를 드는 자리에서 알아채려고 하지 말며, 또 알음알이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다만 유의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나아가서 의심하면, 문득 넘어지고 끊어지는 곳을 만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고우 스님이 감수하고 전재강 교수가 역주한 <서장>은 이러한 장점에 더해 몇 가지 특색을 갖는다. 우선 이 책은 2001년 3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각화사 서암(西巖)에서 진행됐던 고우 스님의 강의에 기초하고 있다. 전 교수는 대혜 스님이 주장하는 '철저한 확철대오(廓徹大悟)'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달되게 번역했다. 또한 대혜 스님이 일생동안 비판했던 '깨달음을 부정하고 마음의 안정만 중시하는' 묵조선 사사배(私事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각 편지 뒤에는 '요지(要旨)'를 덧붙여 구체적인 내용을 해설해 두었다.

고우 스님은 추천사에서 "전 교수가 풀이한 <서장>은 현대 문체를 구사하면서도 원작의 고전적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어 전통 조사선을 공부하려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도깨비 · 해태의 원형은 사자"

문화재 곳곳에 등장하는 사자의 전래와 변화상 20년간 현장 찾아가 연구



불상을 걸어 나온 사자
이재열 지음
주류성 | 1만8천원

한반도에서는 한 번도 서식하지 않았던 사자(獅子). 드넓은 아프리카의 초원을 떠올리게 하는 이국적인 동물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사자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 시 · 도의 경계에 서 있는 사자상이나 사자탈춤에 등장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부터 화엄사 사사자석등에서 보듯 석등이나 석탑을 떠받치는 수호신으로서의 모습까지, 사자는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자는 어떻게 우리 문화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최근 <불상을 걸어 나온 사자>를 펴낸 이재열 교수(경북대 미생물학과)는 "현재 서식처가 아프리카에 한정돼 있는 사자는 불교가 태동할 당시 인도 북부지방에서도 살았다"며 "당시 부처의 수호신이었던 사자는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우리 문화재 속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1980년대 독일 유학 생활을 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된 이 교수는 귀국 후 틈틈이 짬을 내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취미로 삼게 됐다. 그 중에서도 사자와 해태에 대해 20여년 간 연구해 온 지은이는 이번 책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을 350여 페이지에 걸쳐 담아내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사자에 관해 쓴 3장 '불상에서 걸어나온 사자'가 눈에 띈다.

지은이는 불상과 함께 서역에서 들어온 사자가 처음에는 불상의 대좌에 조각됐지만 벽사초복(辟邪招福,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임)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법당을 벗어나 석등과 부도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무덤 내부와 그 주변에 장엄물로 세워지다 결국 '청자사자베개'나 '사자 연적(硯滴)', 기와 등 실생활용품에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책에는 문화재나 불화에 등장하는 사자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300여 장에 달하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또한 지은이의 주장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도깨비의 원형을 사자로 지목한 점이다. 고구려 안악3호분 내부에서 보이는 도깨비 얼굴이 사자의 얼굴과 닮아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도깨비는 우리 조상들이 사자를 친근한 이미지로 빚어낸 것이라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이 밖에 '잃어버린 문화의 흔적을 찾아서'나 '되살아난 해태' 등에서는 우리 문화의 원류와 흐름을 짚어보려는 지은이의 시도를 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관심사를 쏟아내다 보니 다소 장황한 감도 있지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은이의 애정이 느껴져 쉽게 책을 놓을 수 없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경주 장항리사지 석조불대좌의 사자상(위)과 분황사 모전석탑 서쪽에 세워진 사자상의 모습.

새로나온 책



■ **<불교와 문화 9 · 10월호>**(대한불교진흥원, 7천원)= '지금은 수행의 시대-수행,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참선 위빠사나, 염불, 절 등 여러 수행법을 체험한 불자들의 수기를 소개한다. 또한 지난 8월 24일 입적한 '故 무애 서돈각 거사(前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추모특집'을 마련해 사진과 추모 글을 담았다.



■ **<숲에서 놀자>**(곽영미 · 박라희 지음, 리스컴, 9천8백원)=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쓴 '숲 놀이 책'. 국립수목원 산림환경 교육교사 곽영미 씨와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라희 씨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숲을 구성하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숲을 이루는 할미꽃, 물푸레나무, 쥐똥나무 등의 풀과 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 그림을 통해 숲과 더불어 생활하며 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 **<논어, 내 삶을 흔드는>**(안은수 지음, 명상, 8천5백원)=오늘을 사는 우리는 '고전(古典)'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논어, 내 삶을 흔드는>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논어식 해법'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라'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기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 등 <논어>의 주요 문구를 통해 인관관계의 해법을 제시한다.

선사들의 생생한 수행담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스님 엮음
장승 | 1만원

"그대는 이미 출가했으니 사문(沙門)이라 부른다."(<치문경훈> 中)

설악산 봉정암 주지 정념 스님이 '선사들의 편지'를 책으로 묶었다.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는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20여년 간 설악산 백담사와 오세암, 계조암 등에서 수행 정진해 온 정념 스님이 '마음이 팍팍해질 때면 어린 아이가 곶감 빼먹듯이 틈틈이 읽던' 경전 구절들을 담은 책이다.

"최근 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지만, 선에 대한 왜곡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는 정념 스님은 "선을 '환각적이고 몽롱한 그 무엇'으로 여기거나 선사들의 무애행(無碍行)을 잘못 이해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책에서는 선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선사들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글을 중심으로 모았다. <치문경훈>을 비롯해 <계초심학인문>, <관심론> <이입사행론> <수심결> 등에서 원효 지눌 나옹 태고 휴정 스님 등 우리나라의 고승을 비롯해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 승찬 혜능 황벽 스님 등 기라성 같은 선사 30여 명의 수행담을 볼 수 있다.

'경책과 훈계' '수행의 지남(指南)' '참선의 요체'의 각 장에서 선사들이 몸소 체험한 수행담과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오도의 경지에 들어서는 순간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유아교육 30년 노하우



대학교육보다 100배 중요한 유아교육
안정자 지음
컬처플러스 | 1천5백원

前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안정자 부회장이 3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체득한 유아교육의 실전과 이론을 정리한 책을 펴냈다.

"유아교육이 대학교육보다 중요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지은이는 이 책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 유아들 둔 부모들에게 자근자근 설명하듯 소개하고 있다. 현재도 유치원을 운영하며 유아교육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은이는 "유아들에게 학습을 강압하기보다 유아 자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아교육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한다.

이준엽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 림
2	오체투지	한 경 혜	반디미디어
3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4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 성 철	불교시대사
5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 른 아 침
6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 빠모	열 림 원
7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 시 아 문
8	선방 가는 길	정 찬 주	열 림 원
9	불교란 무엇인가	고 영 섭	정 우 서 적
10	노스님의 젊음	지묵 스님	우리출판사

도서 안내 : (02)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불광 since 1974

30주년 기념

http://www.bulkwang.org

고승초청 대법회
● 때 : 오전 10시 ● 장소 : 불광사 보광당 ● 문의전화 : 02-413-6060 (불광법회)



10월 4일 | 지관 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10월 5일 | 정무 스님 법왕사 조실
10월 6일 | 혜정 스님 법주사 회주
10월 7일 | 성수 스님 해동선원 조실
10월 8일 | 우룡 스님 학성선원 조실
10월 9일 | 정현 스님 내원정사 주지
10월 10일 | 고산 스님 쌍계사 조실

불교수행법 특별강좌 -생활 속의 불교수행



현산 스님 화엄사 선원장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무여 스님 축서사 선원장
지홍 스님 | 월간 불광 발행인
청견 스님 | 『절 기차게 하는 법』 저자
무심 스님 | 직지사 교무국장
정묵 스님 | 정토선원 원장
성정 스님 | 조계종 문화부장
강선희 | 주부
박영재 |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류종민 | 중앙대 조각과 교수
김열권 | 『위빠싸나 1.2』 저자
이종린 | 홍익소아과 원장

일 시 : 2004년 10월~12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장 소 : 불광교육원, 불광사 보광당
수강료 : 3개월 10만원(총 10회의 강좌와 3회의 선원장 초청법회, 1강좌당 20,000원, 월간 불광 정기구독자 20% 할인)
정 원 : 108명 선착순
안내 및 접수 : TEL 02-420-3200 (월간불광)
FAX 02-420-3400
E-mail : webmaster@bulkwang.org

강 좌 내 용	날 짜
●선원장 초청법회 (10월) -현산 스님 · 화엄사 선원장	10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1 생활 속의 불교수행-지홍 스님, 월간 불광 발행인	10월 21일
2 절-청견 스님, 『절 기차게 하는 법』 저자 · 법왕정사 주지	10월 28일
3 사경-무심 스님, 직지사 교무국장 · 직지사승가대학 학감	11월 4일
4 염불-정목스님, 『한국의 염불수행』 저자 · 정토선원 원장	11월 11일
5 기도-성정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 불교방송 '신행상담' 진행	11월 18일
●선원장 초청법회 (11월) -지환 스님 · 조계종 기본선원장	11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6 주력-강선희, 능엄주 10만념 수행 · 주부	11월 25일
7 생활참선-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 선도회 지도법사	12월 2일
8 간경(경전독송)-류종민, 중앙대 조각과 교수 · 금강경독송회 법사	12월 9일
9 위빠사나-김열권, 『위빠싸나 1.2』 저자 · 호두마을 지도법사	12월 16일
●선원장 초청법회 (12월) -무여 스님 · 축서사 선원장	12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10 보현행원-이종린, 『실천보현행원』 저자 · 홍익소아과 원장	12월 23일

신행수기 공모

창간 30주년을 맞는 월간 불광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부처님을 처음 만나면서 흘렸던 눈물, 가슴 뭉클한 사연,
그 감동! 그 이후 달라진 삶.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었어도 기회가 없어
가슴 깊이 소중하게 묻어두었던 신행담.
부처님 그늘에 살면서 느꼈던 감동,
신행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응모요령

● 주 제 : 나와 불교의 만남 (인연담),
부처님이 주신 은혜 (가피 · 영험담),
일상 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전법 · 수행담)
● 매 수 : 200자 원고지 20~30매 (주소, 이름, 전화번호 명기)
● 대 상 : 청소년 / 일반
● 마 감 : 2004년 9월 30일 (당일 도착에 한함)
● 보내실 곳 : (138-844)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2
월간 불광 신행수기 모집 담당자 앞,
e-mail: webmaster@bulkwang.org
● 문의처 : (02) 420-3200, 3300
● 시 상 : ·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 우수상 (2명) - 상장 및 상금
· 장려상 (5명) - 상장 및 상금
· 입선 (00명) - 상장 및 소정의 기념품
● 응모자 전원 : 월간 불광 1년 정기구독권
● 발 표 : 월간 불광 2004년 11월 창간 30주년 기념 별책부록에 게재 발표

엮음과 대칭의 美… 감탄 절로

'한국 전통 매듭 - 균형과 질서의 미학' 展

(국립중앙박물관 10월 10일까지)



만(卍)자가 새겨진 호리병 모양의 주머니에 황색, 적색, 청색 계열의 동다회 끈으로 매듭을 맺고 끈술을 길게 늘어뜨린 시연의식구 장식.

김희진 선생 작품 및 보유 유물 2백여점 전시
94개 매듭으로 장식된 시연의식구 첫 공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10월 10일까지 기획전시실 I (세종로)에서 김희진(70 · 중요무형문화재 제 22호 매듭장 기능보유자) 씨의 '한국 전통 매듭-균형과 질서의 미학'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이 대회의 주제인 '박물관과 무형문화 유산'이라는 성격에 맞게 특별 기획된 것.

이번 전시는 김희진 선생이 42년 동안 전통 매듭을 재현하고 그 현대적 아름다움을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과 직접 모은 유물 및 자료 200점의 기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김씨의 창작품 '영원에서 영원으로' 와 초대형 창작품 '시너지' 는 3차원 공간에서 표현되는 매듭 자체의 입체적 예술성을 시도한 것으로 전통 매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작품중 눈길을 끄는 것은 복숭아, 호리병, 여우 보주가 어울려 무려 94개나 매듭장식줄(수식)이 달린 불교 법회용 가마의 시연의식구 장식(보문사 소장). 이것은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그 풍요로운 색채 감각과 멋스러움에 보는 순간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게 된다.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이 소장했던 복주머니 매듭유품, 번(깃발)에 내걸린 법륜 모양의 유소(流蘇, 상여용 매듭), 교황이 방한 당시 입었다는 김씨의 전통매듭 달린 제의 등도 전시장의 기품을 더해준다.

임금 상여에 걸었다는 대형매듭장식(대봉유소)을 비롯해 궁중악기와 향낭 등의 각종 주머니, 안경집, 노리개, 부채, 등불, 심지어 절 법회의 번에까지 내걸린 다양한 매듭들은 조상들이 얼마나 폭넓게 매듭의 미감을 탐구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전시장을 다 둘러보고 나면 휴대폰 끈장식 정도로 매듭을 생각하는 요즘 우리네 미감의 부박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1963년 정연수씨에게서 매듭을 본격적으로 배웠다는 김희진씨는 "누에가 생명을 바쳐 뽑아낸 명주실을 가장 좋아합니다. 명주 끈을 반으로 접어 두 가닥을 만들고 그것을 질서 있게 엮은 다음 양손의 균형을 맞춰 한 끝에 조여야 좌우대칭은 물론 앞 뒤가 똑같은 매듭이 나오지요. 우리 전통 매듭을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라고 지칭하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매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의장과 권위', '음악이 흐르는 풍경', '염원과 종교', '생활의 품격', '선비의 멋과 풍류', '여인의 꿈', '매듭장 김희진의 예술' 등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02)398-5000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구전 이론화, 복원 · 창작으로 한평생



▲김희진 선생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손끝에서 손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 매듭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켰다. 국화매듭 · 잠자리매듭 · 거북매듭 · 석씨매듭 등 38가지 우리 고유의 전통 매듭 문양을 복원해 냈고, 끈을 짜는 기법도 네가닥, 여덟가닥으로 하는 4사 · 8사의 범위를 뛰어넘어 12사 · 24사 · 36사까지 개발, 다양한 질감의 매듭을 창출해 냈다. 끈 짜기를 뜻하는 '다회(多繪)'와 상여용 매듭을 일컫는 '유소(流蘇)'는 그가 악학궤범에서 발견해 정착시킨 매듭 용어들. 1976년 무형문화재가 된 뒤 '한국매듭연구회'를 조직한 그는 매듭을 한낱 노리개로만 여기는 편견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장엄 · 인간의 염원 · 소망 담아 표현

▲불교매듭의 의미는?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화려한 조형물로 형상화한 불교미술품에는 한결같이 인간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이 담겨 있다. 부처님과 보살의 공덕을 장엄하고 불교에 귀의하도록 인도하는 깃발의 유소, 영가를 모실 가마를 장식한 연수식 등의 불교 의식구와 복장유물에 장식된 매듭은 미적 감각이 총만된 장엄 요소이다.

▲불교매듭에 어떤 것이 있나?



불자매듭.



복장 주머니.



연 수식.

△**불자(拂子)**=원래 인도에서부터 먼지나 모기, 파리 등을 쫓는데 사용했던 생활용구였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마음에 쌓인 더럽고 나쁜 것을 털어내고 깨달음의 길로 더욱 정진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

먼지를 털어내는 총채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흰색 말총이나 삼 등을 보기좋게 잘 다듬은 후, 오죽(烏竹)이나 막대기 끝에 풍성하게 달고 유소로 장식했다.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산대사 초상'에서 잘 볼 수 있다.

△**복장 주머니**=복장 유물중에는 불상안에 봉안했던 것 이외에 탱화나 깃발(번) 앞에 달았던 복장 주머니에 잘 나타나 있다. 가족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내용의 발원문을 자수로 수놓았으며, 주홍색끈으로 석씨 매듭을 맺은 점이 이채롭다. 연화등 모양의 연꽃에 자리한 스님이 합장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연(輦) 수식**=가마나 영가를 운반하는 수레 장식에 쓰였다. 자수 장식의 형태들은 주로 무병장수와 부처님께 공양해 높은 공덕을 쌓고자 했던 조선 여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다. 만(卍)자를 새겨넣은 호리병 모양의 주머니에 황색, 적색, 청색, 녹색, 백색 계열의 동다회 끈으로 매듭을 맺고 끈술을 길게 드리웠다.

△**번(幡)**=부처님과 보살의 공덕을 장엄하고 공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깃발인 번은 불교 교단의 표장(標章)이었으나, 후에 법회나 설법 때 불전 기둥이나 당간에 매달아 거는 장엄구로 사용됐다. 대표적인 것이 49재때 주로 사요하는 '인로왕번(아래 사진)'이 있는데 법륜 모양으로 맺은 매듭과 장구 매듭 등이 사용됐다.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해주는 적극적 선행입니다. 범망경(梵網經)에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삼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께 엎드려 삼배 올립니다.
금일 제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펜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오륜 행실도, 신이담,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오륜행실도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주고 보은을 받았다는 신이담(神異譚)이 전해오고 있다. 일부 문중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 파평 윤씨는 꿈에서 잉어를 살려주고 축복과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하였으며, 평산 신씨는 잉어의 뱃속에서 신립(申砬) 장군의 금(金)동곳을 발견하고 조상의 살을 먹은 고기라 하여 꺼린다고 한다. 잉어 꿈은 수태를 알리는 길몽이라 하였다. 잉어를 용종(龍種)으로 보고 입신출세를 상징한다. 잉어가 황하 상류의 룽먼(龍門)의 거센 물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등룡문(登龍門) 고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

용 문

중국 황하의 최상류에 있는 협곡을 말하며 그 지방에서는 하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용문의 협곡은 물흐름이 거센 높은 폭포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폭포 밑에 있는 강에는 거센 물기둥을 거슬러 올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잉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나 웬만한 잉어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습을 거듭하고 용기와 슬기를 터득한 잉어는 기어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며 등폭한 잉어는 용으로 화신하여 등천한다는 전설에서 곳이 용문 또는 등용문이라 불리워졌으며 중국의 과거(관리 등용 시험)를 등용문 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잉어에 관한 중국 사상이 잉어와 함께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에서는 남자 아이를 나면 5월 단오절에 '고이노리보리'라는 창호지나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기구를 지붕위에 띄어 놓고 아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동양의 중국에서는 공자가 잉어를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 중히 여겼고, 실제 중국에서는 옛부터 잉어를 용문 잉어라 하여 과거어나 출세어로 여겼다는 고사가 있다.

끝까지 봐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성불 하시어 인류에 스승이 되시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벤비용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 H·P: 018-690-4985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



외할머니와 사루비아

외할머니를 떠올리면 언제나 자그맣고 바짝 마른 체구에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쪽지고, 눈부시게 새하얀 모시적삼을 입고서 화사한 꽃밭을 살피시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 늦여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젊어서 한창 매력이 넘칠 때에는 밖으로만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병든 노인이 되어서야 지어미의 곁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외할머니는 장례 내내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초연하고 담담하게 조문객들을 맞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모습에서 진한 슬픔이나 신세 한탄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깥의 정인(情人)에게 다 줘버린 지아비가 무에 그리 그리워 눈물바람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지아비라 해도 무슨 정이 남았겠습니까? 과부 아닌 과부로 자식들을 키우며 모진 세파를 홀로 헤쳐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 애틋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 왁자하던 가족들과 문상객들은 다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고즈넉한 침묵이 다시 돌기 시작하였고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마침 열려 있던 대문을 살짝 밀고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좁다란 나무 의자에 걸터앉아 새빨갛게 빛나는 사루비아를 바라보며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아내시던 외할머니를….

차라리 후련하다며 기지개라도 쫙 펴실 줄 알았었는데 지금 저 눈물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부부라는 게 뭘까?'

외할머니의 실루엣은 늦여름의 따가운 태양을 받으며 농익어가던 사루비아의 붉은 빛깔과 어우러져 어린 저의 가슴에 이런 물음을 새겨주었습니다.

정말, 부부라는 게 뭘까요?

부부의 연이라는 게 뭐기에 그토록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꼭 한 사람만 제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을 태우다 죽을 때까지 함께 지지고 볶는 것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마음과 정으로 엮인 사이이다 보니까 사랑이 큰 만큼 미워하는 힘도 참 유별난 것이 부부지간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참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왔던지 그 나라의 왕이 이 아이가 크면 자기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인들이 이 아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국왕은 높은 설산 중턱에 살고 있는 백조를 불러 여자 아이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도록 했습니다.

여자 아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백조 둥지에서 백조가 날마다 궁중에서 날라다 주는 밥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수의 상류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한 청년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다 천신만고 끝에 백조의 둥지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아름다운 소녀를 보자 첫눈에 사랑에 빠져 버렸고, 소녀는 백조에게 들킬까봐 청년을 숨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어가자 소녀는 청년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결국 일의 전모가 밝혀지자 왕은 그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구잡비유경).

부부의 연이란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요, 억지를 부린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 내 배우자는 얼마나 기막히고 절묘한 인연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부부들은 어째 그리도 쉽게 헤어지려 하는 걸까요?

마음먹은 대로 안되는 절묘한 인연 '부부'
"같은 신앙 · 계율 받고 함께 지혜 키워라"

사업에 실패했다고 갈라서고, 너무 일찍 만났다고 헤어지고, 평생 원수였었다며 갈라섭니다. 부부의 연을 맺으면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행복할 때만 함께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헤어지는 것이 부부의 도리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는데도 헤어지는 부부나 연인도 있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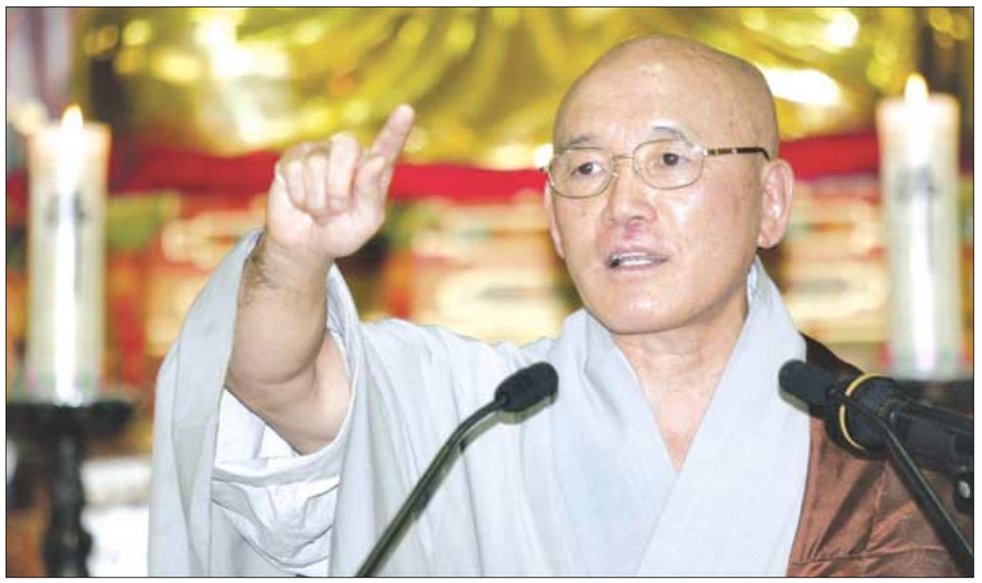
"부부는 같은 신앙을 지녀야 한다. 같은 계율을 받고 똑같이 보시하고 똑같이 지혜를 키워가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내고 내생에서도 서로 만날 수 있으리라."(증지부 경전)

평생을 해로한 노부부를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백년해로의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날 외할머니의 야윈 어깨 너머로 피어있던 사루비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꺼지지 말아야 할 부부의 사랑을 저에게 일러주려고 그토록 새빨갛게 빛났던 것만 같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혜운 스님은 늘 불자들에게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불자가 되어 나와 세상을 맑게 하자"고 당부한다.

지상 백고좌

혜운 스님

(제주 국청사 회주)

여러분과 인연을 같이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 법좌에 올라왔습니다. 은사스님이신 동산 스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사바세계니라. 사바세계라고 함은 감(堪) 인(忍) 대(待) 즉,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세상이니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중생들은 감, 인, 대 할 줄 알면 반드시 편안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견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참다운 불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 위해서 탐, 진, 치 삼독을 버려야 되겠기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약경유구(若鏡有垢) 색상불현(色相不現)
약심유구(若心有垢) 불신불현(佛身不現)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 색상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때가 끼어 있으면 부처님의 몸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마음먹기 따라 행-불행 결정

때는 바로 탐, 진, 치 삼독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각장애인이 외나무 나리를 건너갑니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잡아서 용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삽니다."하거든요. 그런데도 장님은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잖아요."하면서 손을 놓치 않으니 사람들이 그러면 붙잡고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 광경을 본 지나던 스님이 "손을 놓으세요. 밑에는 모래바닥이고 높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몸이 상하지 않을 테니 마음 놓고 놓으세요."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님이 손을 놓아 살게 되었습니다. 손을 놓으니 살긴 살았는데 두 시간을 붙잡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붙잡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소유욕, 집착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고통스럽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미국 보스턴 주에는 어업에 종사를 해서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지은 별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부자가 8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대리석과 좋은 목재를 모아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집에서 산 기간은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 살다 죽으니 자녀가 없어 주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광지로 개방했습니다.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굉장하다'고 감탄을 하다가 8년 동안 지어서 겨우 8개월 살다 죽었다는 사연을 알고 나면 "8개월 살려고 8년 동안 인생을 낭비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자신의 어리석음, 욕심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욕심의 불은 공덕의 숲을 모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안분지족, 즉 자신의 분수를 알아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솔천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머무르는 곳입니다. 도솔천은 지족천이라고도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세계라는 뜻이죠.

욕심의 불, 공덕의 숲을 잿더미로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욕심이 적으면 유쾌해지고, 행복한 것이니 만족할 줄 알면 부귀해져서 청빈 속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리라 하고 옛 어른들은 일러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게송을 한번 읊어 봅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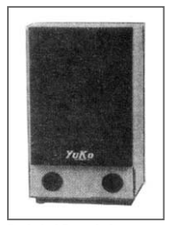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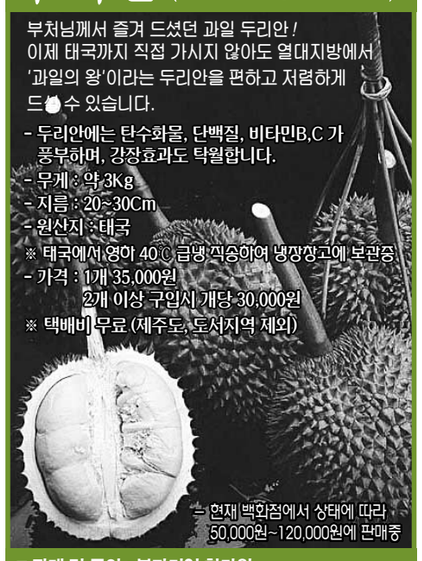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9월22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고승초청 법회에서 법문하는 혜운 스님.

육조 스님의 게송입니다.

욕정불토(欲淨佛土) 선정기심(先淨其心)
수기심정(隨其心淨) 즉불토정(則佛土淨)
약능제득(若能制得) 삼종독심(三種毒心)
삼취정계(三聚淨戒) 자능성취(自能成就)

이는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중생도 청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에도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중생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맑으면 중생도 맑아진다' 하였고, 또 '불토(佛土) 혹은 가정을 맑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맑게 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불토 역시 맑아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의 독한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삼취정계는 절로 성취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곧 가정이나 사회가 행복하고 깨끗하길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따라 극락도 생기고 지옥도 생기는 것이니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그 가정이나 사회, 직장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극락세계도 보고 싶고 지옥세계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지옥과 극락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 줍니다. 제자가 지옥세계에 가보니, 지옥에도 없는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마가 까진 사람도 많고 머리가 깨진 사람도 있고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요. 그리고 팔과 손이 뻣뻣해서 팔과 손을 폈다 구부렸다 할 수가 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팔과 손을 구부렸다 펴는 게 안 되니 씻을 수도 없고 그러니 엉망인 것이죠. 식사시간이 돼 커다란 밥그릇에 담긴 밥이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니 팔이 구부려지지 않으니 주먹밥을 만들어서 공중에 휙 던져서 받아먹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던진 것이든 남이 던진 것이든 서로 먹으려고 야단들을 하니 이마와 이마가 부딪쳐 깨지고 상처가 나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웃지만 우리 사는 꼴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마음 맑으면 중생도 청정

다음으로 극락세계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아까와는 달리, 하나같이 아주 예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지옥하고 똑같이 팔은 뻣뻣한 겁니다. 극락에도 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뻣뻣한 팔로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주더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까닭이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의 고통은 욕심, 소유욕,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며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극락에 고통이 있을 수 없겠죠? 자

늘 긍정적인 마음을 내라

비회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이 철철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극락입니다. 상대를 나처럼 생각하고 아껴주면서 먹여주고, 쓰다듬어주는 마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배도와 배탁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음의 중요함과 욕심 없이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등이 붙어서 태어났는데 등을 갈라 살점이 많은 이를 헝 배도라 했고, 동생을 배탁이라 했습니다. 일곱 살이 되니까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외삼촌댁에서 신세지면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박복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일행 선사가 와서 보니 두 형제가 박복한 상이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거지상인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저들을 당장 내보내라.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거지팔자니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엿들은 배도, 배탁 형제는 외삼촌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나 동냥을 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가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빌어먹기만 하면 내생에 또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 숲을 구우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자"하고는 산으로 들어가 3년의 노력 끝에 질이 좋은 숯을 굽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구운 숯이라고 하면 인기가 많아 금방 팔렸는데 두 형제는 5일장마다 일곱 집은 돈을 받지 않고 대문 앞에다 숯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숯을 받은 사람은 고마우니 먹을 것, 입을 것을 대문 앞에 내 놓아 보답을 하면서 배도 배탁 형제의 보시행이 전국에 소문이 쫙 펴졌어요. 결국 외삼촌 귀에 까지 들어가 외삼촌이 찾아와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일행 선사가 오더니 배도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남다른 열정 쏟아

혜운 스님은 1941 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스님은 가난하던 시절 공부를 하고 싶어서 55년 제주도 사라사로 출가했다. 배삯만 챙겨들고 부산으로 온 스님은 범어사를 찾아 무임으로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서야 동산 스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57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다.

해인사, 은해사 강원을 마치고 제주도 고관사 주지, 관음사 주지 등을 역임한 스님은 85년 국청사를 창건하고 회주로 주석중이다.

제주도 국청사에는 2백 명의 아이들이 도량에 가득하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국청사 회주 혜운 스님이 마야유치원, 국청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음사 연화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혜운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 내년부터 2박 3일 일정의 어린이수련교실을 열 예정이다. 3천 평 대지위에 1천 평에 달하는 도량 불사를 '죽을 고생' 끝에 회향했지만 아직도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보완을 위한 개축 불사를 발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통한 사회복지사업과 국청사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불교 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승을 할 상호이고, 배탁은 대장부가 될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형제가 "몇 년 전에는 빌어먹을 팔자라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역정을 내니 일행 선사는 "아름다운 공덕이 너희들 팔자, 상호를 바꿨다"며 칭송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가난도 내가 마음 바꿔 베풀고 아름다운 마음을 자꾸 쓰다보면 어느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을 하는 마음과 말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이 마음만 잘 쓸 것 같으면 바로 성불하리라"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미꽃을 보고 "하필이면 예쁜 꽃에 이런 가시가 달렸을까?"하고, 어떤 이는 "보잘 것 없는 가시나무에 예쁜 꽃이 피었네"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

백번 참으면 근심걱정 사라져

인 마음을 내면서 수행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세 번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도 세 번 생각하고나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아픔을 주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백번 참으면 근심걱정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정진으로 탐, 진, 치 삼독을 여의고 작은 실천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참 불자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원법 스님 (上)

원법(元法)스님은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이다. 원로회의는 사회로 말하면 상원(上院)격으로 종도들의 정신적 사표이며 지도자이신 종정스님을 추대하는 등 종단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원로스님들의 결의기구다. 원로회의 부의장쯤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상을 찾고 법랍을 따지면서 잘 모셔지기를 은연중에 바랄 수도 있지만 스님은 전혀 그런 면이 없이 아주 소탈하시다. 스님은 종단의 대표적 이론가며 문필가요 교육자로 명망이 높았던 용봉(龍峯)스님께 건당하여 집안의 어른 즉 나의 사숙이 되셨다.

연세도 칠순이 넘고 법랍도 많으신 데다가 사숙이니 어린 내게 조금 가볍게 대해도 되는데 언제나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 변함없어 송구스러



그림 · 문병성

울 때가 많다. 지난번에 태고종 종정스님 추대법회를 준비하며 소임을 나누어 맡았는데 재무구조가 열악한 총무원의 형편상 많은 예산을 들일수가 없어서 자리배치나 안내, 다과를 접대하는 다각실(茶角室)을 맡길 단체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총무원직원들이 차 심부름이나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행사날짜가 코앞에 다가와서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왜냐하면 종정이신 혜초 스님께서 해인사 말사인 청곡사에서 출가하여 종단과 사회교화의 큰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청운을 품고 서울에 오셔서 당시 큰스님들이 많았던 법륜사에서 오로지 출가수행자의 외길을 올곧게 가신 분이라 종단 내외에서 오실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 때 원법 스님이 뇌리에 떠올랐다. 원법 스님은 시(詩), 서(書), 화(畵)에다가 차(茶)와 음악(音樂)까지 조예가 아주 깊었다. 신도들을 잘 가르쳐서 다도회(茶道會)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잘 지도하고 계셨다. 지난 여름 전북 완주에 있는 봉서사에서 종단의 여러 사찰들이 모여서 '온생명 사상실천 수륙영산재'를 지낼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법 스님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도들과 함께 차 달일 도구 일체를 준비해 오셨다. 웬일이냐고 여쭈었더니 종단에서 여법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오면서 생각하니까 무언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추대법회때도 결례를 무릅쓰고 다각실을 맡아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다. 스님은 흔쾌히 수락하셨고 새벽같이 오셔서 하루 종일 신도들과 함께 그 많은 내빈들의 접대를 도와주셨다. 행사가 끝나자 서둘러서 대전 보은정사로 내려가셨다. 변변이 인사를 드리지 못해 나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간단하게 말씀하셨다.

"쓰임새가 있으니 대단히 고마운 일이예요. 또 쓰일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 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쓰임새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수고했어요."

한 번은 총무부장 월해 스님의 속가 어른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었는데 고인의 덕이 높아서인지 문상객들이 아주 많아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우리 출가자들은 이런 북적거리는 데를 생리적으로 싫어해서 으레 하는 인사정

詩·書·畵에 두루 조예 깊어 행사땐 궂은 일 '척척'

도만 나누고 일어서려고 하였는데 원법 스님이 만장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도와도 드리고 구경도 하고 즐겁게 바라보았다. 한 장 한 장 써 가시는데 그 활달한 필치가 정말 자유로웠다.

만장을 다 쓰고나니 주위에 몰려있던 스님들이 큰스님의 글씨를 경책으로 삼겠다며 글씨 써 달라고 요청하니 "어허! 이거 또 욕먹을 짓을 하네요 " 하시면서 다시 붓을 잡았다. 그러면서 스님들에게 원하는 경구(警句)를 부르라고 하여 그대로 적어 나갔다.

나에게도 무슨 글을 쓰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태고 스님의 게송인 '뒷산에는 꽃이 피어 비단처럼 붉고 앞 시내에 흐르는 물은 쪽빛처럼 푸르다(北山開花紅似錦前溪流水綠如藍)'을 읊었더니 "역시 법현 스님이야!" 하시며 좋아하셨다.

이번에는 신도들이 몰려들어 "저도요, 저도요" 하면서 글씨 써주기를 원하니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셨다. 그러다 보니 밤 열두시가 훌쩍 넘어버렸고 다음 날 홍성에 있는 절에서 법회가 있었던 나는 서둘러 인사드리고 홍성으로 향했던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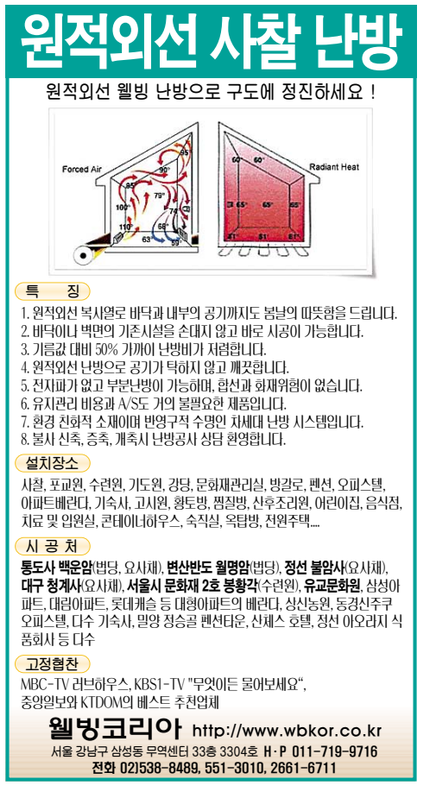
스님은 출가사찰인 해인사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홍류동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옛 스님들의 게송을 읊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추억처럼 뇌리에 남지만 그 시절에는 눈물을 몇 말이나 머금은 절절한 고해의 체험이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계속)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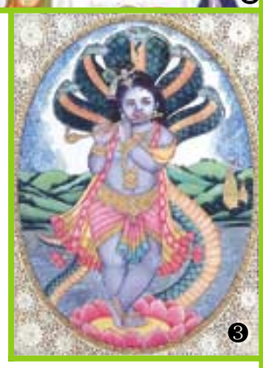




세계 박물관들의 올림픽 '2004 세계박물관대회.' 10월 2~8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리는 세계박물관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들은 올해 말까지 1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특별전시회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궁중의식인 종묘대례를 소개하는 '종묘대제전' 부터, 한국 불교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돈황전' 과 '한국불교미술특별전',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장간전' 까지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들을 모아본다.


❶


❷


❸


❹

올 가을 박물관엔 특별함이 있다

◇**종묘대제문물전**=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대제의 행사 모습, 종묘제례악, 일무 등을 영상으로 상영하고 각종 제기와 악기, 제례복 등 유물을 전시한다.
◇**고구려특별전**=경복궁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80점을 모았다.
◇**대장간전**=쇳대박물관은 농기구와 연장, 각종 공예품을 제작했던 대장간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모아 '대장간전'을 열고 있다. 풀무 모루 들쇠 등을 볼 수 있다.
◇**화가와 여행전**=서울대 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화가들이 국내외를 여행하며 화폭에 담은 풍경들을 벽에 건다.

세계박물관대회 개최 기념
고구려展 등 곳곳서 특별전

◇**신사임당전**=조선시대 대학자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자 대표적 여류 문인인 신사임당. 올해로 탄신 500주년을 맞는 신사임당과 율곡 일가의 유물들 70점을 모았다.
◇**돈황전**=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중국 돈황석굴 벽화 재현에 일생을 바친 작가 서용의 작품을 모아 전시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아미타변상' 등 작품과 돈황벽화 등 30점.
◇**인도 · 이슬람 미술세밀화전**=보성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은 10월 1일부터 4개월 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인도와 이슬람지역의 섬세한 미술솜씨를 느낄 수 있는 '인도 · 이슬람 미술 세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전시명	기간	주최	문의처
고구려특별전	10월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02)398-5000
고구려고분벽화모사전	11월 28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	(041)850-6360
한지생활민속 축제…	12월 31일까지	남산 지구촌민속박물관	(02)773-9590
전통문화특별전	11월 30일까지	영남대박물관	(053)810-1707
민속놀이전	12월 31일까지	한밭교육박물관	(042)626-5393
종묘대제문물전	10월 10일까지	궁중유물전시관	(02)771-9952
화가와 여행전	10월 30일까지	서울대박물관	(02)880-5333
신사임당 기념전	10월 11일~11월 24일	강릉시립박물관	(033)640-4457
대장간전	10월 10일까지	쇳대박물관	(02)766-6424
그리운 금강산전	10월 24일까지	덕수궁미술관	(02)779-5310
50주년 기념전	11월 30일까지	경주박물관	(054)740-7518
자수전시회	10월 24일~12월 26일	경기박물관	(031)288-5384
돈황전	12월 31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055)382-1001
한국의 빛	11월 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02)2188-6033
ICOM 특별기획전	10월 11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	(02)418-1315
인도 · 이슬람 세밀화전	10월 1일~2005년 1월 31일	대원사 티베트박물관	(062)852-3038
나무와 종이전	11월 1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003
새들의 집들이 기획전	11월 21일까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02)3142-3030

①자수박물관장 허동화 씨가 모은 300여 점 중 보살을 수놓은 가사 작품.
②통도사 성보박물관 '돈황전'에서 작가 서용은 돈황 벽화를 새로운 감각으로 재현한다. 그림제목 '인연고사'.
③대원사 티베트박물관에서 열리는 '인도 · 이슬람 세밀화전'.
④국립민속박물관 '나무와 종이전'에 출품된 '호랑이형 종이베개'.

본지 고영배 기자 '경주 남산 사진展'

10월 9일부터 전등사 야외전시장

경주 남산은 살아있는 불교 노천 박물관이다. 남산에는 많은 불상과 탑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불교 예술의 소재를 간직하고 있는 남산은 불교 미술가와 사진작가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곳이다.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옆 야외전시장에서 10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리는 고영배 기자(현대불교신문사)의 '부처님의 숨결, 경주 남산 사진展'에 가면 경주 남산의 진수를 사진으로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칠불암 마애삼존불'을 비롯해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미륵골 마애여래좌상', '용장사지 삼륜대 여래좌상', '부처골 감실여래좌상' 등 20여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신선암 마애보살 좌상'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험준한 산등성이에 큰 바위를 쪼아 대불(大佛)을 조성해 화엄세계(華嚴世界)를 구현하고자 했던 불심 깊은 석공의 체취가 그대로 전해짐을 느낄 수 있다. 안정적인 화면 구도와 세월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풍화된 흙까지도 자연스럽게 앵글로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그가 10여 년 동안 전문 사진기자로서 쌓아온 관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물들이다. (032)937-0125


고영배 作, 부처님의 근엄함을 보여주는 '경주 칠불암 석불'.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공연

원효 스님 구도역정 발레로

손재현무용단 창작극 '원효'
10월 9일 일산 라페스타 문화광장

원효 스님의 삶과 구도역정이 창작 발레로 무대위에 펼쳐진다.
손재현무용단은 10월 9일 저녁 8시 고양 라페스타 문화광장에서 불교무용 창작극 '원효'를 공연한다.
총 4막으로 이뤄진 이번 작품은 밤나무 아래서 탄생한 탄생이야기를 다룬 1막 '원효의 탄생' 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어 12세가 된 원효는 화랑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집을 '초개사'라 이름 짓고 불경과 불법에 전념한다. 2막에서는 요석공주와의 사랑이야기가 3막에서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칭하고 벙거지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가난한 민중들을 찾아 고행의 순례를 떠나는 원효 스님을 조명했다. 마지막 4막에서는 대중들을 위해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원효 스님의 수승한 경지를 표현했다. (011)399-7900


손재현 무용단이 2002년에 공연한 창작 발레극 '에밀레종'의 한 장면.

김주일 기자

조계사 창건 97주년 기념행사 풍성

10월 10~17일 대동제 · 음악회 · 뮤지컬 등 진행

서울 조계사가 10월 16일 창건 97주년을 맞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창건 주간을 선포, 조계사 경내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연다.
10월 10일 대웅전에서 창건 입재식을 시작으로 한마음대동제(10일), 가족뮤지컬 '오세암'(11일), 설법대회(12일), 신도경연대회(14일), 제3회 회화나무음악회(15일), 청소년 댄스페스티발(16일) 등을 잇따라 개최한다. (02)732-2115

일시	장소	행사명
10월 10일 오전 10시	대웅전	창건 97주년기념 입재식
10일 오전 12시	경내	한마음대동제
11일 오후 7시	대웅전 특설무대	가족뮤지컬 '오세암'
11~17일	대웅전 벽면	사진동호회 전시회
12일 오후 7시30분	대웅전	설법대회
14~15일	교육관 4강의실	영정사진찍기 행사
14일 오후 3시	특설무대	신도경연대회
15일 오후 7시	특설무대	3회 회화나무음악회
16일 오전 11시	대웅전 앞마당	창건기념 바자회
오전 11시	특설무대	청소년 댄스페스티발
17일 오전 10시	특설무대	영산대재

전시

관조 스님 꽃살문 사진전

10월 한달간 국립수목원

불교의 아름다움을 렌즈 속에 담아내는 관조 스님(범어사)의 사찰 꽃살문 사진전이 10월 한 달 동안 계속된다. 10월 1~31일 국립수목원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사진전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사찰 꽃살문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다.
사찰 꽃살문 중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조화로움을 간직한 신흥사 극락보전 솟을국화꽃살문, 쌍계사 꽃살문 등 대표적인 꽃살문 72점을 볼 수 있다. (031)540-1030

수묵화에 담긴 산사의 세계

법관 스님 선화전 10월 13~17일 우림화랑

귀여운 동자승, 연꽃, 풍경(風磬), 목어(木魚), 달마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산사(山寺)의 세계가 수묵으로 표현된다.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사동 우림화랑에서 '빈손으로 왔다 가네'라는 주제로 열리는 법관 스님 선화전에서는 농담과 여백의 미(美)가 짙게 배어 나온 수묵담채화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큰스님 드실 약을 달이는 '동자승', 금방이라도 "둥둥둥" 소리를 낼 것만 같은 '목어' 등 40여점을 전시한다. (02)733-3738

노병철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달마도
선화가 무불 스님이 그린 달마도. 무불 스님은 1990년 대중 포교를 위해 달마도 보급 10년 결사하고 33만장의 달마도를 그려 불자들에게 나눠주었다. 특별보급가 5만원.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695mm.(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미래사회 조부모 역할 강좌 불교상담개발원은 10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미래사회의 조부모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를 연다.(02)737-8803
장애인 가족 정보화교실 경주 장애인복지관은 10월 14일~12월 17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054)776-7522

함께 해요

고승초청 선서화전 통도사 자비원은 10월 11~14일 까지 울산 불교신문사옥에서 고승초청 선서화전을 개최한다.(055)383-3999
단풍축제와 산사음악회 단양 광덕사 선원은 10월 9일 오후 5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단풍축제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43)421-6900
3천배 명상 양주 육지장사는 10월 16일 오후 8시 철야 3천배 명상 수련회를 개최한다. 준비물은 운동복과 세면도구.(031)871-0101
청소년 영화제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가 10월 9~13일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독립 단편 영화 등이 상영된다.(042)254-4850
단양 온달문화제 2004 온달문화제가 10월 9~11일 단양읍 일원 등지에서 열린다. 온달장군 승전행렬, 온달장군 선발대회 등이 마련된다.(043)420-3254
은평축제 서울 삼보사는 10월 8일 오후 7시 서울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특설무대에서 가을소리 은평축제를 연다.(02)352-6406

즐겁게 떠나요

동화사 성지순례 청주 관음사는 10월 7일 대구 동화사, 파계사, 갓바위 등을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전 7시.(043)256-6254
낙안읍성 남도음식 큰잔치 제10회 남도음식 큰잔치가 10월 20~25일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열린다.(062)607-3777

20면 상식 퍼즐 정답

이	모	작		아		
류		심	심	상	인	
중			상		절	
행	선				미	아
	무		낙			공
	도	산	서	원		법
		성		광	섬	유

신행수기

진실한 믿음 〈중〉

지영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열심히 정진한지 이틀이 지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 싶더니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기자, '나는 의문도 많고 병도 많다' 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탄식했다. 나는 몸이 쇠약해지면서 밤늦게 소변을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방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처마등 불빛이 비치기만 했지만 말만 듣던 산사의 밤은 적막했고 간간이 풍경소리만 어둠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생리적 현상을 의지로 참을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 잠을 깨울까 염려하며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서 모퉁이를 돌아갈 무렵 나는 안심처를 발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를 안심시켜 주던 스님 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거기다가 방문이 반쯤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이쿠 살았구나' 하는 심정으로 안심하고 볼 일을 마쳤다. 속으로는 스님이 나를 보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편안히 잠들었다.

다음날도 여전히 밤늦게 화장실 가는 일은 계속됐는데, 그날도 스님 방에는 전날처럼 불이 켜져 있었고 방문도 반쯤 열려 있었으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 아침공양을 마치고 스님을 찾아 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스님은 전혀 모르는 채 하시면서 "보살님이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은 염불하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 때 정말로 놀라고 말았다. '아! 내 곁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고. 다음날 부터는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나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스님들의 고행이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체험한 뜻깊은 기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너무도 기뻤다.

내가 염불한지 보름이 되었을 때 스님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집에 가도 되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틈나는대로 불교공부를 하라고 권하시고, 집에서 염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떠나야 하는 것이 무척 서운했지만 다음날을 기약하고 서울 집으로 올라왔다.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절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우리집 어른은 참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한달에 한 번씩은 내려 갔다 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가족들의 환영에 너무도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날 보름녘에 나는 큰 아들의 차를 타고 며칠 머무를 생각으로 멀고 먼 부산까지 내려갔다.

내가 내려가자 스님은 매우 반가워하셨다. 나는 미리 메모해간 것으로 스님께 여러 가지를 물었다. 물론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믿음으로써 안심을 얻는다"는 신념에 찬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복이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고 실천하는데서 오는 것이지 혼자 복을 기원하는 기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난 신행생활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 때 스님께서 "보살님! 아미타불 염불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속으로 '내가 명이 짧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스님 이미 알고 계신 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면서 얼른 "큰 스님이 그러시는데 젊어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늙어서는 아미타불을 부르라고 하시던데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님은 "나는 보살님보다 젊은데 아미타불만 부르지 않습니까"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로 껄껄 웃으셨다.

스님은 한참 계시다가 말씀을 이으셨다. "보살님, 순수한 마음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성적이지 못하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삶에서 야기되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문제들을 통째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법과 믿음으로 해결하는 법이 있습니다.

염불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법입니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만 부르면 윤회를 벗어난다는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안심을 얻고, 인과법을 믿고 선행을 행하며 삶에 충실하는 수행법입니다"하시고는 잠시 후 이어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젊은이와 노인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복받는 법과 극락가는 법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극락이 지극한 복입니다. 또 죽음이란 늙어서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보살님은 서울이 집이니 우리나라의 중심이요, 현대의 고등교육까지 마쳤으니 시골 노보살이 하는 염불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다.

나는 스님의 말씀에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다시 "보살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니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기 쉬울 뿐 아니라, 깨달음도 빠를 것입니다"하셨다.

나는 귀가 번쩍 뜨이고 다시 마음이 밝아졌다. 칭찬과 더불어 깨달음도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지금껏 듣지 못한 법문이었고 내 정신을 송두리째 이리저리 쏠리게 하는 마력을 가진 듯했다. 나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자 귀를 기울여 경청했다. 스님은 마무리를 하시면서 "나무아미타불 열 번 부르면 윤회도 벗어난다는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선근이 깊은 사람입니다"라고 하시고 마치셨다.

나는 사흘이 지난 후 아쉬웠지만 약속된 날이 되어 서울행 열차 편에 몸을 실어야 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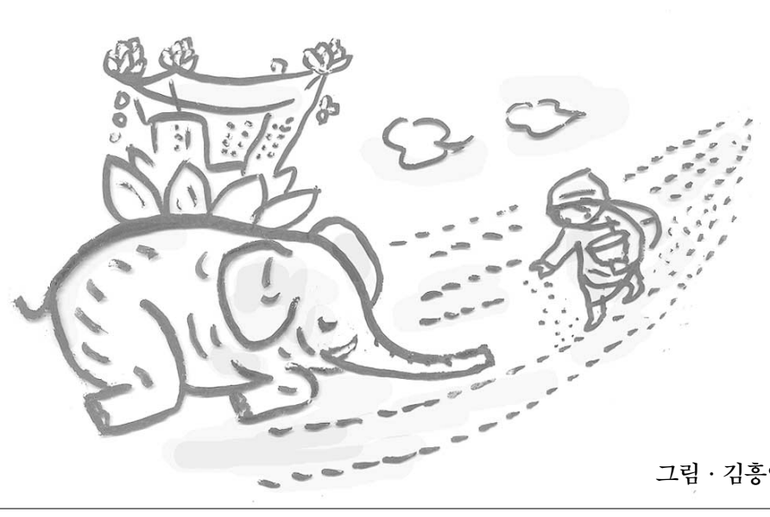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내곁에 부처님 계시는 걸 잊고 살았구나!"
스님의 자상한 지도로 믿음의 의미 깨달아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황영채
도서출판 행복한숲 대표

우리는 무엇을 갖지 못했을 때 갖지 못해서 안타깝고, 소유하고 나면 그것을 놓칠까봐 안절부절이다. 이렇게 일어난 탐심은 또 다른 탐심을 유발해 결국에는 공허함 밖에 남는 것이 없다. 가져도 고통이요 가지지 못해도 고통이다. 어찌하든 이 세상을 사는 일은 괴롭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탐진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탐진치가 일어나서 괴롭고 탐진치가 남긴 후유증에 또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나는 이럴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서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셨지만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여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고집멸도(苦集滅道)다. 이 때문에 부처님이라면 틀림없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답을 <금강경>에서 찾으려 했다.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며(應云何住) 어떻게 하면 번뇌하는 마음을 조복 받을 수 있는가(應云何降伏其心)"를 제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40 여년을 오직 <금강경>만을 읽고 또 읽었다. 이것은 또 우리 집안의 가훈이기도 했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후에는 <금강경> 읽기를 유언으로 여기고 오직 거기에 의지했다.

탐심 들끓을땐 '부처님이라면?' 의문
금강경 읽으며 집착않고 살기 노력

그런데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역시 내게는 부족함이 있었다. 경전에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以生其心)"고 하였는데, 한 동안은 이것이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막연했다.

생각으로만 집착하지 않는다고 여길 뿐이지, 정말 이것이 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꽤 오랜 기간을 <금강경>에 나오는 그 좋은 구절들을 눈 앞에 두고도 그것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까의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만난 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대념처경(大念處經)>에 보면, "할 때 하는 것을 알라"고 했다. 걷고 있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현재의 알아차림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 즉 각자(覺者)의 삶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화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원할 때는 "내가 지금 탐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탐심을 알아차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자세로 임할 때 수행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란 현상을 객관화하여 지켜볼 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비로소 부처님의 수행법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 수행은 일상의 모든 것에서 가능해서 좋다. 따로 수행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걷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이 모두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행할 엄두가 난다. 이제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된다.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부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스승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기에 더욱 신뢰할 만 하다. (계속)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법요집·기초교리集 괘도 재발간
공부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本, 괘도집은 법당에 걸어 비치만 해두셔도 신도님들의 불교 기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는 불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면 원찰 주소지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섭법
11. 삼법인
17. 십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역학무료
(수강료 없음)
힘든 경기에 앞길이 막막한 분
초급부터 개업까지 가르칩니다
● 초급반 10명
● 고급반 10명
● 성명학 10명
※ 단, 45세미만
※ 선착순 접수
※ 주 2회 강의
해수 명리 연구원(원장직강)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1 수림빌딩 307호 영동 전화국 맞은편
02)3453-0001

한국차학회 10주년, 10월 22일 원광대서 행사

올해로 한국차학회(회장 신민경 · 원광대 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차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조사로 차 문화 계승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결성된 한국차학회는 10월 22일 원광대학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차학회 10년사>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차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 차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차학회의 발자취와 활동을 살펴본다.

고품격 차문화 보급 10년 노력 "빛나네"

한국차학회는 1994년 11월 19일 탄생했다. 70~80년대 '우리차 마시기 운동'의 붐이 일어난 이후 다례와 다구 등 차 문화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이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기원 교수(진주산업대), 박용구 교수(경북대)와 김명배 교수, 故 전병식 교수 등이 회장을 맡아 이끌어 온 한국차학회는 차 학술 문화에 관한 연구와 조사, 차나무 재배와 육종 및 가공에 관한 기술개발, 차 유적지의 지표 및 환경조사,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학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 ·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차 학문적 · 기술적 대중화에 앞장
최근 홈페이지 개설로 재도약 계기 마련

창립 이듬해인 95년 6월 경희대 박물관에서 '제1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에서 발표됐던 논문을 모아 <한국차학회지>를 발간했다. 이후 매년 봄 ·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꾸준히 학술발표대회를 열어 학자들의 심도 깊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학회지로 묶어 펴냈다. 올해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티월드페스티벌'에서 19회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차학회에는 불교TV 회장 성우스님과 천태종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 불교전통문화원 원장 선혜 스님 등 불교계 차인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특히 선혜 스님은 지난해 10월 성신여대에서 열린 '2003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미나 준비는 물론 '조선시대의 다예 그림' '한국의 명장들의 다구' '차꽃사진 전시회' 등 문화행사 개최에도 발 벗고 나섰다.

또한 차학회는 최근 한동안 폐쇄됐던 홈페이지(www.teasoc.com/teasoc)를 다시 구축해 일반에 공개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차학회에 대한 소개와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 차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어 차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신민경 회장은 "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의 문화 및 과학의 계승 발전과 차의 대중화 운동을 확산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품위를 한 차원 높이는 차 문화 유산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차학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차와 선(禪)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제20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으로 이뤄질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학회 <한국차학회 10주년 기념집>을 발간해 창립 이념과 목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앞으로 학회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기념집에는 학회 연혁과 임원진 소개, 학술발표 및 학회지 투고현황을 비롯해 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과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과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 등이 되돌아보는 학회 10주년 단상 등이 실린다. (063)850-6657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1994년 창립된 한국차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0월22일 원광대에서 기념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17회 국제차학술심포지엄.


2003년 성신여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선보인 다도구 전시회 모습.

윤병상 교수 '다도고전' 발간



한국차문화연구회장인 윤병상 연세대 명예교수가 초의 선사의 <다신전>과 <동다송>, 중국 당나라 육우의 <다경>을 풀이한 <茶道古典>을 펴냈다. 윤 교수는 이 책에서 "다도는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흔히 '다도'라고 하면 복잡한 예법이나 차 생활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윤 교수는 다도란 음료인 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차를 상징적으로 삼고 그 상징이 갖는 정신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풀이하는데 있어 어려운 용어나 구절을 꼼꼼하게 설명해 놓아 뜻을 쉽게 새길 수 있다.

도예가 오순택 씨 첫 개인전



다도구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온 도예가 오순택 씨(현암요 대표)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다호' '다완' '다반과 다호 세트'의 세 주제로 나뉘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 씨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과 작가 애장품이 함께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오 씨는 다도구 작품 사진과 자신이 작품 활동을 펼쳐온 경북 문경의 도요사(陶窯史)를 담은 도록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02)723-7771

석정원차회, 중국 다예 특강

불교전통문화원 석정원차회(회장 선혜)는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다예(茶藝) 단기특강'을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간씩 총 7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를 수료하면 중국 노동청과 저장(浙江)대에서 발급하는 중국 다예사 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02)732-2068



연표는 차의 역사이며 미래다

1.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역사는 인과의 법칙 속에서 시간이라는 배를 타고 흘러간다. 흔히 역사를 강에 비유하는 것은 그 시작은 보잘 것 없이 미약하지만 점점 수량이 많아지고 지류들이 합하여 대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그 과정을 알려면 긴 흐름 하나하나를 다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학도는 물론 일반인들도 그 흐름을 짧은 시간 안에 요점만 간추려 한눈에 파악해야 할 때가 많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연표(年表)다.

연표란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별로 배치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기능과, 사건과 내외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 대조하여 당시 문화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80년대 중반 내가 다서를 공부하다가 차의 전래과정을 알아보려고 수많은 책을 뒤적였더니 일본과 중국 다서의 일부에는 연표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 관한 것은 전혀 실리지 않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아예 없었다. 학문을 연구하느라 외국 서적을 참고로 하지 않는 이는 드물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한국에 관한 것을 약간은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 내지는 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십 수년이 지난 오늘까지 연표에 관한 우리 다학의 발전상은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처음 차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차에 관한 글을 읽다보면 당시 주변국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의 정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럴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표다. 차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수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차를 공부하겠다는 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다사연표(茶史年表) 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연표는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행본이나 사서의 부록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파악되도록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학문연구에도 시간은 금이다. 짧은 시간에 알고 싶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작성하는 이 연표에 몇 가지 악센트를 설정했다.

먼저 단순 비교가 쉽도록 수평적이면서 종합적인 면을 부각하고, 다음은 차문화도 여러 다른 문화와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사회문화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은 참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한 · 중 · 일은 물론 혹 다른 나라의 문제라도 관계되는 것은 연결시키고 모든 사항들은 유물과 유적 및 기록에 의해서만 제시토록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너무 오랜 시대의 것은 기록이나 유물들도 희귀할 뿐 아니라 현존하는 것들도 기록한 시기나 제작된 시기를 확증하기 힘든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은 사실대로 밝히도록 했다. 끝으로 표에 내용을 다 적지 못하는 것은 주(註)를 달아서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도록 했다.

원고를 쓰면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눈높이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기초적인 면을 가벼이 할 수 없다는 쪽이어서 따르기로 했다.

참고로 이 연표는 2004학년도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강의했던 '차문화사' 강좌 수강생들이 작성한 리포트를 송경섭, 김경봉 두 학생이 정리한 논고임을 밝혀 둔다. yyykj@hananet.net

유건집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학 국문과와 고려대 대학원(고전문학 석사)을 졸업했다. 1980년경부터 다학(茶學)에 몰두했고, 95년 '심수연학회(心水硏學會)'를 만들어 본격적인 다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차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성균관대와 원광디지털대 경기도 박물관대학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
(깨달음에 드는길)을 4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4년 10월 27일 ~ 10월 30일(4일간)
■장소 : 인도의 수도 델리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진옥스님 061-662-1607)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달라이라마 설법과 불교성지순례)
● 기간 : 10월 26일 ~11월 8일 14일간 (동참금 245만원)
(인천-델리(설법)-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즈기르-보드가야-아그라-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 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7년간 공부한 청전스님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아직도 휴대용다구 치상배를 모르십니까?
스님, 불자님!!! 가벼운 산행, 성지순례, 대중공양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K
싱그러운 차향(茶香)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단체 주문 일 경우 원하시는 로고를 새겨드립니다. ※ 자동차 컵홀더에 사용가능

450ml / CS2001

360ml / CS2002

CP1001

거름망을 탈착 시킬 수 있으므로 찻잎, 티백 등이 분리됩니다. 진공 이중용기라 보온, 보냉이 확실합니다.

고급포장, 미려한 제품디자인.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녹차, 중국차, 티백등 입 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도구
선방스님들이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株) 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代)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한생각을 쉬게 되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은 우주 삼라만상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을 다 마음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마음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정말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을 잘 굴리면 일체가 생기고 한생각을 쉬게 되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다 소멸될 수 있을까 하지만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생사에 관한 문제도 다 놓아집니다. 죽고 사는 것도 다 놓게 되면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과 같은데 죽는 것이 뭐 별건가요? 무명을 쓰고 살다가 무명이 벗어지면 다른 무명을 쓰고 다시 나오고 하는데 마음의 발전을 해야만이 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발전, 즉 정신계의 발전을 해야만이 물질계의 발전도 할 수 있거니와 여러 가지로 중용을 할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유자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 하는데 그것을 올리는 자는 누구며 받는 자는 누굽니까. 지어서 올리는 자도 자기요, 받는 자도 자깁니다. 발우 한 그릇 먹는다 해도 내면으로 볼 때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먹는 것입니다. 몸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모든 생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 한 그릇을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하면 공양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면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양을 올리게 되면 공덕을 짓는다 이런 소립니다. 공양이 아니고 개별적인 밥이라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 된다는 것은 내 한 몸의 조직체, 즉 모든 생명들이 한 그릇을 놓고 다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먹으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작용을 해주니까 공동체이고 공덕이 되죠. 공덕이 된다는 뜻도 그렇고,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도 그렇고, 공향을 피운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참다운 공양을 올리면 삼라만상 대천세계 만물만생 전체가 한 그릇을 놓고 내부에나 외부에나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덕이 될 수밖에요.

나를 떠나서 상대를 믿는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고 공양이 될 수 없으며, 마음의 향, 즉 공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행을 하고, 마음을 내라 이거죠. 바깥으로 아무리 공양을 많이 올리고 시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직체로서의 운영을 하는 거지 조직체가 아니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를 봐도 조직체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조직체라는 이름 없이도 말입니다. 회장, 사장, 총무, 상무 및 여러 부서의 직원들로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단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참다운 공양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도 둘이 아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전체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 한 그릇을 올리든 공양은 공양입니다. 더불어 둘이 아닌 까닭이고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천도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지극하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아주 멋진 자유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공덕이죠. 내가 먹는다고 해서 공양이 아니고 올린다고 해서 공양인 것이 아닙니다.

향을 하나 피운다 하더라도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삼라만상을 한 찰나에 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물질적인 향이 아니라 마음의 향을 피우라 이겁니다. 잘 생각해서 공덕이 되게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향입니다. 부처님 전에 예배를 올릴 때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는데 이 다섯 가지 향이 뜻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향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양이 되게끔 하고, 공동체로서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구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향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게 하며, 스승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며, 자기 자신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물질계와 내면세계에서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나쁜 것을 녹이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하는 것이 계향 아닌 계향입니다.

둘째 정향이니, 굳건히 주인공을 세우고 나쁘고 악한 게 다가올 때는 한생각 잘 내어 굴려서 놓고, 또 선행을 했든 좋은 일이 생겼든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굴려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정향입니다.

세째 혜향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물질계와 내면세계를 돌 아니게 관찰하고 체험하는 도리가 바로 혜향입니다.

네째 해탈향이니, 만물만생이 무명에 묶여 있는 것을 풀며 여여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인 해탈향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해탈향이지, 해탈향 아닌 해탈향이죠.

다섯째 해탈지견향이니, 우주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을 느끼고 다스림이 항상 밝아서 걸림 없이 구족함을 해탈지견향 아닌 해탈지견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향이 바로 오온의 직결심이 일심으로서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것만 닥친다고 이것만, 예를 들어서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만 하지 다른 건 못하고, 공업자는 자기 전공 분야만 하고,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에 관한 것만 하고 다른 분야는 못하는 게 많으면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타파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윤회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또는 세균성이든지 그 어떠한 고뇌가 닥친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부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져야만이 여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고 저렇고 경전 얘기만을 하지 않고 마음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마음 씀씀이와 올바른 행동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행동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말을 잘하고, 조건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다가 즉시 돌려서 화가 안 나게끔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화나는 거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를, 구정물을 새 물로 갈아서 먹고 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식구들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이 되고, 사위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바뀌듯이 부처님 마음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중생이요, 중생이 즉 마음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동일하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생각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일으켜서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려서 생산한 것이 만물만생입니다. 이점을 잘 생각하신다면 법당에 가서 초를 켜고 향을 사르고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답게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양을 올릴 때 내 공양 네 공양 하고 올립니다. 촛불도 내 것 네 것, 향도 네 것 내 것 하고 서로 올리려고 야단들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말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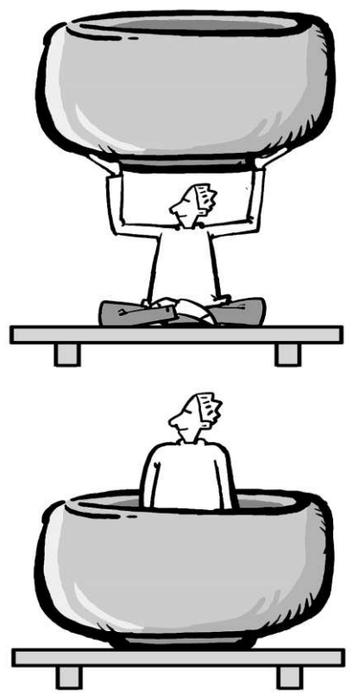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두가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행을 하고 마음을 내라

나찰나 전달을 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공생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화하고 있는데 어떤 부처님이 혼자 받습니까. 어떤 귀신이 혼자 받습니까. 또 자기가 혼자 먹습니까. 혼자 먹어도 혼자 먹은 사이가 없지요. 내 몸 속에도 생명체가 수십억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더 먹었니 덜 먹었니 할 것도 없이 더불어 함께 하는 공양이지요. 그리고 청수를 올리는 건 사람의 마음,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공양입니다.

우리 몸뚱이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든, 꽃을 꽂든, 일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넓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바로 공행이 되는 거고 공양이 되는 겁니다.

안팎으로 공덕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공덕을 짓게끔 공양을 해야, 즉 말하자면 일거일동이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나만이 살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줬다고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아닌 내 주인공이 작용을 하기에 모두가 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왔기 때문에 줬을 거고 내가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서로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지요.

공동체의 도리를 알면 공덕이 될 수가 있고, 공양을 올릴 수가 있고, 지혜롭고 밝고 밝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공동으로 돌아가고, 내가 밥을 먹건 남이 밥을 먹건, 하다못해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공양인데 이 참다운 공양의 뜻을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잘 들을 수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시겠습니까? 마음, 마음 하는데 귀중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광명선원에 공양주가 계셨습니다. 그 공양주가 언젠가 한번은 이렇게 말을 합디다. "스님, 저는 이다음에 죽을 때도 자식들한테 가서 앓다가 죽을 수도 없고, 절에서 앓다가 죽자니 스님네들께 누가 돼서 아니 됩니다. 그러니 스님, 죽을 때도 그냥 살다가 앓지 말고 금방 가게 해주십시오. 내 처지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걸 "그거는 보살님 마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엊그저께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하고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가셨답니다. 그러니 서서 죽든지, 앉아 죽든지, 누워서 죽든지 옷 벗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겠지요.

늘 얘기합니다만 업을 녹이지 못해서 애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익지 못한 콩깍지와 같다, 익지 못한 콩깍지는 다 속껍질이 촬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까도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까도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야파서 질질 매고 죽네 사네 하고 온통 남을 괴롭히는 거와 같다는 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잘 익은 콩은 건드리기만 해도 깍지가 탁 터지며 콩이 나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젠 늙었는데 내가 이런 공부는 해서 뭘 해?' 하지만, 젊어서 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젊어질 거니까 빨리 해야지요. 노인네든 젊은이든 애든,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알아서 벗어나야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애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증을 만들어 가지고 의증을 내는데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의증을 낸다면 의증이 의증이 아니죠. 스스로 의증이 나야 그게 진짜 의증인 것이요, 자기에게서 스스로 의증이 나야만 의증이지 아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의증을 내는 건 의증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며, 부지런히 마음의 계발을 해서 바깥으로 뛰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계발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뛰면서 해야만이 우리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 공덕의 의미를 세밀히 알고 실천을 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애고나 병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애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해야 합니다. 그것만 앞장세우고 그냥 애통지통하지 마시고 경계가 닥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겠다 한다면 고도 고가 아니에요.

차가 밀려서 지루하게 기다릴 때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차가 멈추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멀거니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이 가고 오는데 뭐가 지루합니까. 그렇다고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망상을 하지 마시고 또 망상이라고도 하지 말고 모조리 다가오는 대로 놓고 신성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이 안 하는 신성한 생각, 그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애고 병고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등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코웃음 탁 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또 생겼네. 네가 공부하라고 내놓은 거니까 아프지 않고 고가 닥치지 않게 하는 것도 너잖아.' 하고 말겨 놓고 모든 것을 타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료로 알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못하시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응신이 되지 못합니다. 응신으로 화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 화신, 응신으로서 둘 아니게 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돼야 자기가 바로 그분이 되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은 정신계에 요점을 두고 자생중생을 제도해야 제도가 된다는 뜻이죠. 자생중생이 제도가 못된다면 내가 제도가 되지 않죠. 마지막 성불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생중생을 제도하려면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다섯 가지 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모두가 공양으로서 아름다운 밝음이 역력히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오늘 질문은 제 개인의 질문보다 우리 여러 불자님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금생에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공부 하다가 깨우치지 못하고 웃을 벗게 될 경우에 지금의 이 공부가 어떤 공덕이 되는 것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공덕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아시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먹어 줌으로써 모두가 다 먹기 때문에 공양이다.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가 감사하게 놓고 구정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그 자리고, 또 그렇게 하면 그대로 열반이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부처로서 법신으로서 응신이 되고 이 세상 굴레 바퀴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갈고 어떤 건 안 갈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도 공양공덕이요, 외부로도 공양공덕이요, 공심 또는 공용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그 도리를 하나로 묶

☞30면으로 계속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

☞29면에서 계속

어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틀림없지요. 더디고 빠를 뿐이지 틀림없습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의문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에는 스님을 뵙고 질문을 하려 했다가도 막상 스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질문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증의 힘이 약한 탓인가요, 다른 도리가 있는 것인가요.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다른 도리가 있고말고요. 길을 가다가 엎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나는 건 아니듯이 그 자리에서 나온 거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상대가 없습니다. 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탓으로 다 돌려라 하는 건 바로 내가 있으니 부딪침도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 너만이 이것을 타파할 수가 있고, 너만이 이런 의증을 타파해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뭐야?' 하고 묻는 것도 그 자리에다 물으세요. 그래야 빠릅니다. 삼자한테 물어본들 '내가 배가 고프니 밥 좀 대신 잡숴주시오'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대신 먹는다고 본인이 배부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렵고 좀 답답하더라도 "네가 이런 답답함을 내놓은 거니까 답답함도 의증도 너만이 해소하고 너만이 풀어줄 수 있어." 하고, 속에서 나온 거 속에서 풀도록 맡겨놓으세요. 그래야 공부가 빨리 되지요.

▲질문자1: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경계에 부딪혀서 그 순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을 때마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으로 자심반조와 회광반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심반조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스님: 밝은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다가 감사하게 놓고 구정물을 맑게 만들어서 말겨 놓고 돌아가며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도리입니다. 회광반조나 자심반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깊숙한 내면세계에 놓고 돌아간다면 그게 바로 회광반조입니다.

▲질문자1: 옛날에 어느 선사가 제자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부가 조용한 중에는 그만한 편이나 움직이는 중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시면서 북두칠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북두를 보라 함이 무슨 뜻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얼른 쉽게 말하면 발은 하늘을 보고 머리는 땅 속을 본다 했습니다. 또 한 마디 하자면 모든 물질이 다 허망한 것이니 그 허망한 물질의 움직임이 움직임이 아님을 알면 바로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북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방을 볼 수 있다 함은 마음세계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쭉거리는 것이 여러분이 움쭉거리는 겁니까? 물질은 허망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망한 것이 움쭉거리는 것을, 움쭉거림이 아님을 알라 한 것도 마음으로부터 움쭉거림이 나오지 마음이 아니라면 움쭉거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하자는 대로 육신은 움쭉거리게 돼 있으니 그러한 겁니다. "아, 고놈 칠성이 참 잘생겼네." 이러기도 하지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도리를 밝음에서 보라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북두를 봐라, 마음의 높음을, 얼른 쉽게 말해서 인간의 머리가 제일 위라고 하지만 머리가 위가 아니라 정신이 위란 얘기죠. 남쪽으로 얼굴을 돌리되 내면의 북두를 봐라. 그걸 볼 줄 알아야 어느 걸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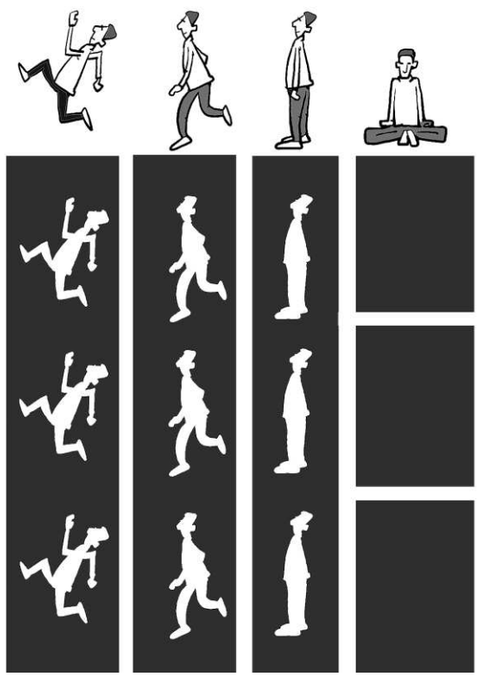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조리 다가오는 대로 놓아라!

도 함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쭉거려도 움쭉거림이 아니고, 움쭉거리지 않아도 움쭉거림이요. 그 가운데 묘미가 있느리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여러 조사들, 부처님들도 다들 앉아서 얼굴을 여기다 두고도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땅속도 보고, 위도 보고 어느 거 하나 안 보는 게 없어서 '명경알 같다. 명경에 비치는 게 자기가 아니고 참자기인 팔망미인이 보여야 된다.' 이런 거죠.

과거 내가 태어나기 이전과 현실, 미래 이 삼세가 바로 현실, 지금 이 자립니다.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요. 삼세가 있으니 네가 태어나기 이전을 찾아라 이러는데 그렇다고 태어나기 이전을 찾느라고 바깥으로 헤매고 도는 게 아니라구요. 과거도 자기요, 현실도 자기요, 미래도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지요.

작년 씨를 올 봄에 심었더니 싹으로 화했는데 작년 씨를 어디서 찾는가. 싹으로 화해서 열매가 맺히고 익어서 씨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작년 씨를 작년에 가서 찾다니, 싹으로 화해서 태어난 것을 어디 가서 찾는가 하고 말입니다.

▲질문자2: 저는 25년간 중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다 그러면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불행한 일을 자초할 것으로 확신이 설 때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더러 합니다. 그러면서 급한 학생들은 정말 때리기도 하는데, 요새 고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때리면 같이 대들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어맞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성품을 타고난 것도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면 원래 마음을 그렇게 타고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충고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력이 약해서 저희들이 그 애들에게 충고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1학년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다시 신입생으로 재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한 학생이 또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붙들어서 학교에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과연 왔을 때 구타를 하면서라도 다시 학교를 다니게 한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처지에 교육력이 정말로 약해서 더 이상 학생들을 다룰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어야 바르고 빠른 길이 오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러워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 기르는 닭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은들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듯이, 그거를 말로 하고 때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으려면 마음을 붙잡아야지 육체를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환경도 물론이거니와 선생님들도 마음 도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을 따라다니는 시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학생들이 20명이면 20명, 100명이면 100명임을 알고 있는 그 점이 가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설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가설돼 있는 그 아이한테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처음 오셔서 그렇지 관하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신다면 아주 여여하게 웃고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발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놓으십시오.

▲질문자2: 제가 자녀 셋을 거느리고 가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선 한 학급에 40여 명 학생들을 데리고, 또 많은 학생들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가설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가설선이 다 연결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스님: 아버지다 아들이다, 어머니다 딸이다, 부인이다 하고 알고 있는 게 가설이 본래 되는 겁니다. 관습에 의해서 자기가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나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댁에 갔다 올 수 있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가설이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벌써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면 가설이 된 거죠. 친구지간에 알아도 가설이 된 거고 스승과 제자지간도 마찬가지죠.

▲질문자2: 예. 제 교육력이 약하고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자책하고 제 탓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연보호 명예감시관과 환경보존 감시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나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를 사람이 마시고 또 사람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마시며 주고받고 해서 서로 공생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뭇 사람들이 그 공생 공존 관계를 모르고 있는지, 산에 가면 나무를 짓밟고 환경을 더럽히고 해서 지구가 지금 핵의 공포로 전 인류가 정말 몇 번 죽어도 죽을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건지요.

▲스님: 그것도 마음에서 빚어지는 일들이지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정신계의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 사람네들도 알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몰라서 빚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마음이요 아는 것도 마음이요, 하는 것도 마음이요 못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의 발전이 지금 더 아쉬운 일이고 지금 정신계의 발전이 아주 시급한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며 이다음에는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고 체험한 도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6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지극속에 보존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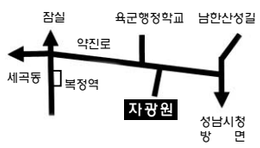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결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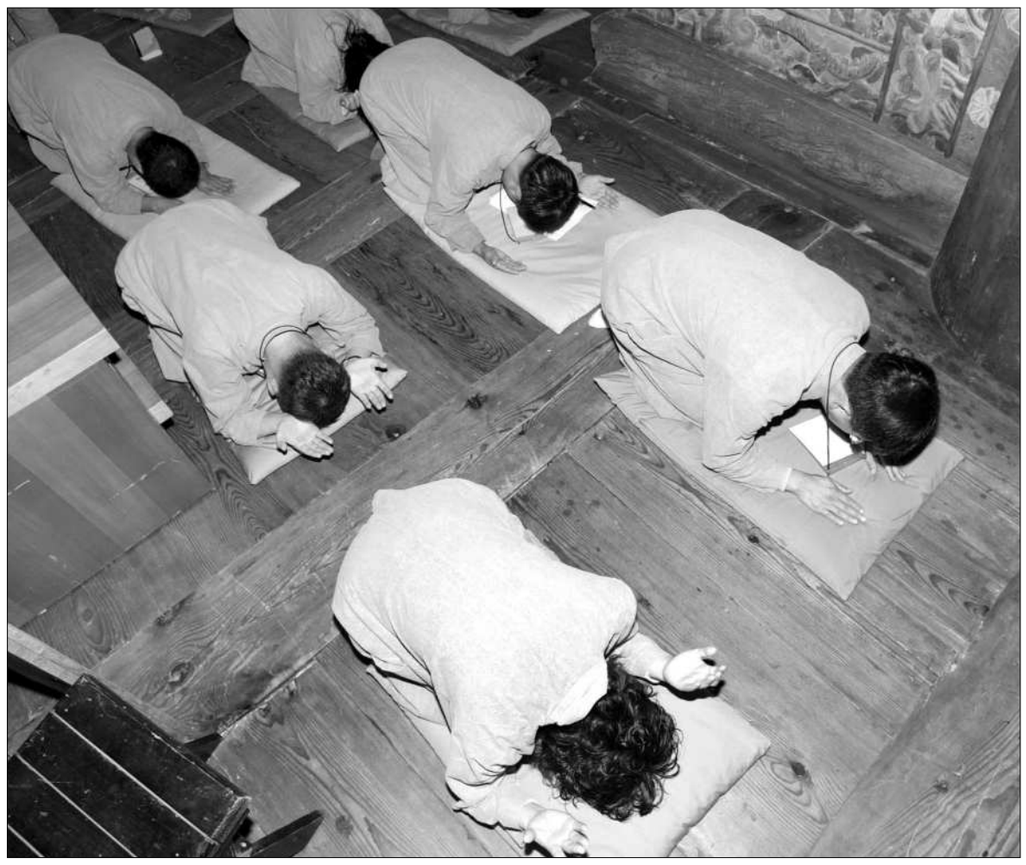
氣장어리 북장어리 황금장어리 氣가득한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인욕수행으로 건강지켜요

"나를 만나려면 삼천배를 하고 오라."

절에도 인의 장막이 있느냐며 항의하는 불자들에게 "삼천배의 근본은 나를 찾지 말고 부처님을 찾으라는 의미"라고 일러준 성철 스님. 스님은 삼천배 속에 그 어떤 법문보다 달고 귀한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가르침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기라도 하듯, '108배'로 대표되는 절수행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 '절'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업장참회는 물론 인욕력과 삼매력 증진, 그리고 심신 단련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어 불자들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적 신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108배 정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사회 인사'들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절 신드롬'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절 삼매에 빠진 일터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절 하면 심신단련이 절로

효과 소개되며 인기몰이

▽ '절 바람'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108배 건강요법에 흠뻑 빠져있다. 3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 108배를 시작했다는 강 부장은 최근 절하는 횟수를 300배로 늘릴 정도로 열심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숨 돌릴 틈도 없는 일정에 시달리다가 108배로써 건강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 김병운 부장판사 역시 강 부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108배 수행에 돌입했다. 몇 년 전 강 부장과 함께 시작했다가 그만 둔 적이 있지만, 지난 달 재개하며 의지를 다지고 나섰다.

108배는 이들 판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23년간 매일 천배를 이어오며 뇌성마비 장애를 극복한 한경혜 화가의 에세이 <오체투지>(반디미디어)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절수행 열풍을 더하고 있다. 절수행 도량으로 이름나 있는 양평 법왕정사(031-771-7745) 주지 청견 스님은 "최근 108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주 화요일 '절 제대로 하기' 강좌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동작 · 호흡 조화 이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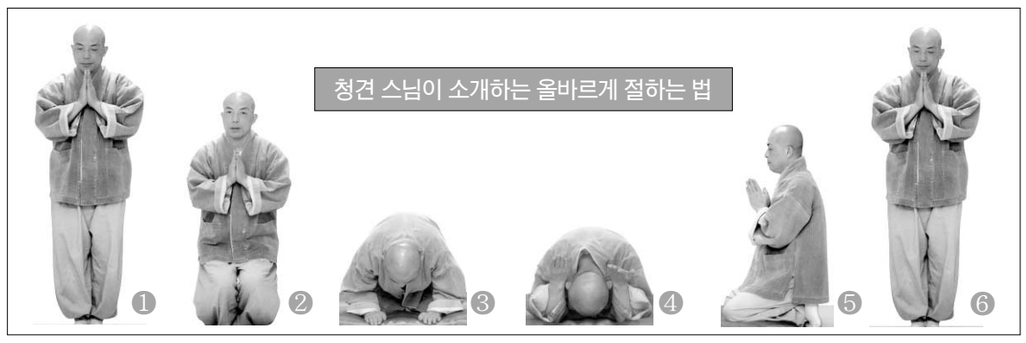
▽ 바른 절, 바른 건강

청견 스님은 "호흡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동작만 이어가는 절은 오래 지속하기도 힘들뿐더러 몸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돼 마음의 평안을 오히려 흐트리기 쉽다"고 지적한다. 절은 심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동작과 호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건강은 물론 수행으로서의 의미도 잃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절이 '올바른 절'일까. 청견 스님은 "절을 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선 자세에서 기마자세를 거쳐 무릎을 바닥에 대기까지 숨을 들이쉬다가,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어 준다. 이 같은 날숨은 무릎을 땅에서 떼며 다시금 기마자세를 취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기마자세를 취하면서 몸을 펴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숨을 들이키게 된다.

청견 스님은 "이 같은 호흡법을 따른다면 108배는 물론이고 천배까지 숨을 헐떡이지 않고 무난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심장의 뜨거운 불기운을 아래로 내려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을 위로 끌어올려 머리를 맑게 해주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의 흥분도 가라앉히므로 분노 등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청견 스님의 말이다. 절 수행자들이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 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1회(화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28

규칙적으로 하면 젊어진다

마사지로 얻어지는 놀라운 효과들

마사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완 작용이다. 이러한 운동 작용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동시적으로 작용해 몸 안에 축적된 독소와 화학 물질을 제거하고 긴장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준다. 또한 면역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근육골계, 소화 위장 등 몸의 전 장기 조직에 관여해 독소 제거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킨다.

규칙적인 마사지는 무공해 유기농 음식물 섭취,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 자연광 아래서의 적당한 운동과 함께 우리 현대인이 무병 장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중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 공기, 물 등은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사지와 적당한 운동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문에 그 방법을 배워 매일매일 실시할 것을 권한다.

매일 목욕 전 30분 내지 45분 간의 마사지는 몸 속의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모든 구멍들을 열리게 해 혈액과 임파의 순환뿐만 아니라 쌓여 있던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부의 온도가 오르는데 따스한 스팀으로 땀을 흘리게 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마사지 후에는 바로 목욕하는 것보다 30분 정도 기다려 기름이 땀구멍으로 흡수되고 마사지로 올랐던 피부 온도가 정상화된 다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마사지는 생명력, 즉 기를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는 사람은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해 줌으로써 자신의 호흡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도록 해야 한다. 끊임없는 긴장과 근심 걱정, 불만족, 욕심, 불안 등은 육체의 각 장기에 영향을 끼쳐 일찍 늙게 만든다. 때문에 조로를 막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선 몸과 마음의 이완이 필수적이다. 요가와 복식 호흡도 중요한 이완법이지만 마사지를 함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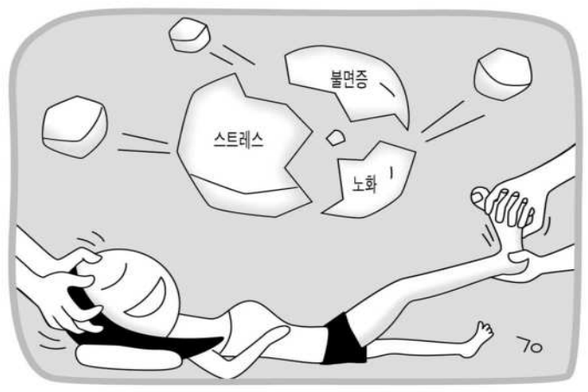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해 향내가 나는 약초, 오일 마사지는 조기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살을 감소시키며 근육과 피부를 부드럽고 윤기나게 하며, 신경과 면역계를 강화시켜 몸에 탄력성을 준다. 하지만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신경 · 면역계 강화, 자연 치유력 향상
개인 의지로 가능한 무병장수 한 방법

약초와 향을 첨가한 기름을 일정한 온도로 높였다가(보통 180℃) 식힌 후 바르면서 시행하는 아유르베딕 마사지는 몸의 모든 흐름을 원활케 해 그 동안 흐름이 막혀 생긴 모든 통증을 없애준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정신을 맑게 해 생활을 즐겁고 활력있게 만든다.

발 마사지는 전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좋고, 잠자기 전의 머리 마사지는 불면증을 없애 준다. 또한 성적인 즐거움을 얻는 데도 마사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포천 중문의대



당하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중국 청도 장안사 공양주 모십니다
장안사는 중국에 사찰을 세워 한국 불교의 전통과 큰스님들께서 이룩하신 위업을 지켜 가겠다는 뜻을 세우고 사부대중이 합심해 불기 2548년 9월 2일 재불님의 가피로 중국 최초 한국의 절 장안사 청도 분원이 원만히 개원하게 됐습니다.
장안사 청도 분원에서는 사찰음식을 통해 해외 포교에 진력하실 공양주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저 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1. 자 격
1) 해외여행과 중국 장기 체류에 지장이 없으신 분
2) 한국 음식 조리사 자격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이나 사찰 음식에 조예가 깊으신 분
3) 신심을 가지고 해외 포교활동에 진력하실 분
4) 남.녀 구분, 연령제한 없으나 신체 건강하신 분
2. 급 여 : 상담 후 결정
3.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주민등록 등본 3) 자격증 사본
4. 서류제출 : 장안사(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마감 : 2004년 9월 30일 까지
6. 연 락 처 : 019-9232-4788 031)901-1954
장 안 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무료특강
퇴마사(退魔士) 양성과정
천도와 제령에 관한 특수비법 공개
특강안내
◆ 강의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지도강사 : 법관선생
◆ 장 소 : 서울 수유동 연구소, 부산 연구소
◆ 문의 및 신청 ◆
02)996-6156 / 051)817-6156
H.P: 017-553-6156
동방파동명상연구소
홈페이지: www.dongbang21.co.kr

아이디어 라이프 / idea

■신발과학이 탄생시킨 효도신발!!

파동에너지 건강신발 "롱~스마일" 인기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인체공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작된 효도신발의 대명사!!



신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 확 생겨!

롱~스마일은 신는 순간 누구나 2번 놀란다.
첫째는 가볍고 편안함에 이런 신발이 있을까 하고 놀라고, 둘째는 다리에 힘이 확 생기는 것에 놀란다. 신발 가방단 30년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가벼운 신발'**이란 별명까지 붙은 **롱~스마일사** 장균혁(60세)대표가 중, 노년층의 무병장수를 위해 만든 신발로 신발 기능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이 무병장수하고 평생 못고 사시라는 뜻에서 브랜드를 **롱~스마일**이라 붙인 이 신발은 신어본 아들의 입소문을 통해 신청하던 10일이상 걸려야 신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팔리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자식을 키우느라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게 숨가쁘게 달려 왔다. 집도 오래되면 벽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듯이 몸도 오래된 집과 같이 모든 관절이 편한을 잃고 허리도 구부러져 있다. 오래된 집도 제일 중요한 기초를 보강하면 반듯해 지듯이 사람의 인체구조상 기초는 발이다. 그래서 발은 인체 어느 곳과도 연결되어 있어 사람의 제2심장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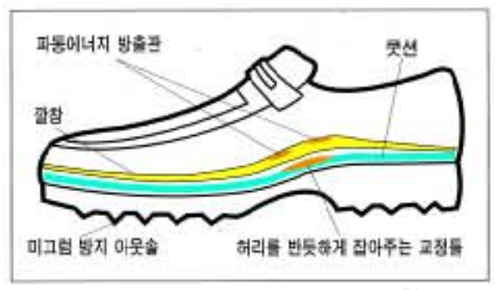
롱~스마일 신발은 사람의 기초인 발을 보강시키는 기능을 접합시켜 일반 신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있다. 첫째는 어른들 누구나 다리에 힘이 부족하기에 전 WBA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김환진씨가 발명한 파동에너지를 발산하게 하여 신는 순간부터 다리 힘이 생기게 했으며, 둘째는 몸의 균형과 허리를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용천을 받쳐주게 제작하고, 셋째는 자주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 비올 때도 제일 안전하다는 다이다

30대 건강 80대 까지!

본드형 조각의 고무창을 개발해 부착하고, 넷째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등을 갖고 있는 노인분이 장시간 보행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음이온과 원조의선을 발산하게 하고, 신발의 무게를 혁기적으로 가볍고, 편안하게 한것이 롱보인다. 최고급 한의소가죽과 최첨단 신소재가 총 동원된 최고급 신발로 여성용 120,000원 남성용 125,000원 전화로 싸이즈를 알려주면 보내준다. 문의080-555-3080
농협 944-12-441157 김현식

롱~스마일 신발 내부설계도

발은 사람의 제2의 심장



삼고 금강저 건강밸트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징도 튼튼!! ·허리도 튼튼!! ·승리의 수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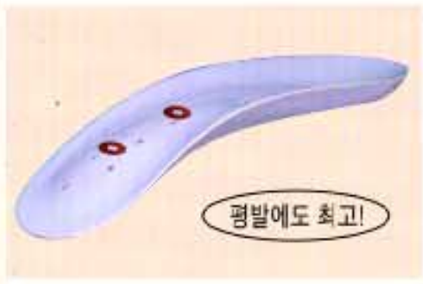
삼고금강저 (金剛杵)



삼고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필고의식 복 쓰는 무기로 불퇴전의 권은 보리심을 상징한다. 별 크의 인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 존심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감귀도 물리쳤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국내 불교성구 전문업체인 과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삼고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측원 봉공을 마치고 출시했다. 1분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상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등 항상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수호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등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인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모든일이 승리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처님 성구다. 업치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 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겸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 밸트로 평가되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080-330-7555)

살 빼는 "스타캔" 인기짱



신발에 넣고 출근과 퇴근 하는것 만으로 3시간 운동효과

▶배나온 고민 걱정 끝

배는 나오고 다리는 힘이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신에 넣고 출, 퇴근만 하도 다이어트와 운동이 되는 "스타캔"이 남, 여 직장인과 가정주부 및 노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 용품 "스타캔"은 착용 자체가 근력 향상과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 결국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신고 생활하는 자체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킨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다이어트 용품이다. 스타캔을 넣고 신을 신으면 자연스레 "발 중심-발앞끝 보행"만이 가능해 종아리 부분의 근육과 대퇴근이 반복적으로 이완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스타캔이 적용된 기술은 뒤축에 실리는 체중을 발중심에 분산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반화를 착용했을 때 보다 35% 까지 감소 시켜 주며 걸을때마다 사람의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보행해도 피곤함이 없고, 신는 순간부터 다리 힘이 생겨 넘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타캔"를 착용해 본 이들은 다이어트 은동효과에 대해 다리에 힘이 생기고 3개월이면 배가 들어가며 허리도 반듯해 지고 있다며 다이어트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캔"을 발명한 (주)제이테크는 2년전 부터 일본으로 수출되어 다이어트 용품중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에서 8천엔에 판리고 있다. 가격48,000원으로 주문하면 보내준다.
(080)330-7555 농협 944-12-441157 김현식

관세음보살 백연화 향로

네 소망이 성취되고 후손이 영화롭고 번성하리라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무게2.7kg높이20cm가로17cm

추석 제례시 품위있게 사용!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과 자물을 향로로 제작해 장인불공과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 백연화는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 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일도 안되어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우기를 넘기고 2년간 매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소원성취 향로다. 특히 감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구정에 모시면 심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좋고 꼬였던 일들이 풀린다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음보살백연화 향로는 99%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백연화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가격265,000원 문의(080-330-7555)

산을 좋아하는 등산매니아의 꿈의 신발 …

"아이젠부착 등산화 싼스타"출시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국내 최초 특상 수상

신발에 부착된 아이젠 미끄러운 곳에서 레바만 돌리면 안전



(그림1) (그림2)

눈, 비 올 때와 하산할 때 최고

등산화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배낭속에 아이젠 미끄럼 방지기구을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이젠 이런 불편함을 없애는 아이젠이 부착된 '등산화 싼스타'의 발명으로 등산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이 아닌 일반 계절에도 하산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심족하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고 특히 여름 산행은 갑주스런 소나기로 등산길이 대단히 미끄러워 아이젠은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는 신발 밑창 뒷부분에 간편하게 고정되었 그림1)다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 간편하게 레바만 돌리면(그림2)눈이 있는곳이나 빙판길 또는 비올 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아이젠을 간단히 떼었다 붙였다 할수도 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제네바 발명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신발은 기능성도 최고지만 최첨단 신소재가 총동원 된 등산화로, 신는 순간부터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산행에도 피곤함이 없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신발 과학의 결정체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를 발명하고 개발한 (주)테크제이 관계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등산에는 꼭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한다. 가격 125,300원 (080)566-3083)